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50주년 기념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룸 I, II 원정등반 보고서

(2008 Kore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asherbrum I, II Expedition Report)



주최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광주광역시 산악연맹

주관 : 전남대학교 산악회, 전남대학교 OB산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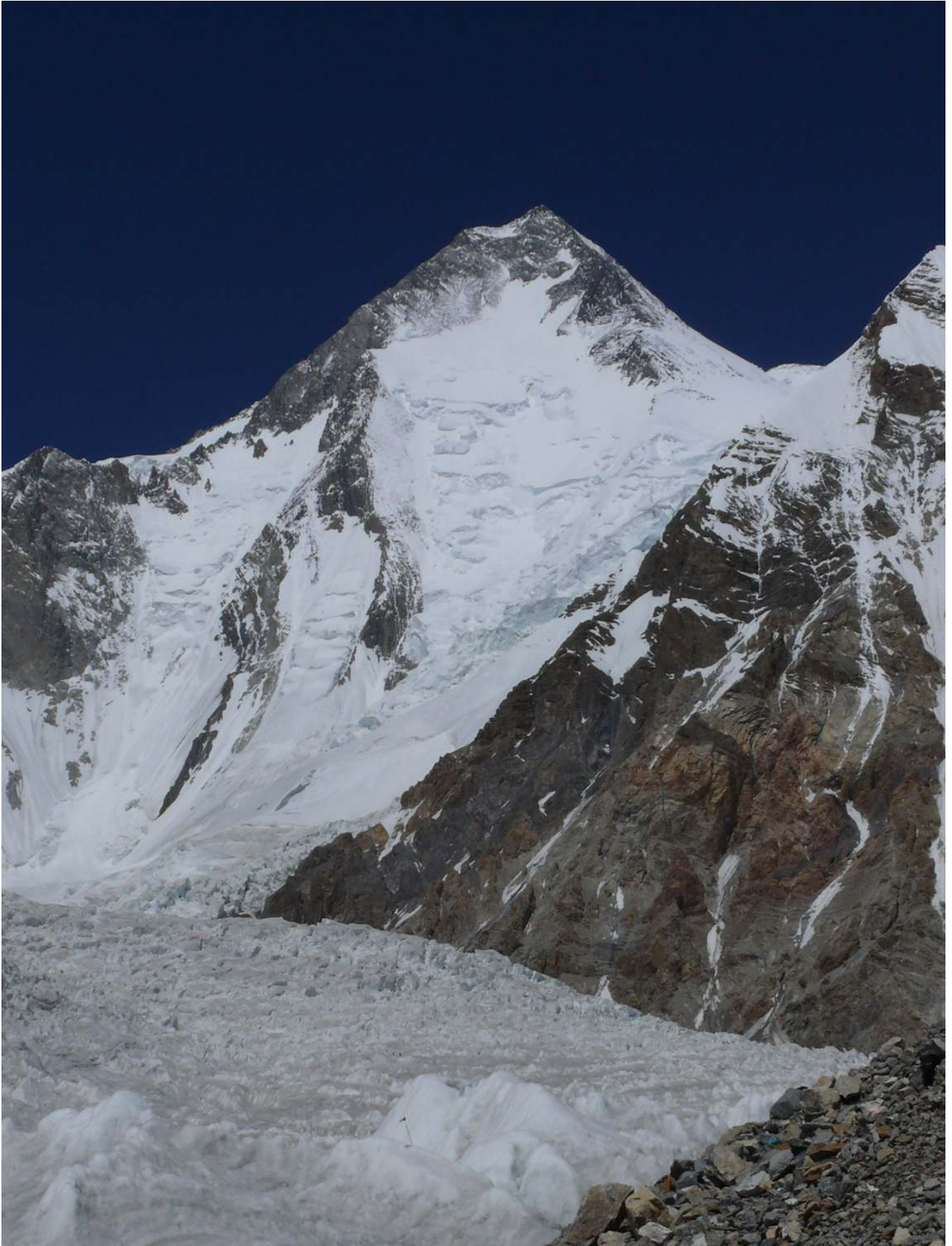
후원 :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병원

버그하우스, 노스페이스, 에코로바

- 목 차 -

원정화보	- - - - - 2
인사말	
원정단장 (김재률)	- - - - - 15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장 (이정옥)	- - - - - 16
원정대장 (김영필)	- - - - - 17
제1장 원정 추진 및 준비	
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 - - - - 18
2. 훈련일지	- - - - - 19
3. 발대식	- - - - - 20
제2장 원정개요	
1. 원정개요	- - - - - 33
2. 운행결과	- - - - - 34
3. 원정대원	- - - - - 35
4. 가셔브룸 개요	- - - - - 38
5. 카라반 및 등반루트	- - - - - 40
제3장 운행기록	- - - - - 42
제4장 분야별 보고	
1. 행 정 - 손용주	- - - - - 64
2. 회 계 - 손용주	- - - - - 68
3. 장 비 - 이광복	- - - - - 70
4. 식 량 - 문석민	- - - - - 78
5. 포장 및 수송 - 김가영	- - - - - 88
6. 통신 및 전기 - 임성근	- - - - - 98
7. 의 료 - 곽새미	- - - - - 104
제5장 부록	
1. 파키스탄의 산	- - - - - 109
2. 파키스탄 입산규정	- - - - - 114
3. 기타 행정서식	- - - - - 133
4. 원정에 도움을 주신분	- - - - - 136

원정화보



BC에서 본 가셔브룸 I (8,068m) - 세계11위봉



BC에서 본 가셔브롬 II (8,032m) - 세계13위봉



원정대 플랑카드



전남대학교 프랑카드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플랑카드



광주광역시 플랑카드

카라반 과정의 산



낭가파르бат(Nanga Parbat 또는 Diamir) 8,125m - 세계9위봉



트랑고타워(Trango Tower) 6,239m



마셔브룸(Masherbrum) 7,821m



무즈타크타워(Muztagh Tower) 7,237m



가셔브룸(Gasherbrum)IV 7,980m



브로드피크(Broad peak) 8,047m - 세계12위봉



K2(Chogoli) 8,611m - 세계2위봉



초고리사(Chogolisa) 7,665m

운행 사진



거대한 빙탐지대를 지나 C1으로 향하는 대원들



C1을 향하여 오르고 있는 대원들



G II 봉 C3에서 바라본 가셔브룸 빙하의 모습



G II 봉 정상 가는 길의 일출

협찬사 깃발



버그하우스



노스페이스



전남대학교병원



천지산악

인사말(원정단장)

등산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애정을 갖고 인간의 한계상황을 느끼면서 대자연에 동화된 산악인의 끝없는 도전과 숭고한 정신은 위대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순수하고 이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생하며 싸우는 자가 있고 그냥 편안한 안정만을 취하는 인간승리 외에 또 다른 승리가 있다는 신앙과 확신을 갖고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산과 암벽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개교 56주년을 맞이하여 가셔브롬 I, II 원정대가 히말라야를 향하여 대망의 장도를 오른 후 60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간 우리는 몇 차례 해외원정을 다녀왔고 특히 2년 전 우리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후 우리들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세대에는 어떤 여건과 형편을 핑계 삼아 해외원정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최근 주위의 산악활동들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대견함과 긍지를 느끼곤 합니다.

장엄한 설산의 8,000m 이상 고봉의 등정은 자기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지만 항상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몇 배의 위험과 불가항력의 사고가 도사리고 있고 어쩌면 하늘이 도우는 행운이 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행운이 따라 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이번 가셔브롬 I, II 대원들 나름대로 경비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들이 피땀 흘려 훈련한 만큼 등정에 꼭 성공하기를 빌었으며 어찌 보면 이번 원정은 2년 전 에베레스트 등정과 연속선상에서 야심 찬 계획이었습니다.

칼 야스퍼스의 얘기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규범 하에서 극한적인 위험을 찾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면, 하늘마저 지쳐 끝난 히말라야 고봉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한계를 요구하는 자연에 맞서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산악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정상에 선 대원의 사진을 보기를 갈망했지만 무위로 끝나니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정상등정만이 등반의 예규가 아니라는 생각은 모든 산악인들에게 회자되어온 기본상식입니다. 이번 원정대는 다른 한국원정대와 비교하면 4명의 재학생을 포함하여 비교적 연령이 어린 대원들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범위는 무궁무진하고 더욱더 밝은 미래를 기약해봅니다. 이제 알랑 드 샤멜리우스의 “등산은 길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명언을 되새기면서 이들은 앞으로 더욱 훌륭하고 멋진 등반의 꿈을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가셔브롬 I, II 원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롬 I, II 원정대 단장 김 재 루

인사말(OB회장)

등산이라는 단어로 산을 접한 이래 우리 모두가 꿈꾸어 왔던 더 높은 곳을 향한 우리들의 의지는 하얀산과 푸른 하늘의 만년설을 이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동경하였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1958년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원정등반사를 살펴보면,

개인이 연합원정대에 참여한 사례는 71년 마나슬루 원정대의 최창돈 선배를 필두로 하여 오성개, 박헌주, 유명희, 고 이현조 회원 등이 여러 차례 8,000m 고봉을 등반하였습니다.

대학 차원의 등반사를 보면, 의대산악회의 87년 렌포강을 시작으로 93년 유럽 알프스 3대 북벽, 97년 초오유 등반, 2006년 초모랑마(에베레스트) 등반에 이어 올해 6월 가셔브롬 I, II 봉에 도전하였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인간애, 그리고 희생정신과 신뢰와 격려로 회원 상호간의 끈끈한 정으로 뭉쳤던 시간들이었으며, 산이 우리들에게 주는 숭고한 정신을 겸허히 배우고 실천한 결코 짧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비록 이번 원정대의 가셔브롬 I, II 봉 연속등반은 정상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 산악부의 등반 기술과 축적된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던 열정과 도전의 장이었으며, 근래에 보기 드문 젊은 산악인재 양성의 장이었고 미래의 도전을 위한 큰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도전의 경험을 후배에게 물려주는 산악인의 훌륭한 전통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카라코람과 가셔브롬에 도전을 준비하는 산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원정이 성사되기까지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여러 산악형제 여러분들과 장비등을 지원해주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 등에게 지면을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97 한국 초오유 원정대장

전남대학교 OB 산악회장 이정옥

인사말(원정대장)

저희는 또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6년 초모랑마(에베레스트) 등반을 성공리에 마치고, 2년여의 준비 끝에, 선배님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패기를 한데 모아, 50년 손때묻은 우드피켈을 들고서 만년설 칼바람 속에 뛰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상을 끊임없이 두드렸으나 여신은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산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고, 대자연의 숨결을 느꼈으며 그 속에 미약한 존재인 인간은 순응해야 한다는 겸손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위(無位)와 무상(無賞)을 추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1등도 2등도 중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극한의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고 극복하면서 스스로 희열을 느낄 뿐입니다. “등산은 정복하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는 극한의 사색”이라는 말처럼..

저희 팀은 근래에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2-30대가 주축이었으며 4명의 재학생을 포함한 원정대였습니다. 김미곤 등반대장을 비롯한 총 11명의 대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산악계를 이끌어갈 동량들입니다. 비록 이번 등반에서는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더욱 격려해 주시어 훌륭한 인재들로 키워주실 것을 선후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원정기간동안 선배와 후배가 화합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산행을 하였고 모든 대원이 건강히 가정으로 돌아와 기쁩니다. 그러나, 카라코람 발토르 빙하에서 동고동락하며 서로 형제처럼 지내던 경남연맹 K2 원정대는 불의의 사고로 동료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심심한 애도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으로, 이번 원정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악 형제여러분과 김훈봉 선배님을 비롯한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원님들, 강정채 전남대학교 총장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 김국웅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님과 동문 선후배 여러분, 유영식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산악회장님과 동문 선후배 여러분,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김영진 전남대학교병원장님과 병원가족 여러분, 엄재은 버그하우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성기학 노스페이스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조병근 에코로바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멀리서도 늘 함께하시는 뉴욕의 박상규 선배님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롬 I, II 원정대장 김영필

제1장 원정 추진 및 준비

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연도	월 일	내 용	비고
2006	7. 8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이정옥 회장이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발간”과 “2008년 해외원정 추진”안을 의제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확정함	
2007	4.	훈련대장 장희, 훈련부대장 김영필 임명	
	4.	훈련대원 모집 공문 발송	
	6. 3	제1차 훈련대원 모임 (원정개요 설명)	
	6. 18	제2차 훈련대원 모임 (업무분담 및 토론회)	
	7. 8	제3차 훈련대원 모임 (업무분담 및 토론회)	
	7. 14 ~ 15	제4차 훈련 (무등산, 하중 및 비박훈련)	
	8. 18 ~ 19	제5차 훈련 (무등산, 하중, 주마령, 비박)	
	9. 8 ~ 9	제6차 훈련 (체력테스트, 무등산, 주마령, 비박)	
	10. 20 ~ 21	제7차 훈련 (무등산 야간산행,비박, 등정자 초청 강연회)	
	12. 15 ~ 16	제8차 훈련 (무등산 남북주능 야간종주-체력테스트)	
	12. 26	운영위원회의에서 원정대장에 김영필 임명함	
	12. 27	가셔브룸 입산료 납부 완료	
2008	1. 21 ~ 2. 3	제9차 훈련 (설악산 빙벽등반)	
	1. 24	OB정기총회에서 원정추진경과와 예산안 보고함	
	2. 13 ~ 18	제10차 훈련 (한라산 적설기 종합훈련)	
	3. 15 ~ 16	제11차 훈련 (무등산 남북종주, 체력테스트)	
	4. 11 ~ 12	제12차 훈련 (월출산 릿지, 주마령, 비박)	
	5. 1 ~ 6. 4	장비 및 식량구입, 출국준비	
	5. 22	최종 점검회의	
	6. 4	장비 및 식량구입, 짐 포장 및 발송	
	6. 5	원정대 발대식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	
	6. 10	출국 (김영필 대장 외 10명)	
	8. 8	귀국 (김영필 대장 외 10명)	

2. 훈련일지(단체훈련)

제1차 훈련

일 시	2007. 6. 3 (일요일) 16:00~18:00
장 소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아리방
참 석 자	이정옥, 장희, 김용욱, 김영필, 임도균, 안선희, 손용주, 임성근, 정효준, 이경미, 곽새미 (총 11 명)
훈련내용	<진행 : 김영필> - 원정개요 설명 : 대상산, 일정, 카라반과정 등 - 훈련개요 설명 : 개인훈련, 단체훈련, 종합훈련, 체력테스트, 건강검진 - 훈련대원 신청서 작성 - 임시 업무분장
특기사항	<다음 훈련 일정> 일시 : 2007. 6. 16(토요일) 13:00 장소 :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아리방 - 장희 훈련대장님의 찬조로 전남대 정문 식당에서 뒷풀이함 - 훈련대원 신청자 : 이정옥 장희 백두인 김용욱 이광복 김영필 김현성 임도균 한성필 윤현식 안선희 손용주 김가영 임성근 정효준 이선진 김영성 이경미 곽새미 (총19명)



훈련대원들에게 원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김영필 훈련부대장

제2차 훈련

일 시	2007. 6. 16 (토요일) 13:00~16:00
장 소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아리방
참 석 자	김영필, 임도균, 윤현식, 김민재, 손용주, 정효준, 문석민, 이경미, 김영성, 곽새미 (총 10 명)
훈련내용	- 임시 업무분장 (훈련대총무-임도균, 행정회계-곽새미, 식량-정효준 이경미, 장비-김민재, 포장수송-안선희 문석민) - 업무별 발표회 - 김영성 훈련대원 사의
특기사항	<다음 훈련 일정> 일시 : 2007. 7. 8(일요일) 15:00 장소 :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아리방



업무별 발표 및 토론회

제3차 훈련

일 시	2007. 7. 8 (일요일) 15:00~18:00
장 소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아리방
참 석 자	김영필, 임도균, 윤현식, 안선희, 손용주, 정효준, 문석민, 곽새미, 이경미 (총 9 명)
훈련내용	- 타 원정사례 연구 : 경일대 가셔브롬 보고서 CD 관람 및 토론 - 업무별 발표회 행정 및 회계 : 임도균, 곽새미 : 파키스탄 등산규정 발표 식량 : 정효준, 이경미 포장 및 수송 : 문석민 촬영 및 기록 : 손용주
특기사항	<다음 훈련 일정> 일시 : 2007. 7. 11(토요일) ~12(일요일) 장소 : 무등산 일원 집결 : 7. 11. 18:00 증심사 버스종점



업무별 발표 및 토론회

제4차 훈련

일 시	2007. 7. 14 (토요일) 18:00~ 15일 16:00
장 소	무등산 일원,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아리방
참 석 자	장희, 김영필, 임도균, 한성필, 안선희, 손용주, 김민재, 임성근, 문석민, 곽새미 (총10명)
훈련내용	1. 훈련등반 - 일시 : 2007. 7. 14(토) 18:00 ~ 15(일) 13:00 - 장소 : 무등산 새인봉 중봉 - 내용 : 비박 및 하중훈련, 담당업무 토론 2. 업무협의 - 일시 : 2007. 7. 15. 14:00 ~ 16:00 - 장소 : 동아리방 - 내용 : 업무 토론, 훈련일정 협의
특기사항	<다음 훈련 일정> 일시 : 2007. 7. 18(토요일) ~19(일요일) 장소 : 무등산 일원 집결 : 8. 18. 16:00 증심사 버스종점



무등산 중봉 부근에서 하중훈련중인 대원들

제5차 훈련

일 시	2007. 8. 18 (토) 16:00~ 19일 19:00
장 소	무등산 일원, 수영장
참 석 자	김영필, 임도균, 안선희, 정효준, 임성근, 곽새미, 이경미 (총8명)
훈련내용	1. 훈련등반 - 일시 : 2007. 7. 18(토) 16:00 ~ 19(일) 16:00 - 장소 : 무등산 (증심사-장불재-백마능선-장불재-증심사) - 내용 : 비박 및 하중훈련, 무전교신, 픽스로프 설치 및 주마령 2. 수영훈련 - 일시 : 2007. 7. 19. 17:00 ~ 19:00 - 장소 : 함이스포츠 수영장 - 내용 : 수영강습, 폐활량 극대화를 위한 잠영
특기사항	<다음 훈련 일정> 일시 : 2007. 9. 19(토) ~20(일) 장소 : 전남대, 무등산 일원 집결 : 9. 19. 13:00 전남대 산악회 동아리방



무등산 백마능선에서 픽스로프 설치 및 주마령 훈련

제6차 훈련

일 시	2007. 9. 8(토) 13:30~ 19(일) 19:00
장 소	전남대, 무등산 일원
참 석 자	김영필, 임도균, 안선희, 손용주, 김가영, 정효준, 임성근, 박새미, 이경미 (총9명)
훈련내용	1. 체력테스트 - 일시 : 2007. 9. 8(토) 15:00 ~ 19:00 - 장소 : 전남대 일원 - 내용 : 대원 기초체력 테스트 (달리기 30km) 2. 훈련등반 - 일시 : 2007. 9. 8(토) 22:00 ~ 9(일) 18:00 - 장소 : 무등산 새인봉 외 - 내용 : 비박, 주마령(아이젠 착용), 하중 훈련 3. OB산행에 합류하여 하산함
특기사항	- 김민재 훈련대원 탈퇴



훈련을 마치고 OB산행에 합류한 대원들

제7차 훈련

일 시	2007. 10. 20(토) 14:30~ 21(일) 19:00
장 소	무등산 일원, 전남대
참 석 자	김영필, 안선희, 손용주, 정효준, 임성근, 문석민 (총6명)
훈련내용	1. 훈련등반 - 일시 : 2007. 10. 20(토) 14:00 ~ 21(일) 12:00 - 장소 : 무등산(북서능선 구간) - 내용 : 비박, 하중, 이중화 적응 훈련 2. 가셔브룸 관련 비디오 관람 및 등정자 강연 - 일시 : 2007. 10. 21(일) 14:00 ~ 19:00 - 장소 : 전남대 산악회 동아리방 - 내용 : 가셔브룸 관련 비디오 관람, 등정자(이정현) 강연 및 토론회
특기사항	- 김현성, 임도균 개인사정으로 원정 포기 - 신청서 쓴 사람 중 남은 대원 : 김영필 안선희 한성필 윤현식 손용주 김가영 정효준 임성근 이선진 문석민 곽새미 (12명)



후배들에게 등반 경험을 설명해주고 있는 순천대OB 이정현(89학번)

제8차 훈련

일 시	2007. 12. 15(토) 14:00~ 16(일) 19:00
장 소	무등산 일원, 전남대
참 석 자	김영필, 이광복, 윤현식, 손용주, 정효준, 임성근, 문석민, 곽새미 (총8명)
훈련내용	1. 체력테스트 (야간종주등반) - 일시 : 2007. 12. 15(토) 17:00 ~ 16(일) 10:00 - 장소 : 무등산(남동능선~북서능선 구간) - 내용 : 야간 종주등반 1등 정효준(11:10) 2등 이광복(12:50) 2등 문석민(12:50) 2등 곽새미(12:50) 5등 손용주(13:00) 5등 임성근(13:00) 2. 담당업무별 토론회 - 일시 : 2007. 12. 16(일) 14:00 ~ 19:00 - 장소 : 전남대 산악회 동아리방 - 내용 : 업무분장 조정, 분야별 토론 및 대장 지시사항 전달
특기사항	



안양산 휴양림 입구 - 체력테스트 야간종주 출발 전

제9차 훈련

일 시	2008. 1. 28(월)~ 30(수)
장 소	설악산 매바위
참 석 자	김영필, 이광복, 손용주, 정효준, 임성근, 문석민, 곽새미, 이경미 (총8명)
훈련내용	빙벽등반, 주마령, 야영
특기사항	재학생 동계훈련과 병행 실시



설악산 매바위에서 빙벽훈련중인 대원들

제10차 훈련 (종합훈련)

일 시	2008 . 2. 13.(수) ~ 18.(월) 5박6일
장 소	한라산 (용진각, 장구목, 백록담)
참 석 자	김영필, 이광복, 김미곤, 안선희, 김영미, 손용주, 임성근, 문석민, 곽새미 지도위원 : 오성개 부부, 박현주 (총12명)
훈련내용	- 2월 13일 : 광주공항-제주공항-관음사매표소-용진각(BC) - 2월 14일 : 러셀 및 주마링 훈련 - 2월 15일 : 러셀, 안자일렌, 무전기사용, 사진촬영 훈련 - 2월 16일 : 제주KBS촬영지원, 설상 종주등반(백록담), 비박 훈련 - 2월 17일 : 러셀 및 주마링 훈련, BC철수 - 2월 18일 : 관음사-제주공항-광주공항
특기사항	- 장덕상(제주대OB, 77학번) : 다량의 회 찬조 - 이정옥 정태영 선배님 : 하산 후 회식 제공 - 김재명(목포대OB, 85학번) : 천혜향 50만원 상당 제공 - 한국설악산악회 이창백 외 다수 : 상하행 어프로치 차량지원



한라산 관음사 입구



비박훈련 중인 대원들



이정옥OB회장님과 정태영 선배님의 격려방문

제11차 훈련

일 시	2008. 3. 15(토) ~ 16(일)
장 소	무등산 일원, 전남대 산악회 동아리방
참 석 자	김영필, 이광복, 김미곤, 이형모, 김영미, 손용주, 임성근, 문석민, 곽새미 (총9명)
훈련내용	1. 훈련산행 - 일시 : 2008. 3. 15(토) 17:00 ~ 16(일) 10:00 - 장소 : 무등산(남동능선~북서능선 구간) - 내용 : 야간 종주등반, 하중훈련, 멤버쉽 강화 2. 담당업무별 토론회 - 일시 : 2008. 3. 16(일) 14:00 ~ 19:00 - 장소 : 전남대 산악회 동아리방 - 내용 : 업무분장 조정, 분야별 토론 <업무분장> 원정대장 김영필, 등반대장 김미곤, 행정회계 손용주, 장비 이광복, 식량 문석민, 전기통신 임성근, 포장수송 곽새미
특기사항	- 김영미, 이형모 합류



훈련을 출발하며

제12차 훈련

일 시	2008. 4. 11(금) ~ 15(토)
장 소	월출산 (사자봉, 시루봉)
참 석 자	김영필, 김미곤, 이광복, 강기석, 김가영, 손용주, 임성근, 문석민, 곽새미 (총9명)
훈련내용	1. 훈련산행(릿지등반) - 일시 : 2008. 4. 11(금) 12:00 ~ 22:00 - 장소 : 월출산 사자봉 - 내용 : 릿지등반 2. 담당업무별 토론회 - 일시 : 2008. 4. 11(금) 22:00 ~ 24:00 - 장소 : 월출산 야영장 - 내용 : 분야별 토론, 추후 일정 협의 3. 훈련산행(주마령) - 일시 : 2008. 4. 12(토) 07:00 ~ 14:00 - 장소 : 월출산 시루봉 - 내용 : 삼중화 착용 주마령
특기사항	- 강기석 합류



월출산 주마령 훈련

기타 활동 사항



전남대 교직원 극기연수에 진행도우미로 참가



전남대 총동창회 산악회 동행 (08.4.13 완도 상황봉) (08.5.18 거제 계룡산)



김용욱 총무님 부인의 도움으로 주사 놓는법 실습 중인 대원들

3. 발대식

원정 출발에 앞서 내외빈과 산악형제들이 함께한 발대식이 거행되었다



발대식 기념촬영

일시 : 2008. 6..5 19:00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

사회 : 서은호 (전남대OB, 84학번)

< 식 순 >

1. 개 회
2. 국민의례
3. 내빈 소개
4. 격 려 사 --- 전남대학교 총장 강정채 (대독 이계운 전남대 평생교육원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국웅 (대독 유영식 전남대총동창회산악회장)
광주광역시 산악연맹 회장 최경주 (대독 신현이 광주연맹 부회장)
광주광역시 학생산악연맹 회장 박상수
5. 인 사 말 -----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롬 I, II 원정대 단장 김재를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장 이정욱
6. 원정 소개 - 원정대장 김영필
7. 대원소개 및 원정대장인사말 - 원정대장
8. 깃발 전달 - 전남대, 총동창회, 산악연맹, OB산악회
9. 꽃다발전달(or 격려금전달) - 꽃다발 : 총장, 동창회장, 연맹회장
- 격려금 : 무등산 입구 “천지산악” 설상욱 사장
10. 폐 회

● 기념 촬영

● 다과회 (건배 제의 등)

제2장 원정 개요

1. 원정결과

1. **대의명칭** :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롬 I, II 원정
(NAME) 2008 Kore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asherbrum I, II Expedition
2. **대 상 산** : 파키스탄 카라코람산맥 가셔브롬 I (8,068m), 가셔브롬 II (8,035m)
3. **등반루트** : 가셔브롬 I 북서릉, 가셔브롬 II 남릉
4. **원정기간** : 2008. 6. 10 - 8. 8 (60일)
5. **원정대원** : 원정대장 외 10명
6. **등반목적** : 가) 전남대학교 개교 56주년, 총동창회 창립 52주년 기념
나)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다) 해외원정등반을 통한 산악인재 양성
라) 파키스탄 및 국제 산악인과 교류
7. **원정결과** : 가) 2008. 7. 19
김미곤, 밍마첼파 GI 6,900m(C3) 도달 후 강풍과 폭설로 후퇴
나) 2008. 7. 28
이형모 김영미 김가영 팸바첼파 GII 7,600m 도달 후 강풍으로 후퇴
8. **연 락 처** : 전남대학교 산악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 062-530-0075 원정대장(김영필) 011-702-5724
9. **대 행 사** : 국내 : (주)드림익스퍼디션 (카일라스트투어)
대표 김수현 011-704-3230
<우138-170>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7 명은빌딩 202호
T : 02-322-8811 F : 02-322-4878
하나은행 771-910004-79704 (주)드림익스퍼디션
E-mail : kailas8811@gmail.com www.ksilastour.co.kr
국외 : 나지르-사비르 익스퍼디션
E-mail : info@nazirsabir.com

2. 운행결과

구 분	일수	날 짜	운 행 내 용	비 고
출국 Departure	1	6. 10	광주 → 서울 → 방콕	항공기
현지준비 Preparation	2	11	→ 이슬라마바드, 행정처리 정부연락관배정 및 브리핑	
상행카라반 Up Caravan	3	12	이슬라마바드 → 칠라스	버스 지프 도보 " " " " " "
	4	13	칠라스 → 스카르두(2,300m)도착	
	5~7	14~16	포터, 쿡 고용 및 행정처리	
	8	17	스카르두 → 아스폴리(3,050m)	
	9	18	아스폴리 → 졸라(3,100m)	
	10	19	졸라 → 빠유(3,500m)	
	11	20	휴 식 일	
	12	21	빠유 → 우루드카스(4,100m)	
	13	22	우루드카스 → 고로 II (4,500m)	
	14	23	고로 II → 샤그린	
	15	24	샤그린 → B.C 도착(5,200m)	
베이스캠프 Base Camp	16~17	25~26	B.C 설치완료, 고소적응 및 짐정리	
등반 Climbing	18	27	운행시작	
	24	7. 3	캠프1 설치(5,900m) 완료	
	26	5	G II 캠프2 설치(6,500m) 완료	
	32	11	G II 캠프3 설치(6,900m) 완료	
	34	13	G II 1차정상공격(김미곤,이광복,김영미)	
	38	17	G I 캠프2 설치(6,500m) 완료	
	40	19	G I 캠프3 설치(6,500m) 완료	
	48	27	G I 1차 정상공격(김미곤,밍마셀파) G II 캠프4 설치(7,350m) 완료 G II 2차 정상공격 (이형모,김영미,김가영,팜바셀파)	
철수 Withdrawal	49	28	공격대원 BC하산, 고소캠프 철수	
하행카라반 Down Caravan	50	29	BC(오후3시 출발) → 콩고르디아	도보 " " " 지프 버스
	51	30	콩고르디아 → 호불세	
	52	31	호불세 → 졸라	
	53	8. 1	졸라 → 아스폴리 (장비 데포)	
	54	2	아스폴리 → 스카르두	
	55	3	스카르두 → 이슬라마바드	
	56	4	행정처리	
귀국 Arrival	57	5	이슬라마바드 → 방콕 도착	항공기
	60	8	방콕 - 서울 - 광주	항공기

3. 원정대원

구 분	사 진	주 요 경 력
단 장 김재률 011-612-2429		▶ 1966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1980~ 전남대학교 산악회 지도교수 ▶ 1996년 킬리만자로 등정 ▶ 1997년 에베레스트 등반 ▶ 1997~1998 광주학생산악연맹회장 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부 단 장 이정옥 011-643-1528		▶ 1969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1971년 전남대학교 산악회장 ▶ 1989년 89-90동계에베레스트 등반 ▶ 1996년 킬리만자로 등정 ▶ 1997년 한국 초오유원정 원정대장 ▶ 2003~2004 광주학생산악연맹 회장 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장 ▶ 까치화원 대표
원정대장 김영필 011-702-5724		▶ 1988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1995년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제1기 졸업 ▶ 2004년 일본 북알프스 등반 ▶ 2006년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부대장 ▶ 2006년 전남대학교 용봉인 명예대상 수상 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총동창회 산악회 산악대장 ▶ 광주시 산악연맹 상임이사 (청소년) ▶ 조경회사 “(주)그린월드” 대표이사
등반대장 김미곤 011-643-7315		▶ 1994년 광주 서강정보대 산악부 입회 ▶ 1998년 알프스 아이거, 마터호른 북벽 등정, 마나슬루 등반 ▶ 1999년 로체 남벽 등반 ▶ 2000년 마나슬루등반 · 초오유 등정 ▶ 2001년 마칼루 등정 ▶ 2002년 시샤판마 남벽 등반 ▶ 2004년 로체 남벽 등반 ▶ 2005년 낭가파르바트 루팔벽 등반 ▶ 2006년 가셔브롬 II 봉 등정 ▶ 200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로체 동시 등정 현재 ▶ 한국도로공사 산악팀 ▶ 광주, 전남 등산학교 교수 ▶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근무

구 분	사 진	주 요 경 력
장 비 이광복 018-642-8150		▶ 1986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1986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1986년 이후 설악산,한라산 동계,하계 장기등반 15회 이상 ▶ 2005년 광주 학생산악연맹 사무국장 역임 ▶ 2005년 광주 학생산악연맹 이사 역임 현재 ▶ 전남대 OB산악회 ▶ 광주,전남 등산학교 교수
촬 영 이형모 016-9272-1708		▶ 2004 청소년 오지탐사대 ▶ 2005 슈에바오딩 등정, 칸텡그리 등정 ▶ 2006 에베레스트 북동릉 등정, 마나슬루 등반 ▶ 2007 베링해 횡단등반,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 ▶ 2008 중국 사천성 회조피크 세계초등 현재 ▶ 관동대학교 산악부 OB ▶ 세계탐험협회 대원
포장 수송 강기석 010-8618-8125		▶ 2003 로체 등정 ▶ 2004 알래스카 맥킨리 등정, 자진자보,스꾸냥 등반, 백두대간 종주 ▶ 2005 위트니, 조슈아트리 등반, 유럽 알프스 등반 ▶ 2006 로체 남벽 등반 현재 ▶ 안동대학교 산악부 OB ▶ 포리스트시스템(주) 재직중
행정,기록 김영미 010-2706-2919		▶ 2003 가셔브롬 II 브로드피크 등반 ▶ 2004 동계 북알프스 종주등반, K2청소등반, 빈슨매시프 등정 ▶ 2005 매킨리 등정, 엘브르즈 등정 ▶ 2006 아콩카구아 등정, 에베레스트 북동릉등반, 칼스텐츠 등정 ▶ 2007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 킬리만자로 등정 ▶ 2008 에베레스트 남동릉 등정 (한국 여성 2번째 7대륙 최고봉 완등) 현재 ▶ 강릉대학교 산악부 OB
포장,수송 김가영 019-684-1111		▶ 2002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2002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2002년 이후 설악산,한라산 동계,하계 장기등반 8회 ▶ 2006년 전남대 에베레스트(초모랑마) 원정 등반 현재 ▶ 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

구 분	사 진	주 요 경 력
행정,회계 손용주 010-2969-5237		▶ 2002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2002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2002년 이후 설악산,한라산 동계,하계 장기등반 8회 ▶ 2005년 광주 학생산악연맹 학생장 역임 현재 ▶ 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세라믹재료전공 재학
전기,통신 임성근 010-2005-9700		▶ 2003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2003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2003년 이후 설악산,한라산 동계,하계 장기등반 6회 현재 ▶ 광주시 학생산악연맹 학생장 ▶ 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재학
식 량 문석민 016-9667-3005		▶ 2005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2005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2005년 이후 동계,하계 장기등반 4회 ▶ 2006년 전남대학교 에베레스트(초모람마) 원정대 훈련대원 현재 ▶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장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재학
의 료 곽새미 010-3855-7098		▶ 2007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2007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2007년 하계, 동계 장기등반 현재 ▶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재학

현지 스텝

 쿡 (74년생) Sana Sherpa (상게)	 셀파 (73년생) Pemba Chhoti Sherpa (펌바)	 셀파 (84년생) Mingma Tenji Sherpa (밍마)
 정부연락관 (대위) Anwar Akram (안와르)	 키친보이 Aman Ali (아만)	 키친보이 Tooha (도하)

4. 가셔브룽 개요

1) 위 치

타히말라야산맥 중 파키스탄 카라코람산맥 발토르 빙하(氷河) 상류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

2) 높 이

가셔브룽 I 봉 (8,068m)

가셔브룽 II 봉 (8,035m)

3) 산의 형태

가셔브룽 I

- ▶ 가셔브룽 I 봉은 히트피크라고 불리운다. 1861과 1887년에 고드윈 오스틴 소령과 영 허즈밴드 소령에 의해 처음으로 가셔브룽 I봉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으며, 1889년부터 1929년 사이의 히말라야 카라코람 개척사의 초기에 영국, 이탈리아인들이 측정하고 M. 콘웨이가 가셔브룽 II 봉과 구별하기 위해 히트피크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K5라는 측량명도 가지고 있다.
- ▶ 1934년 스위스의 디렌푸르트의 지휘 아래 국제원정대가 대규모의 탐사를 감행했는데 H. 에르틀과 A. 로흐가 남서쪽에 있는 스퍼를 올라 6300미터 지점까지 도달했고, 1936년에는 H. 드 세고뉴의 프랑스 원정대가 수송문제와 포터의 파업으로 남쪽의 스퍼를 통해 6900미터까지 도달했으며, 초등정은 1958년 미국원정대의 P. 세닝과 A. 카우프만이 7월 4일 강추위와 심설을 헤치고 정상에 도달했다.
- ▶ 히트피크는 알파인스타일로 등정된 최초의 8000미터봉이다. 1975년 베이스 캠프까지 불과 12명의 포터만 동원한 2인조 원정대 라인홀트 메스너와 하벨러는 8월 10일 북벽을 경유하여 등정했는데 처음으로 산소를 쓰지 않고 이루어진 알파인 스타일방식이다.
- ▶ 지금은 대여섯 개 이상의 독립된 루트와 대여섯 개의 변형루트가 있다.
-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충남산악연맹의 박혁상 대원이 등정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가셔브룽 II

- ▶ K4의 측량부호가 붙여진 가셔브룽 II 봉은 가장 쉬운 8000미터 봉으로 꼽힌다.
- ▶ 1909년 아부루찌가 이끄는 원정대와 이때 참가한 이탈리아의 사진사 V. 셀라가 북쪽과 초고리사 방면에서 가셔브룽 산군을 정찰했으며, 1934년 스위스의 G.O. 디렌푸르트의 지휘 아래 국제원정대가 정상으로의 등반이 가능한 루트를 살피면서 6,250미터까지 올랐으며, 후에 1956년에 1934년의 정찰을 토대로 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라벡의 지휘 아래 남서릉을 경유하여 초등정에 성공했다.
- ▶ 5개의 독립된 루트가 있는데 모두 가셔부룽 계곡에서 출발한다.
- ▶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여름에 성균관 대학교 산악회에 의해 초등되었다

4) 자연환경

- ▶ 카라코람 산맥은 펀잡 히말라야 북쪽으로 인더스강 상류에서 시작하여 힌두쿠시까지 이어지는 장장 200마일의 길이로 동서로 이어진 대산맥이다.
- ▶ 이러한 카라코람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보다 위도가 북쪽으로 5도 가량 올라가 있어 인도양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며 카라코람의 뜻인 “검은 암석의 토지”라는 내용 그대로 방목과 목축을 할 수 있는 목초지대가 별로 없어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대이다.
- ▶ 이 카라코람 중앙부에 위치한 발토르 빙하를 북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7,000미터 급 산들이 약 20여 개가 병풍처럼 이어져 있으며, 그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콩고르디아에는 8,000미터 급의 자이언트 봉 4개가 집결되어 모여 있다
- ▶ 이 지역의 몬순은 대개 6월초부터 7월초까지 약 한달간 계속되며 이 기간중에는 대체로 약 일주일가량 겨우 햇빛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악천후가 계속되며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나 매년 그 정도가 다르다.

5) G I, G II로의 접근

- ▶ 발토르 무즈타그 산군으로 들어가려면 그 시발점인 스카르두라는 소도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길기트에서 스카르두까지는 241km의 험한 산길을 지프차로 8시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며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부터는 약 800km의 거리를 약 24시간 정도 달려야 한다.
- ▶ 스카르두는 발티스탄의 수도로서 언어도 파키스탄의 국어인 “우르두”어를 사용하지 않고 “발티”어를 사용한다.
- ▶ 스카르두에서 발티스탄 다섯계곡이라 불리는 계곡이 사방으로 전개되는데 이 계곡 중 시가르 계곡을 따라 85km의 험한 길을 지프차로 7시간 정도 달리면 카라반 출발지점인 아스폴리라는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 ▶ 이곳 아스폴리에서 로칼 포터를 구해 다음날 새벽 출발하여 7일간의(휴식일 하루포함)긴 캐러반 끝에 G I, G II봉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하게 된다.
- ▶ 카라반 기간 중 6일째 유명한 콩고르디아에 도착하게 되면 K2를 볼 수 있다.

5. 카라반 및 등반루트



인천공항-방콕-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반과정 (스카르두~BC)

등반루트



제3장 운행기록

(기록 : 임성근)

원정 1일째 : 6월10일(화) 맑음
광주-인천공항-방콕



평생교육원 앞에서 배웅 나온 선배님들과 파이팅!

아침 7시, 전 대원들 원정대 사무실에 집합 완료. 개인 짐과 공동장비가 든 25kg의 카고백들을 차에 싣고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앞으로 이동하였다. 김재를 단장님과 이정옥 전남대OB산악회 회장님 등 많은 선배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남대학교 버스에 올랐다. 이제 드디어 장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년여의 준비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많은 분들의 노고와 도움을 안고 출발한다.

버스에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위해 김재를 단장님, 이정옥 OB회장(부단장)님, 백두인 OB운영위원장님, 김용욱 OB총무님 등이 동승하였다.



인천공항까지 배웅 나온 선배님들과

인천공항에서 이형모, 강기석 형과 김영미 누나가 합류하였고, 버그하우스와 노스페이스 팀의 김한구 형도 배웅을 위해 나오셨고 우리 원정대의 국내 대행사를 맡은 카일라스투어의 전종열 팀장님이 오셔서 출국수속을 도와주셨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버그하우스, 노스페이스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연맹(코오롱팀)의 김재수 대장님과 고미영 씨도 우리와 같은 편으로 출국하게 되어 동행하게 되었다.

서울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 광호 서울지회 회장님과 김용석, 한규성, 유명희 선배님께서 공항까지 오셔서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다.



버그하우스의 박혜미, 허지은씨와 김미곤 등반대장

환승객들을 뒤로 하고 오후 5시35분 대한항공편으로 방콕을 향해 출발하였다.

방콕 현지시간으로 21:10에 도착해서 약 4시간 정도 공항 내에서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다.

원정 2일째 : 6월11일(수) 맑음

방콕-이슬라마바드

우리를 태운 비행기가 방콕시간 01:10에 출발하여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시간으로 05:00이다. 원래 한국과 4시간의 시차가 있으나 썸머타임을 실시하여 3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시간 오전10시면 파키스탄은 아침 7시가 되는 셈이다.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하여 차에 짐을 싣는 중

이슬라마바드 공항에는 현지 대행사인 나지르 사비르 익스페디션(Nazir Sabir Expedition) 직원인 술탄 칸(Sultan Khan)이 미니버스를 대절하고 마중 나와 있었고, 화물 등의 통관에 편리를 봐 주었다.

이슬라마드 외곽의 구도심인 라왈핀디의 리젠트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오전 10시에 호텔에서 대행사직원, 정부연락관, 가이드와 첫 만남을 갖고, 추후 일정과 행정처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오늘 하루에 최대한 행정업무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하였다.



대행사직원과 가이드 미팅

정부연락관은 대위로 남부 최대도시 카라치에서 근무하는 안와르 아크람(Anwar Akram)이라는 27세의 청년 장교인데, 한국인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가이드인 와지르 예자스 알리(Wazir Ejaz Ali)는 시가르 출신으로 우직해 보였다. 첫 만남을 기념하여 술탄과 안와르, 예자스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주며 가벼운 얘기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대장님과 가영이 누나, 용주 형은 대행사직원, 정부연락관과 함께 헬기에치금을 납부하고 알파인클럽에 들러 브리핑을 하였다. 브리핑은 대행사 직원이 알아서 도와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등반 중에 등산규정을 잘 준수하고 환경오염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설명 받는 시간이었다.

현지대행사에게 지급해야할 경비와 정부연락관 장비비 및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처리는 모두 완료하였다.

다른 대원들은 필요한 식량, 장비 등을 알아보고 짐정리를 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원정 3일째 : 6월12일(목) 맑음

이슬라마바드 - 칠라스

새벽 6시에 미니버스에 짐을 싣고 라왈핀디를 출발하여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 아보타바드, 베삼에 이르러 인더스강을 따라 험한 길을 달린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건설한 도로로서 세계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도로이며 노면은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양호하나 차량 2대가 겨우 비켜갈 정도의 넓이이며 인더스강변의 험난한 암반을 뚫고 만들어 쳐다보기 아찔하다.



카라코람하이웨이 완공 기념탑

베삼에서 점심을 먹고 과일과 음료수를 구입하여 버스에 올랐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칠라스의 파라마운트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원정 4일째 : 6월13일(금) 맑음

칠라스 - 스카르두



낭가파르밋을 배경으로

칠라스를 떠나 길기트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KKH를 빠져나와 스카르두 방면으로 가다보면 우측 뒤로 낭가파르밋이 보인다. 기념촬영을 하고 계속 가다보면 파키스탄의 북부변경지역임을 실감하도록 많은 군부대를 지나게 된다. 스카르두의 콩고르디아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원정 5일째 : 6월14일(토) 맑음

스카르두 체류



업무회의

인더스 강변의 스카르두에서 형모 형의 새천년 건강 체조를 따라하며 아침을 맞는다. 스카르두에서 처리해야할 일들을 의논하기 위하여 호텔 후원에서 회의를 하고 업무별 일들을 시작한다. 스카르두 시장에 나가 식량담당은 각종 주식, 부식, 야채류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장비담당인 광복이형은 구입해야할 장비를 점검하고 정부연락관 장비구입을

도와주었다.

원정 6일째 : 6월15일(일) 맑음
스카르두 체류



시장보기

오전에 본격적인 물품구입을 마치고
오후에는 현지 대행사에서 임대하기로 한
텐트류와 주방장비도 예정대로 임대하였다.
원래 내일 아스폴리로 떠나려고 했으나
현지 대행사의 실수로 입산허가사항에
착오가 생겨 모두 출발하기로 하였다.
김장도 내일로 연기하였다.

원정 7일째 : 6월16일(월) 맑음
스카르두 체류



김치담그기

국 상계를 중심으로 셸파들과 대원들이
함심하여 김장을 마무리하고 내일 출발할
짐정리를 모두 마치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

원정 8일째 : 6월17일(화) 맑음
스카르두 - 아스폴리



짚차의 행렬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짚차에 짐을 싣고
드디어 아스폴리를 향해 출발하였다. 오전
내내 흙먼지를 마시며 요동치는 차량 속에
앉아 있으려니 엉덩이가 쭈신다. 가이드
에자스의 고향인 시가르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험난하기 그지없다.



도로붕괴

중간에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어 로컬
포터를 고용하여 짐을 나르고, 다시
건너편에서 짚차를 타고 천길 벼랑길을
달려 마침내 아스폴리에 도착하였다.
밀밭과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순박하며 해맑은 어린이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원정 9일째 : 6월18일(수) 맑음

아스폴리 - 졸라



짐배분

새벽부터 우리 짐을 운반하기 위해 모여든 포터들로 야영장이 소란스럽다. 현지 경찰까지 나와서 질서유지에 여념이 없고 가이드의 도움으로 사다와 포터 120명을 고용을 하여 일주일간의 긴 도보카라반을 시작하였다.

비아포 브릿지를 지나 사막 같은 분지를 지나니 오아시스인 고로훈이 나와 대원들과 포터들 그리고 말과 당나귀, 노새 등이 쉬어갔다. 절벽에 한사람 겨우 지나갈만한 산길을 따라 가다가 졸라 브릿지를 통과하여 졸라 캠프지에 도착하였다. 예전에 있었던 두레박 브릿지는 흔적만 남아있고 없어져 두 시간이 넘는 길을 돌아서 걸어가야 한다.



졸라브릿지

원정 10일째 : 6월19일(목) 맑음 졸라 - 빠유



빠유 가는길

거친 물살의 인더스강변을 따라가는 길을 작렬하는 태양을 피할 곳이 별로 없어 대원들이 지쳐간다.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중간 캠프지인 바르두말을 지나 기나긴 황무지를 걸어가니 마침내 산중 오아시스인 빠유에 도착하였다.

원정 11일째 : 6월20일(목) 맑음 빠유 휴식일



빠유 전경



새천년 건강체조

새천년건강체조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였다. 대원들이 이제 제법 체조에 익숙해졌다.

포터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지급하고 일부 포터는 해고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돌려보냈다. 통상 여기에서 포터들을 위한 고기가 제공되지만 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임금 책정문제로 사다들과 다소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가이드의 협조로 잘 타결되었다.

빠유에는 시원한 나무그늘, 식수대, 화장실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모처럼 샤워를 할 수 있었다.

경남연맹의 손병호 대원이 고소 적응차 하산하여 우리 텐트 옆에 막영 하였는데 초빙하여 함께 저녁을 먹었다.



경남연맹 K2원정대의 손병호 대원

빠유 - 우르두까스



트랑고 산군

빠유에서 우르두까스는 도보 카라반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구간으로 빙하가 시작되어 길이 오르락내리락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중간 캠프지인 호불세를 지나면 더욱 거친 언덕을 여럿 지나야 한다.

우르두까스의 캠프지는 마셔브룸 끝자락의 오른쪽 경사지에 약간의 풀밭과 함께 계단식으로 위치한다. 1999년, 2001년 브로드피크와 K2에서 숨진 고 허성관, 박영도 약주의 추모동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는 술 한 잔 따르고 명복을 빌었다.



추모제

원정 12일째 : 6월21일(토) 맑음

In loving memory of our dear friend
 박영도(K2)
 1971.7.19-2001.7.22
 허성관(Broad Peak)
 1973.4.9-1999.7.29

그대 더 높은 눈으로,
 더 높은 산을
 산 위에서 바라보기 위해 함께 왔던 악우 박영도, 허성관
 여기 히말라야의 하늘에 맑은 영혼으로 남다.

박영석 그랜드슬램원정대

추모동판에 새겨진 문구

원정 13일째 : 6월22일(일) 맑음 우르두가스 - 고로2



포터 치료

어제 걸어왔던 길과는 달리 부드러운 능선을 오르락내리락 몇 번 하니 고로1을 지나 이른 오후에 고로2에 도착하였다. 포터들을 위하여 무자격자가 불법의료행위를 시행하였는데 타박상, 고산병, 설맹 증상 등 수십 명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원정 14일째 : 6월23일(월) 맑음 고로2 - 샤그린



K2를 배경으로

통상 트레킹팀들은 하루에 고로2에서 콩고르디아까지 운행하지만 원정팀들은 다음날 운행을 위해서 샤그린까지 간다고 한다. 우리도 늦은 오후에 샤그린에 막영하였다. 이렇게 하면 포터들이 BC에서 잠자지 않고 바로 하산이 가능하다.

원정 15일째 : 6월24일(화) 맑음 샤그린 - BC



포터 임금지급

약간의 고소 두통증세가 있는 대장님은 샤그린과 BC 사이에서 혼자 하룻밤 더 잡고 다음날 올라오기로 하고 다른 대원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오전에 도착하여 포터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돌려보내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BC설치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식당텐트와 본부텐트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잠잘 텐트와 화장실텐트를 설치하였다.

원정 16일째 : 6월25일(수) 맑음
BC 정비



BC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교기

대장님이 예정대로 오전에 BC에 도착하였고 식량과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텐트 등을 설치하였다. 외국 원정대의 등반 상황에 대한 정보도 현지 스텝들을 활용하여 체크하였다.

총 5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정승권 등산학교팀이 우리보다 약 일주일 정도 먼저 BC에 입성하여 C1까지 진출해 있었다.

원정 17일째 : 6월26일(목) 맑음
운행 : BC 정비

어제 못 다한 BC정비에 들어갔다. 무전기 안테나와 증폭기를 설치하고 본부텐트와 식당텐트에 등 작업을 했다. 다른 대원들은 식량텐트의 식량을 분류했다. 점심을 먹고 개인 장비들을 점검했다. 베이스가 정리가 되니 이제 진짜 등반 시작이다.

원정 18일째 : 6월27일(금) 눈
운행 : 대원 BC-5,400m-BC 고소적응 : 쉼과 BC-C1-BC 짐수송

첫 운행을 나갔다. 김미곤 등반대장님을 중심으로 대원들 모두 아이스폴 1/5정도 정찰을 하고 돌아오니 2시간여가 흘렀다. 꾸물꾸물하던 날씨가 오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한다. 내일 운행이 걱정이다.

원정 19일째 : 6월 28일(토) 눈
운행 : 대원 BC-5,800m-BC 고소적응 : 쉼과 BC-C1-BC 짐수송

C1으로 운행을 나갔다. 대원들 모두 약간의 고소증세가 있는 것 같다. 쉼과들은 C1으로 짐을 수송했다. 어제 운행 때는 보이지 않던 G2를 처음으로 보았다. 정상 부근 선명한 피라미드. 가슴이 설렌다. C1 한 시간 거리를 남겨두고 BC로 철수하기로 했다. 철수 하면서 김미곤 대장님이 G2 등반 루트를 알려주었다. 내려가는 도중 용주형이 빙하계곡에 빠졌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빙하를 뛰어 건너는 모습

원정 20일째 : 6월 29일(일) 눈
운행 : BC

진눈깨비 눈이 내린다. 솔라판 충전이 안 될까 싶어 쌓인 눈을 털고 테스터기로 찍어봤더니 조금씩 충전이 된다. 햇빛이 없어도 빛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 지나보다. 우리 국인 상계가 염소의 간과 내장을 삶아왔다.

좋은 안주거리에 대원들 모두 진도 홍주 신활력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이종호 선생님이 지원해준 진도홍주를 마셨다. 감사함을 느끼며 맛있게 먹었다.



결 의

원정 21일째 : 6월 30일(월) 눈

운행 : BC

운행이 없는 날이다. 맘이 편하다. 형들은 어제 포카를 늦게까지 쳐서 피곤해 보인다. 빨리 돈을 잃은 나는 좀더 잘 수 있었다. 포카 열풍은 한동안 계속 될 것 같다.. 날씨가 추워진다.



고소 적응 중

원정22일째 : 7월 1일(화) 눈

운행 : 셀파 BC-C1-BC 짐수송

BC텐트 주변으로 얼음을 깎고 돌을 날라서 작은 공터를 만들었다. 앞으로 여기서 새천년 건강 체조를 할 계획이란다. 점심을 먹고 BC주변에서 가져온 공동 깃발과 개인 깃발을 촬영했다.



다양한 깃발들 촬영

촬영이 끝난 후 대원들 모두 모여 내일 운행에 대해 회의 했다. 이제 침낭이랑 개인 짐을 날라서 C1에서 자고 온다. 부담을 느낀다.

원정23일째 : 7월 2일(수) 맑음

운행 : BC

새벽에 눈이 와서 운행이 취소되었다. 약간 허탈감이 든다. 그동안 밀린 빨래를 하고 텐트에 들어가 폭 쉬었다. 내일 운행이 기대가 된다.

원정24일째 : 7월 3일(목) 맑음

운행 : 전 대원 C1진출, C1구축



C1 가는길

C1으로 대원 모두가 운행을 나갔다. 모두들 긴장한 모습들이다. 크레바스의 위험 때문에 안자일렌을 하고 운행했다. 먼동이 트고 해가 뜨면서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경험 없는 대원들은 더 힘들어한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 아이스폴을 지나고 설원 지대에 도착해서 한 시간여를 가니 멀리서 C1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다. C1에 도착하니 머리가 아프다. 영미 누나의 능숙한 텐트 생활 솜씨 덕에 많은 걸 배운다. 내일은 C2다.



C1 구축 완료

원정 25일째 : 7월 4일(금) 맑음

운행 : C1-바나나릿지-C1-BC

머리가 아프다. 멀리서는 작게 보이던 산이 가까워서 보니 엄청난 크기로 다가온다. C1에서 나와 C2 올라가는 길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바나나릿지 부근에서 눈사태다. 바나나릿지에는 기석형과 용주형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눈들이 그 옆을 쓸러 내려간다.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행스럽다. 바나나릿지를 넘어서니 오전이 다 지나갔다.



C2를 향하여 바나나릿지를 오르는 대원들

태양 때문에 날씨는 덥고 눈이 부셨다.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려서인지 머리는 더 아프기 시작했다. 석민이와 안부 근처에서 잠시 쉬기로 한게 한 시간 넘게 쉬어버렸다. 등반대장님과 영미 누나가 우리가 실종된 줄 알고 C2에서 급히 내려왔다. 당장 C1으로 하산하라고 명령하신다. 많이 걱정하신 듯 하다. 죄송스럽다. 결국 C1에서 기석형 석민이랑 BC로 하산했다. 다른 대원들은 C2를 찍고 C1으로 하산하여 내일 C3로 올라간다.

원정 26일째 : 7월 5일(토) 맑음

운행 : C2 구축

본부텐트에 앉아서 무전기로 다른 대원들의 소식을 들으니 모두들 C3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C3로 오르는 대원들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책망하며 하루를 보냈다.

C3를 올라갔던 대원들은 C2로 내려왔다. 형들 볼 면목이 없다.

원정 27일째 : 7월 6일(일) 흐림

운행 : BC

모두들 BC로 무사히 내려왔다. 모두들 고생한 얼굴들이다. 내일 운행인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원정28일째 : 7월7일(월) 흐린 후 비

운행 : BC-C1-바나나릿지 초입-C1

기석형, 형모형이랑 석민이랑 4명에서 C1으로 출발했다. C1에 도착하여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C2로 출발했다. 바나나릿지 초입부근에 도착하자 오던 눈발이 굵어진다. 기석형과 형모형의 약간의 의견차이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BC에서 C1으로 내려가라는 무전이 왔다. 그래서 C1으로 내려왔다.

원정 29일째 : 7월 8일(화) 흐림

운행 : C1-C2

기석형이 30분정도 먼저 출발하고 형모형이랑 석민이랑 3명에서 텐트 뒷정리를 하고 C2로 출발했다. 고된 오름길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바나나릿지를 넘을 수 있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저번같이 사고치기는 싫었다. 결국 형들이 20분 거리라고 했지만 한 시간이 걸려서야 C2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먼저 도착해서 나를 반겨주는 형들이 너무 고마웠다.



C2를 향한 가파른 오름길

원정 30일째 : 7월 9일(수) 흐림

운행 : C2-C3-BC

C2에서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많이 아프다. C3로 출발하기 전 형모 형은 몸이 좋지 않아서 내려가고 기석형과 같이 C3로 출발했다. C3까지는 계속 경사진 오르막길이고 달리 쉴 곳도 없어서 천천히 계속 올랐다. 올라가면서 점점 고도감 있어지는 주변 경

치에 높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C3에 겨우겨우 올라가니 기석형이 반겨준다. 내가 힘들어하자 C3에서 다른 팀 텐트에 20분정도를 누워있었다. 아직 C3에는 우리 텐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C3에서 서로 사진 한 장씩을 찍고 기석형과 BC까지 내려왔다. BC에 도착하니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버렸다. 머리도 아프지 않고 편안함에 맘을 놓고 푹 잤다.



C2에서 휴식중인 임성근 대원

원정 31일째 : 7월 10일(목) 흐림

운행 : BC-C2

BC에서 나는 쉬고 다른 조가 운행을 나갔다.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 가영이 누나, 용주형 이렇게 다섯 명에서 정상을 목표로 운행을 나갔다. 오늘은 C2까지 오를 계획이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C2에서 영미누나로부터 가영이 누나가 구토증세를 보였다고 무전이 왔다. 걱정이이다.

원정 32일째 : 7월 11일(금) 맑음

운행 : C2-C3

C2로 올라갔던 대원들은 C3로 운행을 나갔고 나는 BC에서 내일 운행을 준비했다. 운행 조는 무사히 다들 C3에 도착했다. 모두 몸 상태는 괜찮은지 걱정이다. K2 BC에서 김재수 대장님과 고미영씨가 우리 BC로 놀러오셨다. 산지에서 이름만 듣던 분들을 처음으로 보니 반갑고 신기했다. K2를 써미트

하면 가서브룸으로 올 계획이라고 했다. 저녁을 먹고 개인짐을 다 챙기니 공허함이 밀려왔다.

원정 33일째 : 7월 12일(토) 맑음

운행 : BC-C2

석민이가 아침에 몸이 안 좋아 운행을 하지 못하고 기석형, 형모형과 함께 운행을 나섰다. C2가 목표이다. C1까지 가는 것은 자신이 있었지만 언제나 C2로 올라갈 때 바나나릿지에서 너무 많은 힘이 든다. 바나나릿지 중간 부근에서 물을 마시려다 정상 공격 때 사용할 장비주머니를 떨어뜨렸다. 우모장갑과 모양말과 인너장갑이 들어있었는데.. 결국 어두워져서야 C2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운행조는 C3에서 가영이 누나, 용주형은 C1으로 내려오고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는 오늘 저녁 정상 공격을 위해 대기했다.



C2에서 내려오는 대원들

원정 34일째 : 7월 13일(일) 맑음

운행 : C2-C3

새벽에 무전이 들렸다.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가 정상공격을 하고 있었다. "광복이형, 저는 G2에 다녀왔기 때문에 형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미도 가게 되면 밍마랑 가게 될 텐데 아마 영미도 가지 않을 겁니다." 원가 상황이 급박함을 느낀다. C4 넘어

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기석형, 형모형이랑 C3에 도착하니 영미누나가 있었다. 다들 정상을 뒤로 하고 내려오셨다. 영미누나는 고소적응 하려고 C3에서 대기하고 등반대장님과 광복이형은 BC로 내려가셨다. 영미 누나는 어제 정상 공격의 여파인지 무척 피곤해 보였다. C3에 올라오니 머리가 더 아프고 힘이 없다. 저녁때가 되자 형들이 정상 공격을 두고 회의를 한다. 결국 10시에 날씨를 보고 결정하자고 결론이 났다. 바람이 불고 눈이 왔다. 결국 정상 공격을 하지 못했다.

정상공격...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C3로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힘에 부치는데....

원정 35일째 : 7월 14일(월) 눈

운행 : C3-BC

우리 조는 결국 C3에서 BC로 내려왔다. C2를 내려가는데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강기를 만지다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미 누나에게 하강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하니 자기 하강기를 선뜻 내어 주었다. 고마웠다. 기석형과 안자일렌을 하고 C1에서부터 BC까지 내려왔다. 기석형을 따라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BC에 도착하자 다리가 풀려버렸다. 진이 다 빠져 버렸다.

원정 36일째 : 7월 15일(화) 맑음

운행 : BC

피곤해서 인지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자버렸다. 하루 종일 잤어도 저녁이 되니 다시 잠이 온다. 피곤하긴 피곤하나 부다.

원정37일째 : 7월16일(수) 차차 흐림

운행 : BC-C1

G1을 목표로 운행을 나갔다. 등반대장님, 용주형, 석민이랑 4명에서 운행을 나갔다. 하루밖에 쉬지 못해서 몸이 무겁다. 보통 때보다 몸이 일찍 지치기 시작한다. 숨이 턱에 차서 머리가 아프다. 크레바스가 발달해서 아이스폴 지대를 지나 설원지대에 길이 처음보다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 C1에 끝자락에서 정승권 선배님이 고맙게도 텐트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따뜻하고 맛있게 수 없었다. 너무나 감사했다. 몸이 안 좋아 G1-C2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C1에서 정승권 팀과 함께

원정 38일째 : 7월 17일(목) 맑음

운행 : C1-C2(G1)-C1

등반대장님과 석민이가 공격조를 하고 용주형과 나는 G1-C2까지 산소와 텐트를 날라주는 써포터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다. 등에서 식은땀도 나고 속도가 나지 않는다. 같이 아침에 출발 했던 석민이에게 미안하다. 결국 다른 대원 속도보다 한참을 더 걸려서야 C2에 도착할 수 있었다. C2의 전경은 판판한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텐트를 치기 딱 좋은 장소였다. 사진으로 본 제페니스 끌르와르의 엄청난 크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G1의 C1에서

오후 4시에 C1으로 용주형과 하산을 시작 했다. C1에서는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느 정도 고도에 적응하는 것 같다. G1등반은 성공해야 한다. 기회가 오기를 맘속으로 빌었다.

원정 39일째 : 7월 18일(금) 눈

운행 : C1-BC

BC 내려오면서 길을 잃을 까봐 계우산악회, 수원대학교 선배님들이랑 안자일렌을 같이 하고 C1에서 BC로 출발했다. 아이스폴 지대를 거의 다 통과해서 크레바스 위험이 없는 지대에서 안자일렌을 풀고 용주형과 둘이서 같이 걸어 내려왔다. BC에 도착하니 광복이형 생일날이다. 계우산악회 막내인 종철이도 생일이다. 스텝들이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계우산악회로 이동해서 생일파티를 했다.



이광복 대원 생일

원정 40일째 : 7월 19일(토) 맑음

운행 : BC

등반대장님과 석민이는 C2(G1)에서 C3(G1)로 이동하기로 하고 형모형과 가영이 누나는 C3(G2)에서 대기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베이스에서 휴식하는 날이다. 등반대장님이 무전을 했다. 눈보라를 해치고 C3로 올라왔으나 빌려 쓰기로 했던 계우산악회의 텐트가 없어 우리에게 무전을 보냈다. 용주형이 계우산악회에 알아보니 대포만 시켜놨다는 것이다. 다행히 텐트를 찾아 설치하고 휴식에 들어갔다.

텐트를 못 찾았다면 비박을 할 작정이었다니. 휴~~

BC는 날씨가 좋는데 캠프는 날씨가 좋지 않다. 날씨가 좀 도와 줘야 할 텐데.



G1의 C2에서 무전중인 김미곤 등반대장

원정 41일째 : 7월 20일(일) 맑음

운행 : BC-C1

BC에 남았던 전 대원이 C1으로 운행을 나갔다. 아이스폴지대도 크레바스가 많이 발달했다.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새미와 안자일렌을 같이 하고 가는데 새미가 힘든지 많이 처진다. C1가는 길에 이번에도 정승권 선배님에게 차 한 잔 얻어먹었다. 매번 신세를 지게 된다.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번 운행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모든 걸 짜내야 한다. 등반대장님과 셀파 밍마와 함께 G1-C2에서 C1로 내려오셨다. 많이 힘드셨는지 설파 만마는 목이 다

쉬어버렸다. 등반대장님의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 나도 안타깝다.



C1 텐트 안에서 휴식

원정 42일째 : 7월 21일(월) 맑음

운행 : C1

용주 형과 새미는 등반대장님이 G1-C2 텐트와 장비를 철수하라고 하셔서 G1-C2로 올라가서 내일 복귀하기로 하고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랑은 C1에 대기하기로 하였다. 등반대장님이 내일 날씨를 보고 운행을 결정하기로 하셨다. 밥을 하고 물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C1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서 힘들지 않았다.



식사 준비 중인 대원들

원정 43일째 : 7월 22일(화) 맑음

운행 : C1

정상 부근의 날씨가 좋지 않다. G2는 간간히 정상을 보여주지만 G1은 구름에 가려

있다. 등반대장님이 G2에 흘러가는 구름이 저 정도면 정상에서는 강풍이라고 알려주신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 용주형이랑 새미가 C1으로 복귀했다. 형들은 그제서야 안심되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미누나가 바나나 릿지에서 이상하게 계속 한곳에서 깜박거리는 렌턴 불빛을 발견했다. 등반대장님과 나는 구조신호로 알고 알아보러 가기로 했다. 배낭에 물과 간식을 조금 챙기고 운행에 나섰다. 눈이 많이 와서 픽스로프도 묻혀있고 길도 나있지 않아서 많아 위험하였다. 앞에서 러셀을 하고 가시는 등반대장님이 고생하셨다. 폴란드팀에서 구조신호를 보냈는데 등반대장님이 확인해보니 바나나릿지 초입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다. 구조신호가 아니었다. 걱정이 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에게 폴란드팀의 반응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시큰둥해서 괜한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외국의 산악문화는 다 그렇게 개인주의인가?

원정 44일째 : 7월 23일(수) 맑음

운행 : C1

오늘도 날씨는 우리를 허락해주지 않는다. 오전에는 맑다가도 오후부터는 계속 눈이 오는 날씨다. BC에서 형모형이랑 가영이 누나가 C1으로 G2를 공격을 위해서 올라왔다. 하지만 날씨가 좋아질 것 같은 김새가 아니라서 등반대장님은 과감하게 전대원 BC철수를 결정하신다. 대장님과 등반대장님은 회의 끝에 하행카라반을 조금 늦추고 정상공격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하셨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의 날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행카라반은 도보로 하지 않고 헬기로 하는 방안과 항공권의 날짜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 됐다. 정부연락관인 안와르가 헬기를 섭외해 보기로 했다.

원정 45일째 : 7월 24일(목) 맑음

운행 : BC



대원들에게 루트 설명중인 등반대장

BC에 오래 있다 보니 텐트 자리가 많이 녹아서 쌓아놓은 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본부텐트의 짐들을 다 빼내고 텐트 자리를 다시 손봤다. 안와르가 헬기를 섭외했는데 8,000달러를 예상했으나 20,000달러란다. 예산이 없어서 헬기를 포기하고 항공권을 뒤로 미루는 것도 포기했다. 하행카라반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다.



대행사 직원과 하행 일정 협의

원정 46일째 : 7월 25일(금) 맑음

운행 : BC-C1



마지막 정상공격 출발, 화이팅!



대원 환송중인 원정대장

기석형, 용주형과 새미는 BC에 남아 철수준비를 하고 전 대원 C1으로 올라갔다. 마지막 기회다. 형들의 기대감에 어깨가 무겁다. C1로 올라가는 중에 힘이 들었다. 형모 형이 운행 중에 물도 더 자주 먹고 간식도 자주 먹으라고 한다. 그러고 싶는데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형들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형들의 체력이 부럽다. 내일은 C3까지 올라가야 한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리다.

원정 47일째 : 7월 26일(토) 맑음

운행 : C1-C3

날씨가 좋다. 좋은 징조인 듯 하다. C2를 철수했기 때문에 쉴 곳이 없다. C3까지 바로 가야 한다. 광복이형이 내가 C2에서 C3으로 출발할 때 짬 바나나 있지를 넘고 안

부에서 몸이 좋지 않아 C1로 철수 하셨다. 내 뒤에 따라와 주는 광복이형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올라가면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외롭고 불안하였다. 속도가 너무 느려 C3 올라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져 버렸다.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바람이 불어서 쌓인 눈들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오버글러브를 꺼도 손 시림이 없어지지 않아 우모장갑으로 바꿔 끼었다. 그나마 날아졌지만 손 시림은 가시지 않는다. 춥다. 머리로 아프고 감각이 무뎀진다. 내 뒤에는 한명도 없다. 불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오로지 발걸음을 떼는 것뿐이다. 12시간을 걸려 결국 C3에 올라섰을 때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보다 먼저 도착한 형모형, 영미누나, 가영이 누나와 펌바가 따뜻한 차를 주며 반겨주었다. 산행도 못하는 못난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니 너무 고맙웠다. 너무 지친다. 한편 등반대장님과 석민이는 G1을 공격하기 위해 C2(G1)으로 올라갔다.



정상공격을 위해 C3로 향하는 대원들

원정 48일째 : 7월 27일(일) 맑음

운행 : C3-BC

조장인 형모형이 어제 C3에 도착하니 내 상태는 정상공격하기에는 무리라고 BC로 내려가라고 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C4는 올라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늦은 아침을 먹고 BC로 하산할 준비를 했다. 텐트 밖에는 강한 바

람에 쌓였던 눈들이 흩날리고 있다. 영미누나가 기념이니 사진이라도 찍으라고 해서 G2 정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인사를 드리고 혼자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와는 다르게 내려오는 건 하강을 해서인지 너무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 허무하다. C1에 도착해서 광복이형이랑 기상이 좋지 않아서 내려온 등반대장님과 석민이랑 BC로 하산하였다. 등반대장님은 버그하우스와 계약해서 처음 가는 원정이고 해서 중요한 등반이었는데 정상을 써미트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셔서 많이 아쉬워 하셨다. G2 C3에서는 밤 10시 경에 날씨를 보고 정상을 공격한다. 마지막 희망이다. 제발 성공하기를..



정상공격 출발



정상을 향해 운행 중인 대원들

원정 49일째 : 7월 28일(월) 맑음

운행 : 고소캠프 철수

어제 밤 10시 30분에 G2에 있던 공격조가 공격을 나갔다. 모두들 본부텐트에서 성

공을 기원하며 다음 무전을 기다렸다. 새벽 2시쯤에 C4에 도착했다. BC에 있던 대장님과 대원들은 그제야 안심을 한 모습이다. 차이나릿지 쪽에서 바람이 너무 강해 등반이 어려워 C3로 복귀한다는 무전이 왔을 때는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침묵했다.



정상공격 실패 후 되돌아오는 김가영 대원

이렇게 끝이구나. 2년 동안 같이 준비한 원정인데 이렇게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하다. C3에서 휴식을 한 공격조가 BC로 귀환하기 시작한다. 형모형이 5시에 내려오시고 C1에서 영미, 가영 누나가 철수중이란다. 누나들은 밤 10시가 넘어서 BC로 복귀했다. 형모형은 정상공격 중에 크레바스에 빠져서 겨우 나오고 영미, 가영누나는 크레바스를 돌아서 오느라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모두들 지치고 고생한 모습들에 마음이 안 좋고 미안하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는 한국원정대들

원정 50일째 : 7월 29일(화) 맑음

운행 : BC-콩코르디아



BC 철수

오후 점심을 먹고 원래는 BC에서 짐정리를 하고 쉬려고 했으나 하행카라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 콩코르디아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아... 잘 있어라. 얼마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새 하산일이 됐다. 포터들의 짐 분배를 하는데 이번에는 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찰 없이 출발 할 수 있었다. 고소적응이 된 까닭인지 내려갈 땐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단지 성공을 못해서 그런지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내려가다가 샤그린에서 계우산악회 트레킹 팀을 만날 수 있었다.



샤그린에서 만난 계우산악팀

감사하게도 차를 얻어 마실 수 있었다. 잠시 담소를 나누고 아쉽게 작별인사를 마치고 내려가다 보니 K2가 보였다. K2가 보이고 부지런히 내려가다 보니 콩코르디아가

나왔다. 아직 고도가 있어서 그런지 밤은 무척 춥다.

원정 51일째 : 7월 30일(수) 맑음

운행 : 콩코르디아-호불세

용주형이랑 석민이랑 같이 호불세로 출발했다. 고도를 내리면서 다리에 힘도 붙고 머리도 상쾌하다. 침으로 뛰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 내려가면서 한국여성 2분이 K2 BC까지 트레킹 하는 팀을 만났다. 2시경에 우르두카스에 도착하여 배고픈 대원들을 위해 등반대장님이 매점에서 짜파티와 콜라를 사주셨다. 허기져 있던 상태라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 상행카라반 때 자고 갔던 캠프지 이지만 하행카라반 때 들르니 사뭇 새로운 기분이다. 저녁이 다 되서야 호불세에 도착했다. 호불세에 있는 현지인에게 산양고기를 구입하여 저녁을 불고기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호불세 캠프지 전경

원정 52일째 : 7월 31일(목) 맑음

운행 : 호불세-줄라

어제부터 엉덩이가 이상하여 광복이형에게 엉덩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자 치질이라고 하셨다. 다행이 가벼운 치질이라 2~3일 따듯하게 자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통증이 더 심하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까슬까슬한 느낌은 더 심해졌다. 계속 신경이 쓰이면서 몸

도 안 좋아지는 느낌이다. 용주형과 빠유에 도착해서 다른 한국 트레킹 팀이 있었다.



빠유에서 만난 한국인 트레커들

먹을 것을 좀 내주셔서 허겁지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어넣었다. 빠유에서 짜파티와 음료수를 먹고 영미누나, 용주형과 함께 출발하였다. 졸라 가는 길에 영미누나가 포터에게 콜라 한 병을 구입했다. 더운 날씨라 콜라도 뜨거웠으나 가는 도중에 빙하물에 담가 놓으니 10분도 안 되서 얼은 콜라처럼 시원해지는 게 너무 신기했다. 8시쯤에 졸라에 도착했다. 대장님과 등반대장님은 말을 타고 졸라까지 오시고 석민이와 새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12시가 다 되서야 두 명이 도착했다.

원정 53일째 : 8월 1일(금) 맑음

운행 : 졸라-아스폴리

도보카라반 마지막 날이다. 올라올 때 하루 일정 밖에 되지 않아 마음의 부담감이 적었다. 내일이면 카라코람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주위에 풍경을 유심히 보면서 갔다. 언제 또 와보겠는가.. 카라코람

캠ป์에 있었을 때는 다들 예민했는데 하행카라반 때는 모두 맘이 편해서 그런지 모두들 웃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 점심 때 모든 대원이 아스폴리 도착했다. 가영이 누나는 포터들이 가져온 수량을 체크하고 확인이 끝나자 기석형과 용주형은 포터들의 임금을 계산했다. 하행카라반 일정이 늦어

저서 올라오던 포터들을 취소시켰는데 그 임금을 주라는 소동에 마찰이 있었다. 아스폴리에 데포시킬 장비와 항공화물로 갈 짐들을 분리하고 키친보이였던 푸르만 집에 들러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다.



푸르만 가족과 동네사람들

아스폴리에 도착해서 한 달 만에 샤워를 하니 몸이 날아갈 것 같다.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대부분 하늘을 보며 비박을 했다. 하늘의 별들이 꿈같다.

원정 54일째

: 8월 2일(토)~3일(일) 맑음

운행 : 아스폴리-스카르두-이슬라마바드

아침을 먹고 대기하고 있던 지프차에 짐들을 옮겨 실었다. 지프차로 이동하던 중 길이 무너져서 끊겨 있었다.



붕괴된 교량

짐들을 포터들이 옮기고 반대편에 대기하고 있던 5대의 지프에 대원 모두 탑승하

였다. 끊어진 길을 옮기는 포터들과 아스폴리에서 타고 온 지프차의 임금을 지불하는 통에 많은 돈이 들었다. 푸르만을 시켜서 깎아보려고 했지만 지프차를 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는 지프차 기사들은 깎아주지 않았다. 길이 좋지 않아서 차 천장에 머리를 2번이나 박았지만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게 행복했다. 피곤한 몸에 차가 요동을 치지만 계속 잠이 왔다. 스카르두 콩코르디아 호텔에 도착하여 대행사에서 빌렸던 키친세트와 장비들을 반납하고 석민이는 시장에 나가서 차에서 먹을 식량들을 구입했다. 장비반납과 출발준비가 끝났다. 소형버스로 짐을 싣고 갈아타고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했다.



지칠 줄 모르는 레이스

중간 휴게소에 들러 짜파티와 닭요리에 밥을 먹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아찔하다. 태어난 버스기사를 보며 불안에 떠는 내가 무안해진다. 가는 도중 길이 끊겨서 3시간 정도를 기다리니 길이 뚫렸다.



카라코람하이웨이의 화물차 행렬

하루 반을 꼬박 달려 스카르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새벽 12시가 넘어 라왈핀디에 있는 호텔 리젠트(Hotel Regent)에 도착했다. 상행카라반 때 묵었던 호텔에 다시오니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이슬라마바드는 덥다.

원정56일째 : 8월 4일(월) 맑음

운행 : 이슬라마바드 체류



라왈핀디의 숙소 식당에서의 만찬

대장님과 가영이 누나와 용주형, 정부연 락관인 안와르(Anwar Akam)와 대행사 직원 술탄 칸(Sultan Khan)과 함께 등반 마무리 보고를 위해 파키스탄 등산 협회로 디브리핑을 하러 갔다.



나지르 사비르 사무실 전경

남은 대원들은 카고백의 무게를 맞추는 작업을 했다. 용주형이 호텔로 들어와 K2 사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3명의 한국대원과

셀파와 외국대원들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고 한다. 얼굴을 뵈지는 못했지만 같은 꿈을 갖고 온 산악인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웠다. 저녁에 안와르가 사주는 피자를 먹고 준비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고마웠다.

원정 57일째 : 8월 5일(화) 맑음

운행 : 이슬라마바드-방콕

아침을 먹고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하니 7시10분이다. 11시 30분 비행기라서 많은 여유시간이 있었다. 짐수속을 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흥분됐다. 방콕에 도착하니 남해관광 사장님이신 박향식(전남대OB) 선배님께서 소개해주신 (사)한태관광진흥협회 조정희 회장님께서 섭외해주신 이 병우님이 가이드를 해주셨다. 대원들 모두 태국에 있는 삼겹살 집을 갔다. 조정희 회장님께서 마중을 나와 주심에 감사했다. 오랜만에 먹는 삼겹살과 소주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으니 마냥 행복했다. 푸짐하게 저녁을 먹고 그랜드타워(GRAND TOWER) 호텔에서 여정을 풀었다. 파키스탄에 묵었던 호텔은 모텔수준이었지만 그랜드타워는 진짜 호텔이었다. 이렇게 좋은 호텔을 내 인생에 또 올 수 있을까?

원정 58일째 : 8월 6일(수) 맑음

운행 : 방콕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러닝머신을 뛰었다. 현지식당에서 점심밥을 사먹었다. 향신료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대절한 2층 버스를 타고 방콕 시내로 관광을 가고 나는 호텔로 들어 왔다. 혼자 좀 걷고 싶어서 호텔 방에서 혼자 쉬고 계시는 대장님에게 혼자 방콕 시내를 좀 구경하겠다고 말했더니 허락해 주셨다. 구경을 끝내고 돌아와 대원들 모두 방콕 시내에 있는 해물 뷔페집에 갔다. 이 식당 역시 한국 사람이 많다. 한국 사람이 많이 오긴 오나보다. 너무 맛이 있

어서 다 먹고 반을 토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원정 59일째 : 8월 7일(목) 맑음

운행 : 방콕-인천공항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점심을 먹고 태국 관광을 했다.



옛 왕궁 관람

왕궁과 새벽사원, 수상시장을 둘러보고 저녁을 먹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태국 국제 공항에서 짐수속을 하는데 무게가 오버되어 결굴 카고백 하나를 가이드가 다른 여행객에게 부탁해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출발시간이 여유시간이 있어 한 시간 정도 면세점을 둘러보고 비행기를 탔다. 드디어 몇 시간 후면 한국이다.

원정 60일째 : 8월 8일(금) 맑음

운행 : 인천공항- 광주

인천공항에 내려 짐들을 찾아서 출구로 빠져나오니 새벽 6시인데도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마중나와 주셨다. 정말 고맙다. 광주에서 오려면 새벽부터 출발해서 힘들었을 텐데..김재를 단장님, 이정옥 OB회장님, 장희 훈련대장님, 백두인 OB위원장님, 김용욱 OB총무님, 유명희 선배님, 광복이형 가족 분들과 친구 분들. 효준이, 주현이, 민의, 한올이, 아름이 너무 감사하다. 박영석 대장님도 공항에 오셔서 우리를 환

영해 주셨다.



인천공항 환영

전남대학교에서 대절해준 학교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해서 복날이라 삼계탕을 먹었다. 박상수 광주학생산악연맹 회장님도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학교에 도착하여 원정대 사무실에 짐을 풀고 대원들은 김재를 단장님에게 간단한 귀국 보고를 하

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단장님에게 귀국 보고

원정을 가기 전부터 원정기간 그리고 원정이 끝날 때 까지 주위의 도움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4장 분야별 보고

1. 행정보고 - 손용주

1) 국내 행정

(1) 국내 대행사 선정

국내 대행사를 이용하면 입산 신청 및 비자 발급, 현지 대행사 선정 및 현지 행정업무, 항공권 예매등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 원정대에서는 국내 대행사를 선정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회사명 : (주)드림익스퍼디션 카일라스투어
대 표 : 김수현 (011-704-3230)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5-7 명은빌딩 202호
전 화 : 02-322-8811, 322-4875 FAX : 02-322-4878
홈페이지 : <http://www.kailastour.co.kr>
E-mail : kailas8811@gmail.com

(2) 대행사에서 대행해 주는 업무

입산신청	등반을 하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산 신청서와 원정대장 사진, 입산료를 보내주면 대행사에서 신청해줌
항공권예약	
항공화물업체소개	
현지대행사 연결	도착 전에 미리 국내 대행사를 통해 현지 행정업무 및 카라반 일정을 상의할 수 있음
비자발급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항목을 보내주면 대행사에서 발급업무를 처리함

(3) 기타 행정 업무

① 여권

-여권이 없는 대원은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도에서 만듦.

② 환전

- 주 거래 은행인 외환은행과 공항에서 환전.

③ 출국 준비물

서류가방, 원정대 팸플렛(30부) 및 한글 원정 계획서(3부), 영문 원정 계획서(10부), 대원 여권용 사진 3매, 여권 복사본 5부, 현지인 선물(대행사, 고용인), 필기도구, 계산기, 전자사전, 서류파일, 수첩 등

2) 국외 행정

국외의 행정은 거의 모든 업무들을 현지 대행사 직원이 처리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특히 상하행 카라반시 일을 처리할 때 곁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을 항상 체크하며, 원정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대행사 연락처

Nazir Sabir Expeditions

주소 H.# 434, St 2, G-9/3, P.O. Box 1442, Islamabad, Pakistan

전화) 92-51-225-2553, 225-2580, 28-53672

홈페이지 주소 : www.nazirsabir.com

(1) 이슬라마바드 행정

우리 원정대의 경우 등반일정이 비교적 넉넉치 않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국내에서부터 현지 대행사에 연락하여 행정업무를 가능한 빨리 볼 수 있도록 주문했고, 파키스탄 도착 당일날 모든 행정업무를 마치고 정부연락관의 배려로 다음날 상행 카라반을 시작 할 수 있었다.



알파인클럽에서의 브리핑
(왼쪽부터 원정대장, 정부연락관, 대행사직원, 알파인클럽직원)

① 등반전

대행사 직원 미팅	대행사 직원과 원정일정과 행정업무 및 기타 제반 사항(위성전화기, 무전기, 의사 유무 및 텐트 및 픽스로프의 수)을 확인
정부연락관 미팅	-원정제반 사항(원정일정, 원정대원, 등반 허가, 신고장비 유무)확인 및 브리핑 준비 -장비비와 임금 등을 상의(우리 원정대의 경우 비용의 절약과 장비 준비의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직접 주지 않고 장비비로 대체했음) 정부연락관 장비비 : 1500\$ 임금:ISB, 라왈핀디는 30\$/day, 카라반 시 15\$/day(임금의 일부는 선 지급함)
헬기 예치금 및 오염세 납부	예치금 6000\$, 오염세 200\$/1peak 우리 원정대는 2봉우리를 신청하였으므로 400\$를 납부
관광성 방문	입산신청서 제출, 현지대행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함
브리핑	파키스탄 알파인 클럽 참석자 : 정부연락관, 대행사 직원, 원정대장, 행정 담당자, 김가영 대원. 입산 신청서와 허가서 확인 체크리스트 목록대로 질의응답 각종 서류 및 예치금 영수증 확인(대행사 직원이 준비) 주의 및 요구사항 시달 브리핑 체크내용 비디오 유무, 무전기 유무, 의사유무, 위성전화기 유무, 텐트, 픽스로프 수 모두 가지고 내려올 것, 사진촬영금지구역(군부대, 브릿지)
환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암거래가 공식화되어 환전소가 있음. 대행사 직원에게 문의하면 환전소에서 환전 할 수 있음. 미리 쓸 돈을 계산하여 잔돈을 미리 계산해 놓는 것이 좋음
기타 행정업무	현지 대행사가 일괄 처리함 가. 상하행 카라반(ISB-SKD구간) 차량 섭외 -22인승 봉고차 나. 고용인 보험 정부연락관, 트레킹가이드, 정부연락관 쿡, 모든 저소포터들의 보험료를 대행사에서 처리 다. 상하행 카라반시 트레킹 가이드 소개 라. 위성전화기 사용 허가 파키스탄의 위성전화기인 두라야를 제외하곤 위성전화기는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마. 항공 화물 통관 업무

② 등반후

디브리핑	브리핑 받고자 하는 날의 24시간 전에 통보 참석자: 정부연락관, 원정대장, 행정담당, 김가영 대원, 대행사 직원. 정부연락관 등반에 관한 서류 제출 등반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 각종 원정보고 서류 제출 등정 시 등정 확인서 수령
헬기에치금 회수	에치금을 수령할 때는 에치 수수료 200\$를 제외하면 받음

* 검문소에서 원정대 영문 리스트 및 여권 복사본이 필요함(정부연락관이나 대행사 직원이 처리함)

③ 스카르두 행정

고용인 계약	사 다 : 저소포터 50명당 1명의 사다를 고용 키친보이 : 대행사에서 소개시켜준 키친보이가 있었으나 따로 푸르만을 고용함 저소포터 : 가지고 있는 짐의 개수를 말해주면 정부연락관과 대행사 임회하에 저소포터를 사다가 고용함
식량 구입	정부연락관, 고소포터, 저소포터, 쿡의 식량을 정확히 인원 산출하여 구입(사다와 쿡, 키친보이에게 말하면 정확히 구입할 수 있다)
스카르두 - 아스꼴리 이동 쥘차	대행사에서 섭외하게 되어있고, 쥘차 대금은 아스꼴리에서 계산해주면 됨
장비 임대	원정대에 필요한 일부장비(예: 대형 석유버너, 화장실텐트, 의자 등)들을 미리 대행사와 협의하여 임대할 수 있다

2. 회계보고 - 손용주

1) 총 평

회계 업무는 국내에서 원정을 준비할 때부터 원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수입과 지출을 하고 쌓아다보면 양이 매우 방대해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든 현지에서든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키스탄에서 환전을 할 때는 상행 카라반 시 포터들의 임금을 나누워 줄 때와 현지 식량 장비를 구입할 때 필요하므로 잔돈(100RS, 50RS, 20RS, 10RS 특히 100RS)을 잘 계산하여 충분히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돈을 쓸 때는 호텔과 같이 가격이 정해진 곳이 아니면 대개는 외국인인 것을 감안하고 가격을 높게 부르므로 항상 흥정을 한 후 지출을 해야 하고, 현지에서 돈을 쓸 때는 현지 스템(쿡, 키친보이)를 데리고 다니며 가격을 흥정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이번 원정이 많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OB선배님, 동문 선배님, 시청 관계자분, 그리고 타고 OB선배님과 그 외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 자금 수입지출 총계

총 수입액	총 지출액
98,900,977	98,900,977

3) 항목별 수입내역

연번	항목	금액	비고
1	초모랑마 이월금	13,794,477	
2	원정대원 분담금	32,076,500	
3	OB지원금	30,850,000	
4	광주시	10,000,000	
5	전남대학교	2,000,000	
6	전남대학교 병원	2,000,000	
7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5,000,000	
8	전남대학교총동창회산악회	500,000	
9	발대식 수입	2,680,000	
계		98,900,977	

(1) 대원분담금 납부내역

김영필	5,476,500	강기석	4,000,000	임성근	1,000,000
김미곤	3,000,000	김영미	4,000,000	문석민	1,000,000
이광복	3,200,000	김가영	3,100,000	곽새미	1,000,000
이형모	4,000,000	손용주	1,000,000	훈련신청금	1,300,000
32,076,500					

기타 상세수입내역은 “5-4장 도움 주신 분 참조”

4) 항목별 지출내역

연번	항목	지출금액			비고
		국내	현지	합계	
1	훈련비	4,179,750		4,179,750	훈련식대, 교통비 등
2	발대식비	1,574,540		1,574,540	사무실운영, 식대, 장비, 교통, 소모품 등
3	행정비	24,864,800	2,493,350	27,358,150	항공료, 대행료, 화물 통관료 등
4	입산료	14,261,000		14,261,000	2개 봉우리 * 14명
5	장비비	2,324,010	850,891	3,174,901	등반, 취사 등
6	식량비	2,878,290	1,590,024	4,468,314	
7	포장수송비	5,151,280	1,469,100	6,620,380	항공화물, 재료구입 등
8	전기통신비	338,500	156,167	494,667	
9	의료비	97,800		97,800	
10	기록촬영비	2,029,840	10,610	2,040,450	촬영용 깃발, 테이프
11	인건비		27,261,173	27,261,173	카라반 포터, 셀파 외
12	체류비		3,993,753	3,993,753	도시체류 식대, 방콕
13	카라반비		210,099	210,099	야영장, 브릿지 통과
14	기타	1,166,000		1,166,000	애경사, 수고비, 선물
15	보고서	2,000,000		2,000,000	
		60,865,810	38,035,167	98,900,977	

3. 장비보고 - 이광복

(공동장비를 중심으로)

개인장비는 대원들이 각자 구입하거나 2006 전남대 초모랑마 원정대원들에게서 빌려 사용하였고 의복류는 김미곤 등반대장과 이형모, 김영미 대원의 도움으로 버그하우스와 노스페이스에서 충분한 양을 지원 받아 사용하였다.

텐트류는 김미곤 등반대장과 이형모 대원의 도움으로 에코로바, 도로공사 산악팀, 노스페이스에서 지원받거나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지면을 빌어 버그하우스, 노스페이스, 에코로바 그리고 조명나라(이도기), 쌍둥리카센타 (김현규) 등에 감사하는 마음 전한다.

1) 등반구

(1) 픽스로프

8mm*200m 2롤을 구입하였다. 위험구간에 고정로프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다른 원정대가 먼저 G I 루트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스노우바 5개와 8mm 1롤을 주었다. 나중에 G II 등반 시 먼저 등반 중이던, 다른 원정대와 고정로프 사용문제로 다소 마찰이 빚어져, 나머지 1롤도 C1으로 올렸다. 끝내 2롤 모두 사용하지 않고, 등반을 마쳤다.



(2) 스노우바

등반용과 텐트고정용으로 30개 이상이 필요하나, 경비 절약을 위해서 대나무를 구입하여, 텐트고정용으로 사용하고, 5개만 현지 장비점에서 구입하였다. 중고품이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도 좋았다.

(3) 코드슬링

7mm*60m롤을 에코로바 주월점에서 협찬 받았다. 1롤은 잘라서 안자일렌으로 사용하고, 1롤은 등반과 정상 공격후 하산 시 사용하였다. 가벼우면서 얼지 않아서 픽스로프에 비해 훨씬 안전한 것 같다.

(4) 표식기

버그하우스에서 만들어준 표식기를 상행 카라반시에는 배낭에 꽂고 운행하고, B·C와 C1사이 세락지대와 설원지대 중간 중간에 사용하였다.

(5) 표식기대

1.5m 정도의 대나무를 이슬라마바드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막영구



BC전경

(왼쪽부터 취사 및 창고텐트, 노랑색 정부연락관 텐트, 본부텐과 대원텐트)

(1) 식당 텐트

에코로바 케빈텐트 외피만 사용. 창고텐트와 타포린 천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니 아주 편리하다. 바람에 대비해 3mm로프와 돌을 이용해 고정하니, 튼튼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했다.

(2) B·C 텐트

본부용으로 에코로바 20인용 텐트를 사용, 식사 회의 휴식 등 다용도로 훌륭하게 사용하였다. 대원들은 7-8인용

마칼루텐트에서 3명씩, 케빈텐트에서 3명씩, 키친보이들과 정부연락관은 각각 노tm페이스 3-5인용텐트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였다.

(3) 캠프용 텐트

5-6인용 에코로바와 노스페이스 텐트를 사용하였다. 모두 바람에도 강하고 튼튼하였다. 특히 내부 공간이 넉넉해서 캠프에서도 편히 쉴 수 있었다.

(4) 눈삽

알루미늄 눈삽을 구입해서, 글라인더로 자르고 구멍을 몇 군데 뚫어, 가벼우면서 효율적으로 제작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손쉬워서 가능하면 제작해서 가길 권한다.

3.취사구

(1) 석유버너

김미곤 등반대장이 현지에 데포해 놓은 5ℓ와 10ℓ 석유버너를 사용하였다. 화력도 우수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다. 원정일정 후반부에 여벌로 준비해간 노즐을 교환했다.



(2) 가스버너

캠핑용으로 에코로바 주월점에서 분리형 10대를 구입했다. 화력도 좋고 부피도 작아 여러모로 좋았다.

(3) 가스

코베아에서 나온 4계절용 캠핑이소가스230 48개를 주문해 사용했다. 석유버너 예열용으로 일반부탄가스 16개 구입했다. 항공화물에서 일부 누락되어, 스카르두에서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비싸다.

공동장비1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구입		비고
				국내	현지	
등반구	픽스로프(pp)	9mm*200m	2롤	●		양동시장 구입
	스노우바	60cm	5개		●	스카르두 구입
	카라비너	0형	10개	●		대여
	하 켄		5개	●		김미곤
	스크류	20cm	3개	●		대여
	코드슬링	7mm*60m	2롤	●		에코로바 송형근스폰
	테이프슬링		20m	●		원정대
	표식기	노란색	20개	●		버그하우스 스폰 깃대 이슬라마바드
막영구	텐 트	반구형(20인용)	1동	●		김미곤
		천막형	4동	●	●	에코로바 김미곤데포
		7~8인용	4동	●		에코로바
		5~6인용	7동	●		에코로바 노스페이스
		3~4인용	2동	●		에코로바 노tm페이스
	침 낭	대원,고용인	3개		●	김미곤 현지데포
	눈 삽	알루미늄	4개	●	●	원정대제작 김미곤
	막 삽		1개		●	스카르두 구입
	메트리스	1인용	25개	●		국내 구입
		3인용	6개	●		국내 구입
	은박메트리스		10개		●	김미곤 현지데포
	대나무	60Cm	50개		●	이슬라마바드 구입
	pp로프	3mm,5mm	2,2롤	●		양동시장 구입
	자명종시계		2대	●		김영필대장
	온도계		1대	●		김영필대장
등화구 연 료	전 선		50m	●		조명나라 이도기스폰
	전 구	12V	10개	●		"
	전기콘센트	4구	4개	●		"
	전기플러그		10개	●		"
	전기스위치		10개	●		"
	전구소켓		10개	●		"
	전기테이프		10개	●		"
	케이블타이		다수	●		"
	솔라판	2set	12개	●	●	김미곤

공동장비2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구입		비고
				국내	현지	
등화구 연 료	차량용 밧데리	60A	2개	●		쌍둥이가센터 스폰
	컨트롤러		2개	●		김미곤
	인버터		2개	●		"
	EPI 가스	사계절용	48개	●		에코로바 주월점구입
	부탄가스		16개	●		마트 구입
	버너침	5 ℓ 10 ℓ	2개	●		양동시장 구입
	버너고무바킹	"	4개	●		"
	버너펌프	"	2개	●		"
	석 유		200 ℓ		●	스카르두 구입
	석유통	30 ℓ	7통		●	"
	휘발유		10 ℓ		●	"
	바람막이		5개	●		에코로바 주월점구입
	토 치		2개	●		마트 구입
	라이터		50개	●		양동시장 구입
통신구	위성전화		2대	●		원정대 김미곤
	노트북		1대	●		문석민
	무전기		6대	●		원정대 김미곤
	롱 안테나		1개		●	김미곤 현지데포
	캠코더		2대	●		김미곤
	핸드마이크		3개	●		원정대
	배터리	AA Size	600개	●		로켓전기 신욱철스폰
		AAA Size	400개	●		
	망원경		1개	●		김미곤
포장구	화학통	中	2개		●	김미곤 현지데포
	스프링 저울	30kg	2개	●		산악회 대여
	지퍼마대	大	20장	●		양동시장 구입
	방수포	롤	1롤	●		"
	카고백 자물쇠	번호키	20개	●		"
	박스테이프		50개	●		마트 구입
	텐프라박스		50개	●		인터넷 구입
	카고백		30개	●		노tm페이스, 김미곤
	에어폼	롤	1롤	●		양동시장 구입
	잡주머니		다수	●		송형근 이형모

공동장비3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구입		비고
				국내	현지	
취사구	압력밥솥	10,20인용	2,1대	●	●	이광복 김미곤
	코 펠	10-11,5-6인용	5개	●		에코로바 주월점구입
	가스버너	분리형	10대	●		에코로바 주월점구입
	석유버너	5L 10L	2대		●	김미곤 현지데포
	후라이팬	大	2개	●	●	마트구입 김미곤
	양면 조리팬	中	1개		●	현지대행사 대여
	튀김팬	大	1개		●	"
	숯불구이판		1개		●	"
	주전자		2개		●	김미곤 현지데포
	보온병	진공관	3개		●	"
	밥그릇	中	40개	●	●	양동구입 김미곤데포
	국그릇	中	40개	●	●	"
	접 시	大	15개	●	●	"
	숟가락	쇠/프라스틱	35개	●	●	"
	젓가락	쇠/나무	50개	●	●	"
	냉면그릇		20개		●	김미곤 현지데포
	칼	大,小	3개		●	스카르두구입 김미곤
	도 마		2개		●	김미곤 현지데포
	설거지통	大	2개		●	현지대여 김미곤데포
	국멸치망	大	1개		●	김미곤 현지데포
	국 자		2개		●	"
	주 격		2개		●	"
	쌀조리		1개		●	스카르두 구입
	차거리개		2개		●	김미곤 현지데포
	컵	머그	30개		●	현지대행사 대여
	가 위		2개	●		김영필대장
	캔 오프너		2개		●	이슬라마바드 구입
	뒤집개		2개		●	김미곤 현지데포
	감자칼		2개		●	"

공동장비4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구입		비고
				국내	현지	
취사구	고무장갑		4개	●		마트 구입
	위생장갑		2개	●		"
	행 주		5개	●		"
	세 제	5ℓ	2개		●	스카르두 구입
	수세미		4개	●		마트 구입
	쇠수세미		2개	●		"
	쿠킹호일		1개	●		"
	크린랩		1개	●		"
	크린백	中, 大	2개	●		"
	지퍼백	大	2개	●		"
		中	1개	●		"
	키친타올	롤	24롤	●		"
	짜빠티셋		1set		●	현지대행사 대여
수선구	공구set		1set	●		국내구입 뺀지, 니퍼, 플라이어 몽키, 드라이버(+,-) 삼각줄, 육각렌치, 평줄 쇠톱, WD-40, 쇠톱대
	철 사		다수	●		양동시장 구입
	수선테이프		10개	●		마트 구입
	천 테이프		1개	●		"
	막 끈		다수	●		"
	고무본드		2개	●		"
	순간접착제		2개	●		"
	면장갑		3타	●		양동시장 구입
	반코팅장갑		2타	●		"
오락구	MP3		1대	●		이형모
	카 드		3개	●		김영필대장
	화 투		5개	●		"
	구슬퍼즐		1개	●		김영미
	단 소		1개	●		김영필대장

공동장비5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구입		비고
				국내	현지	
기타	화장지	롤	48롤	●		마트 구입
		여행용	18개	●		"
	물티슈		18개	●		"
	세숫비누		5개		●	이슬라마바드 구입
	파우더		2개		●	"
	빨래비누		1개		●	"
	삼 푸		1개		●	"
	치 솔		5개		●	"
	치 약		7개		●	"
	타포린 천		2장		●	스카르두 구입
	면도기		10개	●		마트 구입
	거 울		2개		●	스카르두 구입
	손톱깎이		2개	●		마트 구입
	반질고리		2개	●		문구점 구입
	면 봉		2개	●		곽새미
	이쑤시개		3개	●		"
	밥상비닐		8M		●	스카르두 구입
	산소통	中	1개		●	김미곤 현지데포
	레귤레이터		2개	●		원정대
	마스크		1개	●		"
	깃 발	태극기	2개	●		"
		후원사기	다수	●		"
	A4용지		50장	●		마트 구입
	계산기		2개	●		"
	볼 펜		다수	●		"
	계획서		30부	●		원정대
	엽 서		50장		●	스카르두 구입

4. 식량 - 문석민

1) 준비과정

(1) 국내

식량 담당을 맡으라는 대장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 솔직히 다른 담당을 맡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음식과 요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할 줄 아는 요리는 라면) 개인적으로 원재 맛을 따지지 않고 잘 먹는 거식가라 열한명의 입맛을 어떻게 맞출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 작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다행히 누군가 특별히 편식하는 대원이 없어 식단표를 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김미곤 등반대장, 주우평, 박상훈, 송



형근, 김용욱 선배님 등 원정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많은 조언과 이전 원정보고서를 참조하여 조금씩 식량 계획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새삼 뿌듯하기도 하였다. 식량 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원들의 식성과 입맛을 파악한 다음 식단표를 짜는 것이 우선일 듯싶다. 식단표라는 큰 틀이 잡혀지면 틀 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쉽게 잡혀지기 마련이었다. 역시나 초짜 원정 대원답게 처음엔 식단표도 만들지도 않고서 주식, 부식, 야채 등등 이것저것 생각하려니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 하였다. 카라반용 베이식용 캠프용 간식용 비상식용으로 나누어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포장 및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섯 목록으로 나누어야 했다. 하지만 카라반 운행 중엔 25kg으로 포터 한 명당 무게를 매일 다시 맞추어야했기에 뒤섞이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있었다. 국내에서 아쉬운 점은 식품 스푼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소식인 누룽지는 주우형 선배가 직접 구입해 주셨고 반찬류인 고등어(빛고을수산)는 절반 값으로 구입, 캠프용 간식 파워젤과 비스킷은 이형모, 강기석 대원이 지원해 주셨으며 '진도홍주 신활력 사업소'에서 진도홍주를 대량 지원해 주신 것 외에 다른 식량은 전량 구입해야만 했다. 초짜 원정경험자로서 이점이 생각에만 그치게 너무 아쉬웠다.

(2) 현지

라왈핀디에 도착, 무더운 날씨에 대원들은 비 오듯 땀을 흘려야만 했다. 낮에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스팔트 복사열이 무서웠고 밤이 되어도 현지 온도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무지막지한 나라였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식량담당은 김치류나 젓갈류, 생선류, 과일류 등을 냉동실에 보관해야하고 직접 냉장실에 운반하여 보관해야지 모텔직원에게 맡겨두면 더운 날씨에 짜증은 두 배가 된다. 이곳에선 주로 행정업무를 보는데 식량담당은 더운 날씨에 대원들의 컨디션을 위해 하행 카라반이 끝나는 순간까지 끊임 없이 신경을 써야 한다. 대행사 가이드에게 식량구입여부를 확인하여 스카루드에서 구입을 할지 이슬라마바드에서 구입을 할지 결정 할 수 있는 식량품목들을 파악해야한다.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그냥 먹지만 대원

들은 항상 미네랄 워터를 사먹어야만 했고 수박과 망고 멜론 등등 신선한 과일을 사서 식사 후나 주로 밤에 먹었다. 모텔에 비치되어 있는 과일이나 음료수는 비싸기 때문에 식량담당은 미리 사두어서 대원들의 각방에 마련해 두는게 좋을 듯 싶다. 현지 한국식당에서 주식인 쌀을 거의 구입하였고 차이나 슈퍼마켓에서 밀가루 및 흑미, 녹두를 구입하였다. 스카루드에서는 식량 및 장비담당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다. 휴작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구입하기가 어려웠다. 배추와 야채가 가장 급선무였는데 원정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우리 팀의 쿡 상개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모든 업무를 볼 수 가 있었다. 현지에선 대량 구입 시에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구입해야하고 가이드와 함께 다녀야 적절한 가격흥정이 가능하다. 모텔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게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매번 식사 때마다 빌리지를 확인하여 여러 메뉴의 가격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아쓰폴리에서는 닭과 염소 구입이 가능한 곳이다.

① 현지구입채소류

품 목	수 량(kg)	단 가	금 액(Rs)	총중량(kg)
무(radish)	10	20	1000	10
당근(carrot)	10	30	300	10
오이(cucumber)	10	35	350	10
고추(chilly)	3	40	120	3
양파(onion)	5	20	100	5
마늘(garlic)	15	65	850	35
생강(sandder)	2.5	50	125	2.5
양배추(cabbage)	10	15	150	10
파(onion)	2	30	170	2
부추(dundu)	1	70	70	1
토마토(tomato)	10	35	350	10
피망(pumpking)	3	80	240	3
호박(pumpking)	5	30	150	5
가지(vanda)	3	30	90	3
말린고추(chilly)	1	110	110	1
고춧가루 (chilly powder)	0.5	150	75	0.5
콩(bean)	2	30	60	2
레몬(lemon)	1	100	100	1
배추(chinese cabbage)	100포		3000	50kg
감자(potato)	30		1500	30
수박	7통		1350	
망고	10		1200	
자두	2		250	156

② 현지구입식량품목

품 목	단 위	수 량	단위무게	총무게	구입처
백미	Kg	140		140	이슬라마바드 한국식당
흑미	Kg	5		5	이슬라마바드 중국슈퍼마켓
밀가루	..	10		10	중국슈퍼마켓
염소	마리	4			키친보이 푸르만이 한마리 선물
닭	마리	15			닭두마리 50RP 10\$
계란	판	500 개			스카루드 시장 구입
설탕	..	3	1	3kg	스카루드 시장 구입
케찹	..	2	500g	1kg	
마요네즈	..	1	1L	0.8kg	
후르츠컵 테일	EA	15	825g	4.2kg	스카루드 시장 구입
파인애플	..	10	825g	8.2kg	
황도	..	7	825g	5.8kg	
망고	..	4	1000g	4kg	
오렌지	..	3	1000g	3kg	
옥수수콘	..	5	1000g	5kg	
런천미트	..	10	340g	3.4kg	
스위트콘	..	5	850g	4.2kg	
오렌지가루	kg	5	250g	1.3kg	
오렌지가루	kg	5	750g	3.8kg	베이스용
오렌지가루	kg	24	25g	600g	캠프용으로 구입
탄산음료	개	10	800g	8kg	콜라와 스트라이트 구입
밀크티	kg			3kg	스탬대원들용으로 구입

2) 주요 식량 사용 후기

(1) 주식

① 쌀 : 무게가 많이 나가는 까닭에 현지 이슬라마바드에서 전량 구입하였다. 우리 쌀과 맛이 거의 같아 무난히 먹을 수 있었다. 현지에서 흑미도 구입하여 백반의 맛맞음을 없애주는데 좋았다.

② 알파미 : 모든 대원들이 비교적 잘 먹었다. 1인용과 2인용을 따로 준비해 무게 양을 조절하는데 간편하였다.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③ 누룽지 : 순천대학교 주우평 선배가 지원해 주셨는데 기존의 것보다 끓이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캠프에서도 잘 먹는 편이었다. 베이스에서의 간식으로 유용해 쉬는 날 심심풀이로 많이들 찾았다.

④ 냉면, 국수 : 베이스에서 입맛 돋구어 주는 점심으로 아주 좋았다.

⑤ 라면 : 봉지 라면은 베이스에서 출출할 때나 점심용으로 입맛을 돋우어 줄 때 좋았다. 많은 라면 중에 비빔면과 사리곰탕이 선호도 높았고 짬뽕라면이나 오징어라면 등은 별로였다. 컵라면은 고소에서 국 대신 많이 애용하였고 잘 먹히는 편이었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중량(g)	총중량	구입처		비고(포장 및 수송)			
						국내	현지	카라반	베이스	camp	비상식
당면	홍플러스	g	(10인)3	1kg	3kg	o			3		
소면	오뚜기	g	(15인)4	1.5kg	6kg	o			4		
청수냉면	청수	g	(5인)3	750g	2.25kg	o			3		
신라면	농심	g	70	120g	8.4kg	o		15	30	27	
삼양라면	삼양식품	g	60	120g	7.2kg	o		13	34		13
사리곰탕	농심	g	30	110g	3.3kg	o		13	17		
볶음짜장	홍플러스	g	24	135g	3.24kg	o				24	
짜파게티	농심	g	30	140g	4.2kg	o				30	
메밀비빔면	오뚜기	g	24	130g	3.12kg	o				24	
팔도비빔면	한국야쿠르트	g	24	130g	3.12kg	o		12	12		
오징어 짬뽕	농심	g	25	124g	3.1kg	o				25	
수타면	삼양식품	g	25	120g	3.0kg	o		13	12		
1-1)컵라면						o					
사리곰탕	농심	g	16	112g	1.8kg	o				16	
무파마큰사발	농심	g	16	112g	1.8kg	o				16	
김치큰사발	농심	g	16	112g	1.8kg	o				16	
신라면큰사발	농심	g	16	112g	1.8kg	o				16	
새우탕큰사발	농심	g	16	112g	1.8kg	o				16	
육개장	농심	g	24	86g	2.0kg	o				24	

(2) 기본 양념류

쇠고기볶음고추장은 고소에서나 베이스에서나 밥에 비벼먹기에 좋았다. 설탕은 차 등을 수시로 먹기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무게 때문에 현지구입 하였는데 단맛이 약간 덜했다. 참기름과 식용유도 생각보다 조리하는데 많이 쓰여 부족하였는데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 듯싶다. 미원을 필요없이 많이 구입한 게 아쉬웠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중량 (g)	총중량(g)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카라반	베이스	camp	비상식
작은다시다(소)	백설	g	1봉(12개)	10	120	o		10			2
작은다시다(말)	백설	g	1봉(12개)	10	120	o		10			2
작은볶음고추장	청정원	g	10개	60	600	o				8	2
대양초고추장	해찬들	g	4	340	1,360	o		3		1	
소갈비양념류	백설	g	4	280	1,120	o		2	2		
큰 고추장	해찬들	g	3		8,000	o		3kg-1	2.5kg-2		
순창 된장	청정원	g	4	2,000	8,000	o		2	2		
멸치액젓	하선정	L	3	658ml	800	o		스카루드 김장용 3			
까나리액젓	하선정	L	3	2.1L	2.5kg	o		스카루드 김장용 3			
진간장	청정원	L	4	500ml		o		4			
진간장	청정원	L	3	1.7L		o		1	2		
국간장	해찬들	L	2	940ml		o		1	1		
사과식초	오뚜기	L	2	1.8L		o		1	1		
물엿	오뚜기	g	2	3,700	37,000	o		1	1		
참기름	백설	L	1	1.5L		o		1			
볶음참깨	홈플러스	g	1	400	400	o			1		
백설 설탕	백설	g	2	2,700	5,400	o			2		
작은백설설탕	백설	g	3	1,000	3,000	o		1	2		
맛소금	미원	g	1	500	500	o		1			
미원	미원	g	1	850	850	o		1			
미원	미원	g	2	500	1,000	o			2		
멸치다시다	백설	g	2	1,000	2,000	o		1	1		
쇠고기다시다	백설	g	2	750	1,500	o		1	1		
꽃소금	해표	g	2	1,000	2,000	o		1			스카루드-1
고춧가루(소)	영양영가	g	3	600	1,800	o		1	2		
고춧가루(대)	홈플러스	g	3	1,800	5,400	o					스카루드-3

(3) 캔류

현지에서 다량 구입한 런천미트는 조리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고 맛이 떨어져 스템들이 주로 먹었으며 국내에서 구입하는게 좋을 듯 싶고 골뱅이와 번데기는 술안주와 고소식으로 일품이었다. 과일캔은 베이스에서 식후 디저트로, 캠프에서는 간식용으로 먹었는데 아주 좋았다. 무게 때문에 현지에서 다량 구입하려고 했으나 맛이 떨어지고 병따개가 없어서 망고와 굴만 구입하였다. 신선한 과일이 없는 터라 과일캔은 인기 만점이다. 여러 종류로 많이 구입해도 남지 않을 품목이다. 고등어와 콩치 캔도 베이스에서 찌개로 먹기에 아주 좋았다. 갯잎캔을 수원대 팀에서 주셔서 고소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중량 (g)	총중량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카라반	베이스	camp	비상식
살코기 참치	동원	1캔	1		1.8kg	o			1		
황도 (대)	홈플러스	1캔	5	800g	4kg	o		3	2		
골뱅이	동원	1캔	10	400g	4kg	o		3	6		1
고등어	동원	1캔	14	400g	5.6kg	o		3	11		
콩치	홈플러스	1캔	13	400g	4.2kg	o		2	11		
번데기	샘표	1캔	15	140g	2.1kg	o		6	9		
고추참치	오뚜기	1캔	3	150g	450g	o				3	
야채참치	오뚜기	1캔	3	150g	450g	o				3	
런천미트	홈플러스	1캔	6	200g	1.2kg	o		3	3		
리챔	동원	1캔	15	340g	5.1kg	o			15		
밀감	진양	1캔	8	400g	3.2kg	o		2	6		
황도	샘표	1캔	20	400g	8kg	o		4	12		4
깐포도	펭귄	1캔	25	400g	10kg	o		2	23		

(4) 분말류

카레와 짜장 가루는 점심때 별미로 먹기에 아주 좋았다. 현지에서 구입한 밀가루는 국내보다 맛이 약간 떨어지지만 충분히 먹을 만 하고 간식으로 부침개를 해먹기에 좋았다. 생일자 3명의 대원이 있어 핫케익을 준비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 전분가루를 준비하지 않아 염소고기 탕수육을 먹지 못한게 아쉽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중량(g)	총중량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카라반	베이스	camp	비상식
짜장	오뚜기	g(50인)	2	1kg	2kg	o			2		
카레	오뚜기	g(50인)	1	1kg	1kg	o			1		
핫케익가루	곰표	g(10인)	1	1kg	1kg	o		1			
카레	청정원	g(55인)	1	1kg	1kg	o		1			
밀가루	홈플러스	g(10인)	2	1kg	4kg	o			2		
부침가루	홈플러스	g(12인)	1	1kg	1kg	o			1		

(5) 스프류

스프가 자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많은 구입을 했지만 캠프에서 대원에게 인기가 전혀 없었다. 진미죽은 주식으로도 캠프에서 두 번 정도 먹었는데 맛이 별로였고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중량(g)	총중량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카라반	베이스	camp	비상식
쇠고기스프	오뚜기	g	10	80g	800g	o		5	5		
양송이스프	오뚜기	g	10	80g	800g	o		5	5		
크림스프	오뚜기	g	10	80g	800g	o		5	5		



(6) 차류

커피믹스가 잘 소비된다는 이전 보고서에 따라 다량 구입했으나 인기가 별로였는데 20대

젊은 대원들이 많아서 일꺼란 생각이 든다. 하루 평균 대원당 5잔정도로 계산을 하였는데 하루평균 8잔 정도로 계산을 해야 맞을 것 같다. 여러 종류로 선호도를 미리 조사하여 많이 넉넉하게 준비해 가야한다.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님들은 건강 차류, 칩차나 ,생강차 녹차, 대추차, 한차에 선호도가 높았다. 콜라와 스프라이트는 베이스에서 갈증해소로 좋았고, 설탕을 6만원어치 준비해 갔으나 이형모 대원만 즐겨 먹었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날개(T)	총중량(g)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카라반	베이스	camp	비상식
녹차		box	2	200T	240	o		1box		1box	
레몬네이드		box	3	120	2,040	o		80T		40T	
동글레차		box	2	100	120	o		50T		50T	
매실차		box	3	60	1,800	o		40T		20T	
대추차		box	3	60	840	o		40T		20T	
립톤아이스		봉지(g)	2		1,700	o		1KG		1KG	
한차		box	2	30	450	o		15T		15T	
생강차		box	2	30	450	o		15T		15T	
사과라떼		box	1	10	180	o			10T		
바나나라떼		box	1	10	180	o			10T		
딸기라떼		box	3	30	540	o		10T	20T		
칩차		box	1	15	225	o		15T			
핫초코		봉지(g)	2		2,000	o		1KG	1KG		
유자차		봉지(g)	2		2,000	o		1KG	1KG		
율무차		봉지(g)	2		2,000	o		1KG	1KG		
보리차		봉지(g)	1		1,000	o		1KG	1KG		
결명자차		봉지(g)	500g		500	o			500g		
복숭아차		봉지(g)		100	1,400	o		100T			
(노랑)테이스터		box		230		o		100T	100T		
(빨강)테이스터		box		180		o		80T	100T		
(빨강)맥스웰		봉지(g)		180		o			180T		
맥스웰봉지		봉지(g)			3000	o			3KG		
네스카페		봉지(g)			2000	o			2KG		
원두커피		box		140		o			140T		
담터한차		봉지(g)	1봉지(40)	40		o			1봉지		
제티		box	2(40t)	40		o		20	10		10
석류차		box	2(40t)	40		o		20	20		
단호박마차		box	1(50t)	50		o		25	25		
오미자차		box	1(55t)	55		o		15			10

(7) 행동식 및 간식

상행 카라반 때에는 간식이 잘 먹히는 편은 아니었지만 고소에 적응된 뒤부터는 왕성한 식욕을 드러냈다. 하행 카라반 때에는 초코파이 한 개 없이 운행했던 걸보면 담당자로서 대원들에게 무척 죄송하였다. 운행 중엔 초코파이나 카스타드류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영양갱이 인기가 괜찮았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녹는 것도 문제였다. 그렇게 달지 않은 당백한 건빵류가 캠프에서 좋았고 맛동산이나 짬구 등의 스낵류는 베이스에서 심심풀이 간식으로 인기였다. 현지 구입 비스킷, 잼이나 사탕 등도 우리 입맛에 맞다. 국내에서 구입한 제리포가 고소 간식으로 좋지만 비싸고 무게 부담이 있다. 캠프 운행시에는 파워젤과 파워바, 에너지바를 크게 신뢰하며 인기있는 품목이었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개)	중량(g)	총중량(g)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카라반	베이스	camp	비상식
견오징어	홈플러스	g	11		400	o			o		
소제시	진주햄	g	6		380	o			o		
선식	홈플러스	g	3		6,000	o			o		
취포구이채	홈플러스	g	2		300	o			o		
계피	홈플러스	g	1		146	o			o		
시금치된장국	오뚜기	g	2		55	o			o		
복어국	오뚜기	g	2		55	o			o		
미역국	오뚜기	g	2		55	o			o		
고려홍삼캔디	진생	g	1		900	o			o		
스카치캔디	롯데	g	2		500	o			o		
홍삼캔디	홈플러스	g	1		800	o			o		
유과캔디	좋은식품	g	2		450	o			o		
디저트다임캔디	미렌드	g	1		1,000	o			o		
애니타임	롯데	g	1		340	o			o		
바이오캔디	오리온	g	7,1		108 . 570	o			o		
마이썬	크라운	g	1, 1		360 . 414	o			o		
선키스트	해태	g	3		110	o			o		
매실캔디	홈플러스	g	1		800	o			o		
박하사탕	홈플러스	g	1		800	o			o		
콩사탕	홈플러스	g	1		400	o			o		
목캔디	롯데	g	1		258	o			o		
알사탕	홈플러스	g	1		400	o			o		
자일리톨	오리온	g	4		85	o			o		
쥬시츄	조조모	g	5		1365	o			o		
트릭스	마스타푸드	g	2		1020	o			o		
청포도캔디	롯데	g	1		510	o			o		
영양갱	홈플러스	g	10(3개입)		2100	o			o		
빅샌드	홈플러스	g	2		367	o			o		
외플	홈플러스	g	2		540	o			o		
찰떡초코파이	홈플러스	g	3(10개입)		630	o			o		
롯데와플	롯데	g	2(5개입)		200	o			o		
뽕또	크라운	g	2(24개입)		540	o			o		
몽쉘	롯데	g	2(12개입)		768	o			o		
찰떡쿠키	청유	g	3(12개입)		720	o			o		
에이스야채	홈플러스	g	1(9개입)		254	o			o		
파타에초코파이	홈플러스	g	2(12개입)		816	o			o		
덴더롤	크라운	g	1(8개입)		216	o			o		
후렌치파이	해태	g	8(10개입)		1600	o			o		
카스타드	롯데	g	4(10개입)		342	o			o		
오곡쿠키	크라운	g	1(16개입)		292	o			o		
제크	롯데	g	4(6개입)		1200	o			o		
초코파이	오리온	g	4(24개입)		3360	o			o		
왕새우	홈플러스	g	2개		600	o			o		
쌀도랑	홈플러스	g	5(7개입)		600	o			o		
쌀과자	홈플러스	g	5		500	o			o		
짬야	홈플러스	g	1		385	o			o		
맛동산	해태	g	1(8개입)		296	o			o		
오징어땅콩	홈플러스	g	2개		400	o			o		
바나나칩	홈플러스	g	1		220	o			o		
해피데이	대웅식품	g	3		720	o			o		
뽕띠첼	오리온	g	8(4개입)		440	o			o		
오감자	오리온	g	2		250	o			o		

(8) 건어물

생선을 조금 구입하는 대신에 북어포 , 황태포를 다량 구입한게 좋았다. 쿡인 상개의 뛰어난 요리 덕분에 황태구이로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좋았다. 건멸치, 건취포, 건미역, 오징어취포 등등 수송기간이 길어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다. 날 좋은 날을 잡아서 말려서 먹어도 무관하였다. 오징어나 노가리는 베이스에서 간식으로 아주 좋았다. 반찬용과 국거리용으로 많이 쓰이니 넉넉하게 준비하는게 좋을 듯 싶다.

(9) 건나물

베이스에서 입맛 돋구어주는 반찬이었다. 물에 4시간이상 오랜 시간 담가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쿡에게 미리미리 식사 메뉴를 말해 주는게 좋다. 취나물과 고구마줄기 , 토란 , 도라지 등은 반찬용으로 아주 좋다. 구이김은 밥반찬으로 언제나 맛있고 , 생김과 김밥용 김으로 나누어 준비해 갔지만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자반과 파래는 싸고 철분이 많아 넉넉히 준비했지만 인기가 별로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식량이었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중량(g)	총중량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베이스	카라반	camp	비상식
취나물	바다상회	g	3	100g	300g	o		2	1		
홍합	바다상회	g	1	1kg	1kg	o			1		
김자반볶음	바다상회	g	2	400g	800g	o		1	1		
삼계탕재료	바다상회	g	6	50g	300g	o		2	4		
작은미역봉지	바다상회	g	3	50g	150g	o				3	
긴 다시마	바다상회	g	1	1kg	1kg	o		1	조금		
맛살채	바다상회	g	1	1kg	1kg	o			1		
오징어취포	바다상회	g	2	1kg	2kg	o		2			
재래김	바다상회	g	55매	100g	1.1kg	o			2봉		
김밥용 김	바다상회	g	2봉	100g	200g	o			2		
황태	바다상회	g	40마리		2.8kg	o		3	1		
구운 취포	바다상회	g	2	1kg	2kg	o		1	1		
황태포	바다상회	g	1	1kg	1kg	o			0.3		
목이버섯	바다상회	g	1	500g	500g	o		1			
포고버섯	바다상회	g	1	1kg	1kg	o		1	조금		
홍새우	바다상회	g	1	500g	500g	o		1			
구운돌김	home	g	32봉(5매)	15g	420g	o		16	16		
건미역	바다상회	g	1	1kg	1kg	o		1	조금		
건호박	말바우	g	1	1kg	1kg	o					
토란	말바우	g	1	300g	300g	o					
도라지	말바우	g	1	100g	100g	o		1			
고사리	말바우	g	1	300g	300g	o		1			
고구마줄기	말바우	g	1	200g	200g	o		1			
파래자반	바다기행	g	3	130g	390g	o		3			
멸치	양동시장	g	1box	1kg	1kg	o		1			
건자반	롯데마트	g	3	100g	300g	o		3			

(10) 젓갈류

반찬으로 좋으나 베이스에서 날씨가 더워 시간이 갈수록 맛이 변해 손이 덜 갔다. 특히 멸

치속젓이 비싸지 않고 국내에서 신문으로 싸서 가져온 고추를 작게 잘라 반찬으로 넣어 먹으면 아주 좋다. 고추무침과 마늘쫑은 시간이 지나도 맛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 부족한게 아쉬웠다. 고등어는 하루정도 물을 뺀 다음에 소금을 적당히 뿌려 간 하는게 좋다. 아이스박스 위부분에 있는 고등어는 상한 맛이 심했지만 중간부터는 간이 적절히 되어졌던 것 같다. 서늘한 곳에 보관 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싶다.

항목	제품회사	단위	수량	중량(g)	총중량	구입처		비고			
						국내	현지	베이스	카라반	camp	비상식
오징어젓갈	이마트	kg			3.5kg	o					
갈치속젓	이마트	kg			1.3kg	o					
고추무침	이마트	kg			1kg	o					
마늘쫑	이마트	kg			1.8kg	o					
무말랭이	이마트	kg			1.4kg	o					
고등어생선	빛고을수산	kg	80 +50		40kg	o					

3) 총 평

고소에서의 식량에 대해 원정팀마다 고심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음식이 산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가 포만감을 채우는 것이 아닌 맛있고 가볍고 소화 잘되고 영양가 높은 것들을 먹는 것이라 보았을 때 배를 풍족히 채울 음식보다는 무게와 쓰레기 등을 먼저 고려하면서 무난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다른 팀에 비해 원정대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식량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첫 원정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여도 불만 없이 잘 먹어준 대원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혹시나 원정을 또 다시 가게 된다면 식량담당을 하고 싶다. 이번 원정때 부족했던 점들은 원정기간 내내 바로 몸으로 부딪치며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기억에 생생하다. 끝으로 내가 원정을 가서 식량담당이라는 중책을 맡아 큰 무리 없이 잘 마칠수 있게 도와주신 원정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5. 포장 및 수송 - 김가영

1) 포장

(1) 개관

포장 시 가장 많이 신경썼던 부분이 포장용품의 가격과 항공화물의 총 무게였다. 원정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인 카고백과 지원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의 물품들은 담프라 박스에 포장하였다. 항공화물의 포터들의 짐 무게에 맞춰 25kg-27kg 사이로 맞췄다. 개인 카고백은 20kg, 수화물은 15kg 이내로 부피가 적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비와 노트북 등의 고가품을 넣었다.

(2) 포장 목록

① 담프라 박스

인터넷(www.pojang.com)을 통하여 정해진 사이즈의 박스를 대량 구입했다. 주문형보다 싸고 배송이 빨랐지만, 실제 파키스탄에서 포터들이 수송하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컸다. 좁은 면이 오픈되는 형으로 높이를 50cm 정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B.C.로 운송 후 키친텐트 안의 식기 보관용, 선반, 식량구분박스 등 다양도로 사용하였다.

단프라박스							
박스검색	형태	종명	가로	세로	높이	사용용도	검색
	단프라박스	바로그가	전체	전체	전체		총 6개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고	이미지	상품명	목음수량	단가	목음가격	용도	장바구니
☐		단프라BOX 소 480 x 345 x 345 mm	10 대	4,530원	45,300		장바구니
☐		단프라BOX 대 700 x 450 x 500 mm	10 대	7,720원	77,200		장바구니
☐		단프라BOX 중 600 x 410 x 470 mm	10 대	6,260원	62,600		장바구니
☐		단프라BOX 의류용 900 x 500 x 400 mm	5 대	9,700원	48,500		장바구니
☐		단프라BOX 미분류 900 x 500 x 600 mm	5 대	11,280원	56,400		장바구니



② 카고백

포장이 쉽고 밝은 색의 카고백일 시 눈에 잘 띄어 관리가 편하다. 김미곤 등반대장님이 예코로바 120L용 14개와 이형모 대원이 노스페이스 분홍색 100L용 15개 지원하여 베이스용, 카라반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하행 카라반 시에도 장비, 식량 등의 짐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 물건 찾기가 편리하였다. 숫자 열쇠 자물쇠는 반드시 채워서 내용물의 분실을 막고 번호는 통일하여 전 대원이 열 수 있도록 한다.



③ 화학통

파손 위험이 있는 식료품병이나 냄새가 나는 젓갈류, 간고등어류, 선물용품 등을 쌀 때 유용하다. B.C.에서 물통, 김치 저장소로 사용하였다.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현지에 대포해 놓았던 것을 사용하였다.

항목	규격 및 용도	수량	단가(원)	구입처
단프라 박스	700(가로) x 450(세로) x 500(높이) mm	35	6720	국내
카고백	120L, 100L	25		지원품
화학통	큰 사이즈(2), 작은 사이즈(3)	5		현지
석유통	30L	15		현지
마대	100L, 현지 제품보다 질이 좋다	10		국내
나무박스	달걀, 야채 등의 포장	13		현지
용수철 저울	짐 무게 체크	2		국내
벤딩기				
벤딩끈			15000	국내
클립	300개	2	8000	국내
박스Tape		30	1800	국내
비닐	91m(가로) x 120(높이), 0.05mm	1	32000	국내
은박단열재	가스포장용, 텐트 밑 냉기 차단용			국내
에어캡	면류, 깨지기 쉬운 물품	1마		국내

(3) 총평

파키스탄의 경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카라반 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짐을 3차로 나누어 포장을 하였다. 1차로 항공화물로 보내는 것은 현지에서 최대한 재포장하지 않고 포터들에게 짐 분배하여 베이스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물품 중 스틱, 침낭, 삼중화, 아이젠, 벨트 등 B.C.에서 사용할 물품들도 같이 포장하였다. 2차는 만약에 일정이 길어질 비상사태를 대비해 베이스에 도착한 후 10일 정도 후에 사용할 물품들을 싣는다. 3차는 현지 이동 및 카라반 시 자주 꺼내어 쓰는 장비나 식량, 조리 시 필요한 양념류 등을 카고백에 담아 필요할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수철 저울은 현지 짐 무게 체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2개 정도 준비하여 대원이 나누어 지니고 다녔다. 짐 체크는 대원이 직접 하였고, 짐 분배 후에 절대로 저울을 포터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등반이 끝난 후 하행 카라반이나 항공화물을 한국으로 보낼 때에도 저울이 필요하므로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주의 사항

- ① 항공 수송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스 등 위험물을 실을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은박지로 한 개씩 날개로 포장하여 카고백에 넣지 말고 담프라 박스에 5~10개 정도씩 여러 군데로 분산하여 바닥에 깔아놓는다. 가능한 식량박스에 포함시키되 열을 받아서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차량용 배터리 또한 포장 시 황산이 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항공 화물에서 발견 시 다른 박스들도 모두 검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액체류는 모두 뚜껑 부분을 여러 번 테이핑 하여 기압으로 인해 부풀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④ 무전기, 위성전화, 비디오 카메라 등 파손우려가 있는 장비와 고가품은 화물로 보내지 말고 기내수화물로 보내야 한다.
- ⑤ 단프라 박스 포장 시 만약의 분실을 대비해 식량과 장비를 골고루 분산시켜 포장하고, 카고백과 단프라 박스 안쪽을 통비닐로 씌워 물에 젖지 않도록 하였다. 비닐은 0.05mm보다 좀 더 두꺼운 것을 추천한다. 박스의 중간에는 무거운 것을 넣고 바깥부분에는 침낭과 화장지, 매트리스 등을 넣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하였다. 고소에 올라가면 식량이 부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뽁뽁하게 물건을 넣지 않았다. 박스의 윗 상단에는 들어있는 물품 list를 한글로 적은 종이를 넣어두어 어느 대원이 열어도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짐의 바깥부분에는 크게 일련번호를 굵은 메직펜으로 써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밴딩기와 끈, 클립, 박스 Tape 등도 현지에 충분히 챙겨가면 좋다.

2) 수송

(1) 개관

처음에는 원정대의 핵심 업무인 수송을 꼭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수송 대원의 불필요한 말 한마디로 원정대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내심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파키스탄 원정에 경험이 많은 김미곤 등반대장님의 조언과 적극적인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송 업무를 끝마칠 수 있었다. 출발 전 수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 대행사에 물어보고 꼼꼼이 체크하며 돈을 지불하던 습관도 행정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국내-파키스탄 수송, 카라반 수송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2) 국내-파키스탄 수송

① 한국-파키스탄 항공화물 수송

포장을 끝마친 짐들은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스카르두까지 항공화물로 부치기로 하였다. 원

정 대원이 직접 하는 것이 좋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물인 가스를 보내야 하므로 원정대의 항공화물 수송 경험이 많은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였다. KL 해운항공의 김기옥 씨와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였으나 본 대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직원이 담프라 박스를 점검하여 차량용 밧데리 하나와 EPI 가스 상당을 보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외 항공화물 수송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INVOICE와 한글과 영문으로 된 Packing list가 있다. INVOICE에는 항공화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를 통하여 INVOICE 및 수송 수속을 처리하게 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된 Packing list는 우리가 직접 작성하였다. 한글로 된 list는 대원들만 보기 때문에 가스를 포함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 국내 대행사에서 보내준 INVOICE 및 Packing list 작성법을 첨부한다.

국내 대행사에서 보내준 견적 패킹리스트 및 인보이스 작성법

- 1) 서류작업은 MSN 워드 또는 엑셀로 한다
- 2) 패킹리스트와 화물주는 원정대 명을 쓰되 입산신청시 쓴 영문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 3) 패킹리스트상의 원정대 주소는 업무편의를 위해 대행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한다.
#202 YoungEun B/D, 15-7 Songpa-dong, Songpa-gu, Seoul, South Korea
Phone : +82-2-322-8811 / +82-11-704-3230
Fax : +82-2-322-4878 E-mail: kailas8811@gmail.com
- 4) 인보이스상의 2)Accounts 주소는 원정대와 현지대행사를 같이 표기하여 미리 통관할 수 있게 한다.

파키스탄 대행사	네팔 대행사
C/O.Nazir Sabir Expeditions House #434, Street #2 , G-9/3, Islamabad P.O Box 1442 Islamabad - 44000 Pakistan Phone: +92-51-2252553, 2252580, 2853672 Fax: +92-51-2250293 Attn : Mr. Sultan Khan	C/O, WINDHORSE TREKKING(Pvt.) LTD., C P O BOX 10043 KATHMANDU, NEPAL Phone : +977-1-4-376641/ +977-98510-25402 Fax : +977-1-4-378265 ATTN : Mr. ANG KARMA SHERPA

- 5) 화물은 소모품(Consumable goods)과 비소모품(Non-consumable goods)로 구분한다.
- 관세를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소모품으로 분류할 것.
- 6) 위험물의 포장 - 부탄가스 등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항공화물로 보낼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패킹리스트 상에는 Fruit Can 또는 Camping Can으로 표기한다
- 7) 물품의 가격은 소매가의 20~30% 선에서 기록할 것.
- 8) 품목당 개별 무게를 기록하되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박스포장된 상태에서 전체 무게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 - 항공사에서 다시 계량하여 화물비를 부과함.
- 9) 화물 운송 기간
: 인천공항에 12시 이전에 도착 기준으로 네팔은 2~3일, 파키스탄은 3~5일, 중국은 목적지에 따라 2~5일이 걸림.

COMMERCIAL INVOICE

1)Shipper / Exporter KOREAN GASHERBRUM I ,II EXPEDITION SEOUL, KOREA.		8)No. & Data of Invoice JUN,02, 2008			
		9)No. & Data of L/C			
2)For Account & Risk of Messrs KOREAN GASHERBRUM I ,II EXPEDITION C/O.Nazir Sabir Expeditions House #434, Street #2 , G-9/3, Islamabad P.O Box 1442 Islamabad - 44000 Pakistan Phone:(92-51) 2252553, 2252580, 2853672 Fax: (92-51) 2250293 <u>Attn:sultan khan</u>		10)L/C Issuing Bank			
3)Notify Party SAME AS ABOVE		11)Remarks "NO COMMERCIAL VALUE" ALL OF THESE ITEMS ARE CLIMBING EQUIPMENT FOODS FOR CLIMBING MOUNTAIN GASHERBRUMI ,IIN PAKISTAN. IT'S NOT FOR SALE			
4)Port of Loading SEOUL, KOREA	5)Final Destination ISLAMABAD, PAKISTAN				
6)Carrier BY AIR	7)Sailing on / or About JUN,03,2008				
12)Marks and Number of PKGS	13)Description of Goods	14)Quantity	15)Unit-Price	16)Amount	

KOREAN GASHERBRUM I ,II EXPEDITION
FOR CLIMBING EQUIPMENT & FOODS

TOTAL : 39CTNS U\$517.17

국내 항공사에서 보내준 INVOICE



2008 ' KOREA GASHERBRUM-2(8,035M) EXPEDITION

BAGGAGE	NO	NAME OF GOODS	QUANTITY	PRICE	W.T(KG)	REMARKS
B-1	1	ROPE	2	8		
	2	TENT	1	26		
	3	SNOW BAR	5	2.5		
	4	CRAMPON	1	8		
	5	SLEEPING BAG	1	26		
	6	COOKING SET	1	3		
	7	DOYBLE SHOES	1	24		
	8	TEA	2	1.2		
TOTAL				98.7	25KG	
BAGGAGE	NO	NAME OF GOODS	QUANTITY	PRICE	W.T(KG)	REMARKS
B-2	1	ROPE	3	11		
	2	TENT	1	22		
	3	ASCEND	2	2.5		
	4	PICKEL	1	5		
	5	SLEEPING BAG	1	28		
	6	SAPEY BELT	1	4		
	7	DOYBLE SHOES	1	21		
	8	MATTRESS	1	0.9		
	9	SNACK	3	0.9		
TOTAL				95.3	25KG	
BAGGAGE	NO	NAME OF GOODS	QUANTITY	PRICE	W.T(KG)	REMARKS
B-3	1	ROPE	2	9		
	2	SNOW BAR	3	2		
	3	MATTRESS	1	0.9		
	4	SNACK	3	1.3		

영문 Packing list 예제

② 광주-인천공항 국내수송

대행사와 항공 일정이 잡히면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화물을 직접 보내야 한다.

인터넷으로 화물택배전문 회사를 알아보고 견적을 뽑아 가장 싸고 친절 한 곳으로 하였다.

아진물류 고재현 010-3920-2224

*3일 전에 연락을 하여 차량예약을 해야 한다.

항공화물 수송 물량
단프라박스 25개
카고백 14개
총 39개
총 무게 1,039kg

③ 이슬라마바드-스카르두 항공화물 수송

통관 처리 및 스카르두 항공화물발송은 현지 대행사에서 스카르두에 도착 후 묵을 숙소에서 짐을 찾을 수 있었다.

I. 수송/포장 주요일정

가서브럼 (200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5 • 식량, 장비 구입	26	27	28 • Packing 준비 완료	29 • Packing Start!	30	31
1 • Packing 완료	2	3 • 안전공항 화물 발송	4	5 발대식 PM 7시	6 • ISB 화물 도착	7
8	9 • ISB 항공화물 발송	10 출국 17:35	11 이슬라마바드 • 짐 스카르두 도착	12 컬라스 • 버스/트럭 이동	13 스카르두	14
15	16	17 스카르두 출발 • 도보 이동	18 졸라(3,100m)	19 파유(3,480m)	20 휴식일	21 우르드패스

수송 일정표

(3) 카라반 수송

① 이슬라마바드- 스카르두

한국에서 보낸 항공화물은 스카르두까지 가기 때문에 대원들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스카르두까지 개인 카고백만 챙겨서 움직일 수 있었다. 현지 대행사에서 대절해 준 에어컨이 가동되는 22인승 버스를 이용하였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구불구불한 2차로의 좁은 길로 바로 옆은 인더스 강이 흐르는 낭떠러지이다. 도로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으로 하행 카라반 시에는 낙석으로 중간에 길이 끊겨 장시간 버스에서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슬라마바드- 스카르두 짐 내용		
	카고백	배낭
대원	11	11
정부연락관	2	1
셀파	4	3

② 스카르두- 아스콜리

스카르두에서는 김치와 야채 등의 식량과 키친장비, 포터 식량, 연료가 추가되어 25kg 포장을 다시 하였다. 아스콜리까지 가는 길은 쥘차를 이용하는데 스카르두에서 알아보니 쥘차 한 대를 빌리는 비용은 작년보다 500Rs나 오른 5500Rs였다. 그러나 중간에 길이 끊겨 있어 중간 낙석지대까지는 쥘차 7대(대원용 3대, 짐차 4대), 그 이후로 5대를 사용하여 가야만 했다. 중간에 길이 끊긴 곳의 짐 운송은 포터들이 100Rs씩 돈을 받고 해 주었다. 가격은 먼저 지나간 원정대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상행 때와 달리 하행 카라반에서는 다리까지 끊겨 있고, 유가도 많이 올라 돈을 배로 내야했다.



카라반 짐차비 결산

상행 카라반 시 스카르두 -----> block -----> 아스콜리
4500 x 7대 3500 x 5대

하행 카라반 시 스카르두<----- block -----block -----> 아스콜리
5000 x 5대 1500 x 2대 3000 x 2대

③ 아스콜리- B.C

식량과 연료가 줄어들에 따라 짐이 없는 포터는 해고를 시켜야 한다. 파키스탄의 포터비는 당일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Stage별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짐 체크가 필요하다. 포터들의 하루 이동거리는 규정상 1Stage(3-4시간)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정대들은 보통 2Stage씩 이동한다.

카라반 시 사용할 텐트와 키친세트, 식량을 옮기는 포터들은 항상 대원보다 먼저 도착하여 텐트를 구축하게 해야 했으나 이번 원정에서는 이 점이 미흡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쿡에게 전담 포터를 맡겨 도착 후 차나 음식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상행 카라반 내 힘들었던 점은 박스나 카고백 등 한 개의 짐으로 25kg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포터 1명이 한 개만 지고가면 되지만, 25kg이 되지 않는 것들은 두 세 개씩 묶어서 가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는데 애를 먹었다. 카라반 시작 시에는 대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짐 분배와 도착을 확인하고, 나중에는 가이드가 꼼꼼하게 포터들을 관리하게 하도록 하였다. 올라가면서 밤기온이 낮아지므로 석유통에 들어있는 연료 관리도 필요하다. 현지 포터들은 가끔 무게를 재 보자고 하였으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B.C까지 잘 가주었다. 하행 카라반 시에도 같은 사다의 포터들을 고용하여 4일 만에 아스콜리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대원과 포터가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짐의 분실을 줄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등반 일지를 참조하기 바람.

상행카라반 짐 내용
카고백 33
단프라 28
포터식량 22에 타포린 1
셀파식량, 스토브, 차량용 밧데리 포함 13
나무박스 13
침낭,삼,도끼, 매트리스 7
안테나, 휘발유, 화확통 기타 8
원정대 짐은 25kg씩 125개가 나왔다.
=====
기타 닭 1, 염소 1 포함 총127개

상행 카라반 포터비 결산

기본식(빠유까지) = [(Stage별 수당 330 x Stage 수) + 장비비] x 해고한 포터 수

기본식(빠유 이상) = [(Stage별 수당 330 x 5stage) + (Stage별 수당 270 x stage수)
+ 장비비 + 특식비] x 해고한 포터 수

장비비 : 아스콜리~빠유 =200Rs, 빠유~ =400Rs

Stage별 수당 : 아스콜리~빠유 =330Rs, 빠유~ =270Rs

구 간	누적 stage수	해고 인원	해고 포터 임금 지급	잔여 인원
아스콜리 ~ 줄라	2	1	[(330 x 2) + 200] x 1명	126
줄라 ~ 빠유	4	10	[(330 x 4) + 200] x 10명	116
빠유 휴식일	5	7	[(330 x 5) + 200] x 7명	109
빠유 ~ 우르두가스	7	5	[(330x5) + (270x2) + 400 + 150] x 5명	104
우르두가스 ~ 고로2	9	7	[(330x5) + (270x4) + 400 + 150] x 7명	97
고로2 ~ 샤그린	11	11	[(330x5) + (270x6) + 400 + 150] x 11명	86
샤그린 ~ BC	12	86	[(330x5) + (270x7) +400+150+165+45] x 86명	0

* 원래 빠유에서 특식을 제공해야 하나 돈으로 지불하기로 함 (개인당 150Rs)

* 마지막 BC 해고자에게는 하산비(165Rs)와 보너스(45Rs)를 별도 지급함

* 포터 사다 3명 중 1명은 빠유에서 해고함

* 포터사다 : (4,500Rs x 1명) + (9,000Rs x 2명)

하행 카라반 결산

- * 포터인건비 : (12Stage x 330Rs x 상행비165Rs x 장비비400Rs) x 39명
- * 포터사다 : 1명 x 9,000Rs
- * 하행시 현지인 푸르만을 통하여 45명의 포터를 고용하였으나 운행일정 변경으로 취소하고 대행사를 통하여 다시 고용함 (취소 비용 들어감)



(4) 고소 수송

B.C 이후로의 수송은 네팔에서 고용한 두 명의 셸파들을 이용하였다. 고소에 적응된 셸파들이어서 운행 시간도 빠르고, 대원보다 짐도 많이 질 수 있었다. 한 번 이동할 때마다 30kg씩 운반하였다. 김미곤 등반 대장님과 여러번 등반을 했던 셸파들을 고용해서 그런지 파키스탄 포터에 비해 원정대의 요구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주었다. 침낭을 포함한 개인 물품들은 대원이 직접 캠프로 수송하였다.

6. 통신 및 전기 보고 - 임성근

1) 무전장비

무전기는 일단 고산이다 보니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으며, 본연의 기능인 송수신이 잘 되어야 하고 다른 무전기 및 안테나와의 호환성 그리고 충전유무(건전지 사용기능이 좋음), 출력 전파형식(중심주파수 145MHZ대)등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 BC에서 다른 한국 팀과의 주파수를 알아도 무전기 주파수 범위 밖이라 교신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 팀의 경우는 무전기 6대를 준비해서 갔다.

(1) 핸디무전기(Porable)

2006년 초모랑마 원정때 사용했던 Sender145와 김미곤 등반대장이 가지고 있는 VX-150무전기를 각각 3대씩을 준비해서 가져갔다. 둘 다 쓰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 Sender145의 경우는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스피커마이크를 사용해 무전기는 배낭에 넣는 것이 좋다.

① Sender145 : 무전기의 표준인 스탠더드의 C150과 같다고 봐도 된다. 디자인은 약간 투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능면에서는 다른 기종에 뒤지지 않으며 배터리 6개팩을 넣으면 다소 무거워 보이나 4개짜리 팩도 있어서 무게 면에서는 조절이 가능하고 고출력(5W)을 위한 10개팩, 그리고 충전용 팩과 바로 어댑터를 연결해 무전 및 충전이 가능하다. 보통 무전기에 표시된 출력은 최적의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것이며, 6개는 2.5W, 4개는 1W, 10개는 5W, 충전팩은 5W정도 나온다. 각각 High, Midium, Low로 조절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3대를 준비해서 사용했다.

② VX-150 : 야에수(YAESU)사에서 나온 대중적이고 명성이 높은 무전기 이다. 크기가 작아 휴대하는데 용이했다. 외관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업무용 무전기와 흡사하고 단순해 보인다. 액정 표시부가 작아서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 눈이 묻어도 맘을 놓을 수 있었다. 대용량 스피커가 채용되어 무전 시 가장 큰 볼륨으로도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배터리 전압 확인 기능은 건전지량을 확인하는데 지표가 됐으므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3대를 준비해서 사용했다.

* 2종류의 무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대원들이 무전기 사용법을 숙지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며 안테나 삽입부가 서로 달라서 안테나 커넥터를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나사형 안테나 삽입부는 야에수(YAESU)사에서 나온 무전기의 특징이다. 다이아몬드사에서 나온 안테나가 수신률이 좋고 잘 휘어져서 안테나 길이에 따른 불편함이 적었다.

(2) 무전기 증폭기

김미곤 대원이 증폭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증폭기는 구입하지 않았다. BC에서 설치해서 사용하였으며, 자체 전원은 없어서 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하였다.

(3) 안테나

무전에서 무전기도 중요하지만 잘 터지기 위해서는 안테나도 매우 중요하다. 안테나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게다가 무게나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

① 야기안테나(Yagi or Beam antenna) : 예전에 사용한 TV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볍고 저렴하고 설치도 편하고 방향성이 있고 수신율이 좋다. 단점은 방향성 덕에 안테나 방향 외에는 잘 안 터지고 뒤편은 전혀 안 터진다고 봐야한다.

② GP안테나(Ground Plane Antenna) : 2단도 있고 3단도 있는데 한마디가 길이가 길어서 운송이 불편하고 위로 높게 설치해야하나 방향성이 없어서 따로 조정을 하지 않아도 어느 방향이든지 사용이 가능하나 약간 비싸다는 점도 있다. 우리 팀의 경우 BC에서 증폭기와 연결해서 사용하였는데 BC→C1구간에서는 지형 때문에 무전이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간을 제외한다면 불편없이 무전을 할 수 있었다.

③ 차량용 안테나 : 생김새는 라디오 안테나가 아니라 택시나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 무전기 안테나 모양이다. 작고 가볍고 사용도 간편하다. 방향성이 없어서 어느 방향이든지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안테나 보다는 출력이 약하다.

④ 로드 안테나 : 라디오 안테나처럼 뽑아서 쓰는 안테나이다. 잘 터지고 다시 집어넣어 휴대도 간편한 편이나 금속이라 무겁고 끝 부분이 잘 부러진다.(끝 부분이 끊어지면 넣고 빼기가 어렵다.)

⑤ 기타 : 롱 안테나(잘 휘어지고 조금 긴 더듬이처럼 생겼다. 가볍고 운행 시 편하다.)
숏 안테나-무전기에 기본으로 달린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위성전화기



<제원>

명칭 : 휴대용 위성전화기

모델명 : R-190

무게 : 배터리 포함 210g

크기 : 13 5 3.2 cm

배터리 : GSM 900, 통화시간 2시간 40분, 대기시간 47시간

제조사 : 소니 에릭슨, 미국 형식승인 제품

사용범위 :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중국,일본,네팔,인도 등)

요금 : 분당 420원

<국내판매회사>

회사명 : SMART LINK KOREA

연락처 : 051-292-1114 (주성용 HP : 011-836-8939)

홈페이지 : www.marinesa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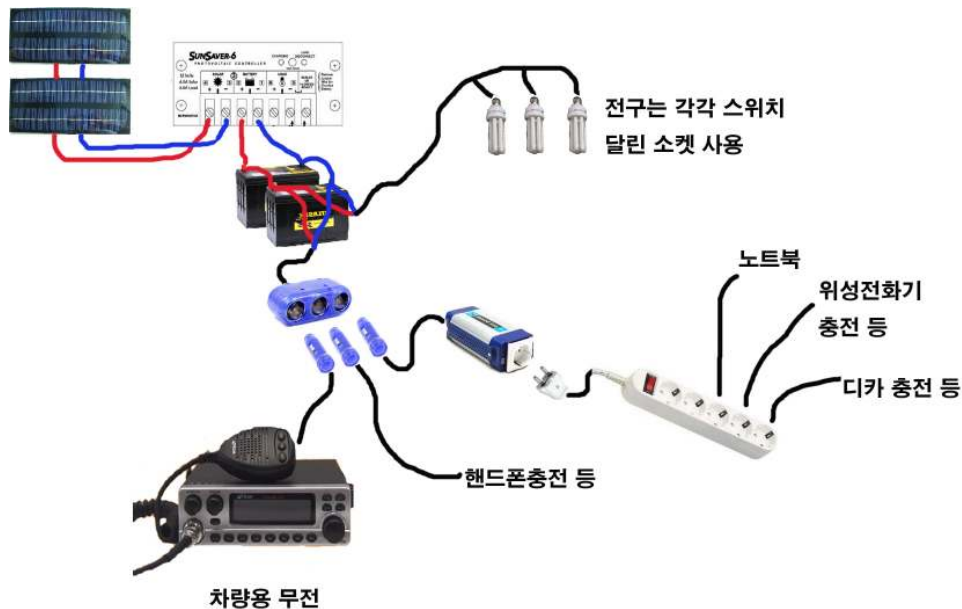
* 2006년도 초모랑마 원정 때 사용했던 위성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아시아지역 위성통신망 ACeS망을 사용하는 전화기로 의외로 파키스탄 도시보다는 BC에서 전화가 더 잘 되

었다. 도시에서는 건물 옥상에서나 신호가 잡히지만 신호가 미약하다. 건물이나 나무 등의 장애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듯 하다. BC에서는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이 전화 수신 상태가 양호하다. 요금이 저렴하나 THURAYA 폰보다는 통화품질은 좋지 않다. 요즘에 나오는 THURAYA폰은 국가코드를 따로 입력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요금이 많이 저렴해 졌으므로 통신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THURAYA폰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위성전화기는 6개월 넘게 사용을 안한다면 재등록을 해야하며(20,000원) 핀번호를 사서 입력하고 2달 안에 쓰지 않으면 핀카드에 있는 요금은 자동 소멸하므로 주의해야한다.

핀카드 충전 : 1510+핀번호+YES

요금 확인 : 1515+YES

3) 전기 장비



(1) 전원

① 솔라판 : 김미곤 등반대장이 보유하고 있던 A3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15W 솔라판을 6장을 한국에서 준비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데포해 놓은 솔라판을 함께 사용했다. 15W 6장(90W)과 40W 2장이었으므로 총 170W정도 된다. 15W 솔라판은 판넬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포장하는데 신경을 써야했다. 눈이 오는 날 솔라판에 눈이 쌓이므로 눈을 치워줘야 하고 하루 세 번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솔라판을 돌려 주었다.



(2) 전선

한국에서 전선은 20M를 준비했다.(조명나라 이도기 선배님 지원) 원래 80M를 지원 받았으나 무게가 많이 나가서 20M만 준비해 갔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가는 선을 쓰되 너무 가는 선은 거리가 멀어지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송전할수 없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3)차량용 배터리

한국에서 60AH 짜리 2개를 쌍둥이 카센타에서 지원받았다. 하지만 항공화물로 보내는 과정에서 차량용 배터리 하나를 압수당했다. 그래서 80AH 짜리 하나 더 현지에서 구입해야만 했다. 항공화물로 보낼 배터리는 포장할 때 배터리 액이 새지 않게 막아놔야 하며 원래 차량용 배터리는 항공화물로 보낼 수 없으므로 공항에서 걸리지 않게 잘 포장해야 한다. 일반 차량용 배터리보다는 10만원 정도 더 비싼 무결정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배터리 액이 새서 발생하는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4) 기타

① 전등 : 기본적으로 삼파장 등을 쓰는데 220V와 12V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220V는 부적합하다. 공급되는 전원은 모두 12V이고 인버터를 이용했을 때에만 220V를 사용이 가능한데 여러 변수를 생각하면 12V를 준비하는 게 편하다.

고장을 대비해 여벌로 몇 개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12V는 전압이 낮은 관계로 거의 고장도 없었다.)

② 콘트롤러 : 충전시 과충전을 방지하고 충전압을 볼 수 있는 장치다.

③ 인버터 : 12V를 220V로 승압하는 장치다.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을 충전하는데 사용된다. 고장을 대비해 인버터를 여분으로 하나 더 준비하거나 인버터 휴즈를 고장을 대비해 준비해 가야한다.

④ 스위치 : 전등을 켜다 꺼는데 있으면 편한 장비다. 없을 경우 전선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⑤ 전선집게 : 배터리 단자를 무는데 사용이 된다. 꼭 필요하고 없으면 매우 불편하다. 여러 개 준비해서 스위치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

⑥ 기타 : 멀티탭, 플러그, 콘센트, 테스트기, 절연테이프 등

* 전기 및 통신 분야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물품을 사는 것은 불가능 했다. 다행히 김미곤 대원이 무전기와 솔라판과 기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전기 자재들을 조명나라 이도기 선배님이 지원해 주셔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장비들이 원정 때 아무 말썽도 없어서 다행이었다. 다시 한번 이도기 선배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준비해간 장비 목록표

⊙전기

품명	모델명	수량	비고
솔라판넬	YL-15W	6EA	김미곤 등반대장 지원
	미상(LG-40W)	2EA(현지대포)	
컨트롤러	SL-10L-12V	2대	
인버터	미상	2대(200W)	
배터리	미상(60AH)	1EA	쌍둥이 카센타 지원
	미상(80AH)	1EA	현지 구입(5,000루피)
잡선	미상	20M	현지구입(100루피)
콘센트4구	미상	1EA	조명나라 이도기 선배님 지원
콘센트2구	미상	1EA	
12V전구	데이타임	6EA	
소켓	G4소켓	5EA	
전선	로맥스2.0	20M	
케이블타이	대	300EA	
	중	500EA	
	소	300EA	
절연 테이프	미상	10EA	
플러그	미상	3EA	
스위치	미상	3EA	

⊙통신

품명	모델명	수량	비고
무전기	SENDER145	3대	초모랑마팀 김미곤 대원 지원
	VX-150	3대	
GP안테나	미상	1본	
무전기 증폭기	미상	1대(50W)	
안테나 케이블	미상	2롤	
증폭기 휴즈	미상	5EA	한국 구입(개당 300원)
위성전화기	R-190	1대	초모랑마팀

6. 의료보고 - 곽새미

(의약품 중심)

다행히 우리 팀 대원들은 큰 환자 발생 없이 BC에 입성하였고 등반 중에 부상 사고 등이 없어서 의료 담당이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았다. 상행카라반 시 의외로 포터들 중에는 고산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으나 두통약, 안약 등을 처방하여 별 이상 없이 운행하였다.

원정 자금 부족으로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였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의약품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남대OB산악회 86학번 박현주 선배님께서 지원해주신 한약은 산행 내내 최고의 인기품목이었다. 한약병은 차 상자에 담아두고 누구나 원하는 때에 마실 수 있게 했다. 액체일 경우 운반 및 보관에 어려움이 많지만 가루약 형태여서 운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고소에서는 다량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따뜻한 물에 차처럼 타먹은 한약류 들은 고소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여 전 대원이 큰 고산병 없이 원정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한국 원정대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바로 효과를 보았다. 고산 경험이 많은 한의사가 제조한 한약은 고소에서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원정에서 가장 의미깊은 연구결과는 고소환경에 한의약이 탁월하다는 사실이다.



박현주 선배님이 지원해주신 한약

또한 기본 의약품을 제공해주신 유한양행 김기수님(영남대OB)과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 고소 의약품을 제공해주신 대구경북 학생산악연맹, 의료용품을 제공해주신 오성의료기 허환 사장님(서강대OB)에게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 약품별 사용 결과

(1) 한약

곽향정기산의 경우 파키스탄에 막 도착해 물갈이할 때, 오령산의 경우 고소증세가 시작되는 아스콜리에서부터 많이 소비되었다. 특히 쌍화탕은 고소캠프에도 가지고 올라갔으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2) 다이아막스

주로 상행카라반 등 고도를 높일 때 많이 소비된다. 우리 대의 경우 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먼저 오령산을 복용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소비되지 않았다.

(3) 마그밀, 소기핀, 알마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4) 큐자임

우리 대의 경우에는 고산증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거의 없었고, 베이스캠프 및 하산 후 도시 체류 때 과식으로 인해 소비되는 양이 대부분이었다.

(5) 타나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과 성분이 같다. 고소로 인해 머리가 아플 때 주로 복용하였으며 효과는 무척 좋았다.

(6) 푸레파레손 연고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등반을 오면 치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여 준비했는데, 우리 대가 사용하진 않고 다른 한국 원정대 팀에서 사용했다. 하산 후 치질이 생긴 대원도 있다.

(7) 안티푸라민, 안티푸라민S, 제놀쿨

대원들 뿐 아니라 현지고용인들도 많이 사용한다. 등반이 끝나면 현지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약이기도 하다.

2) 의약품 물량표

(1) 한약

약 이름	용도	용법	형태	수량
쌍화탕	근육통, 감기몸살	공복에 하루3번 정기복용	가루약	750g 5병
오령산	고소증세	하루3번 식후복용	가루약	750g 1병
평위산	체했을 때	하루3번 식후복용	가루약	750g 1병
곽향정기산	물갈이로 인한 설사	하루3번 식후복용	가루약	750g 1병

* 기본적으로 보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증상과는 상관 없이 차처럼 마셨으며 컨디션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내복약

구분	약 이름	용도	형태	분류	구입방법	사용량	
						상행 카라반	베이스 및 고소캠프
고산증용	다이아maks	이노제	정	전문의약품	대구경북	10	20
	씨베리움	뇌산소부족	캡슐	전문의약품	학생산악연맹	·	20
	덱사메타손	폐부종	정	전문의약품	수원대	·	10
기 관 지 , 감기약	레피콜에스	종합감기약	캡슐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30	30
	Codewon	기침, 가래	정	전문의약품	보건소	·	30
	유코팩트	코감기	정	전문의약품	보건소	·	10
소화기용	마그밀	변비	정	일반의약품	보건소	0	0
	소기핀	변비	캡슐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	0
	큐자임	소화불량	정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10	10
	알마겔	속쓰림,	정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0	0
	알마겔S	위궤양	현탁액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0	10
	정로환	설사	환	일반의약품	보건소	200	50
	티로드	복통	정	전문의약품	보건소	20	10
진정제	우황청심원		환	일반의약품	구입	0	3
잇몸질환	이가탄		캡슐	일반의약품	구입	·	130
진통제	타나센	해열, 진통	정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50	100
	타이레놀ER		서방정	일반의약품	보건소	·	10
	트리돌	진통	캡슐	전문의약품	유한양행	·	5
항생제	Ceclor		캡슐	전문의약품	보건소	30	20

(3) 외용약품

약 이름	용도	형태	분류	구입방법	사용량	
					상행 카라반	베이스 및 고소캠프
마플러스 나잘스프레이	코감기	스프레이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0	1
오라메디	구내염	연고	일반의약품	보건소	1	
마데카솔	상처치료	연고	일반의약품	보건소	1	2
박트로반	세균성피부질환	연고	일반의약품	보건소	1	
세레스톤지	가려움, 1도 화상	연고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1	0
푸레파레손	치질	연고	일반의약품	구입	0	1
안티푸라민	근육통	연고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1	
안티푸라민S	근육통	로션	일반의약품	유한양행	1	1
제놀쿨	근육통	파스	일반의약품	보건소	10	45
바크로비	입술포진	연고	일반의약품	보건소	1	2
에이플록	다래끼	병	전문의약품	유한양행	1	

(4) 소모품

약 이름	구입방법	사용량	
		상행카라반	베이스 및 고소캠프
종합밴드	보건소	1	2
포비돈	보건소	1	1
과산화수소	보건소	2	0
창상피복재	허환	6	10
탈지면	보건소	1	3
면봉	구입	다수	
비닐장갑	구입	다수	
반창고(7,5cm)	보건소	1	

(5) 기타

이름	구입방법	개수
의료용가위	김미곤	1
핀셋	김미곤	1
전자혈압계	이형모	1
붕대	보건소	6
압박붕대	보건소	6
무릎보호대	허환	2
석고부목	허환	3
팔걸이	허환	2

(6) 개인지급물품

이름	용도	형태	구입방법
선크림	자외선차단	크림	김영필
립크림	자외선차단, 보습	스틱	구입
비타C정		정	유한양행



포터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짝퉁 외과의사 (원정대장)

제5장 부록

1. 파키스탄의 산 (카라코람의 산)

1) 8,000M 급

(1) K2

세계 제2위봉

높이 : 8,611m

위치:카라코람발토로산군

경위도 : 35/53N, 76/31E

카라코람 제2호라는 의미의 'K2'라는 측량기호가 이름이 되버린 세계 제2의 고봉 'K2'는 이를 처음으로 측량한 몽고메리 대령의 이름을 따서 '마운트 몽고메리'라고 부르기도 했고 K2에 도달하려면 발토로 빙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고드윈 오스틴의 이름을 따서 '마운트 고드윈 오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간결하고 독자적인 풍경을 가진 'K2'에 밀려 계속되지 않았다. 지역명으로는 '초고리'(Chogori)라고 하는데 발티어로 '초'는 크다는 뜻이며 '리'는 산이라는 뜻으로 큰 산을 의미한다. 이 이름 역시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발토로 빙하 깊숙히 위치한 콩코르디아(Concordia) 북쪽 끝에 우뚝 솟은 K2는 크게 나눠 북릉, 북서릉, 서릉, 남릉, 남동릉, 남서릉, 북동릉의 7개의 주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K2빙하, 스키양(Skyang)빙하, 마르포퐁(marpophang)빙하, 고드윈 오스틴(Gidwin Austen)빙하, 필리피(Filippi)빙하, 사보이어(Savoia)빙하 등 6개의 빙하에 둘러 쌓여 있는 삼각뿔 형태의 독립봉이기 때문에 주위의 산들과 연봉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 이처럼 K2가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왕처럼 주위를 완전히 압도하며 준엄하게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사람들이 '하늘의 절대군주'라고 부르는 듯 싶다. 주위에 안부 및 연봉이 없는 완전한 독립봉이기 때문에 빙하를 통과하는 기류가 급해 바람이 매우 강하다.

처음으로 'K2'등반을 시도한 것은 1902년이였다. 영국, 오스트리아 합동대에 의한 북동릉으로의 시도였다. 서(西)에서 흐르는 발토로 빙하는 가셔브룽 IV에 부딪쳐서 좌우로 갈라지는데 그곳의 평지를 파리의 광장 이름을 따서 '콩코르디아'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K2의 웅장한 모습이 보인다. 에켄스타인은 발토로 빙하를 거슬러 올라가 K2바로 아래 5,700m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 자코·가르모와 베세리가 6,525m까지 도달했으나 대원들의 부상과 악천후로 퇴각했다.

1909년 이탈리아의 아부룻지(Abruzzi)공작이 이끄는 12명의 대원과 360명의 포터로 구성된 대부대가 후에 아부룻지 능선으로 불리워진 남동릉으로 약 6,000m까지 진출했으나 암벽에 막혀 단념했다. 그 후 1937년, 영국대가 중국으로부터 진출하여 북벽을 정찰했으며, 이듬해에 찰스·휴스턴의 미국대가 무산소로 남동릉 7,925m까지 진출했다. 1939년 후릿츠 비스너가 이끄는 2차 미국대는 무산소로 남동릉 8,380m까지 진출했으나 셀파 3명을 포

함해서 4명이 사망했다.

1953년 3차 미국대는 1차 때의 찰스·휴스턴을 리더로 남동릉을 재시도했으나 악천후와 대원의 부상으로 7,700m에서 퇴각해야 했다. 1954년 아르디토·데지오가 이끄는 이탈리아대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성과를 얻었다. 선배 아부룻지 공이 닦아 놓은 남동릉으로 K2의 정상에 선 것이다. 만전의 준비와 잘 조직된 대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이탈리아대는 팀의 단결된 정신을 존중해서 등정자의 이름을 공표치 않았다. 후에 그들이 아치레·컴파뇨니(A. Compagnoni)와 리노·라체델리(Lacedelli)라는 것을 알았다.

(2) 낭가파르밧 (NANGA PARBAT)

세계 제9위봉

높이 : 8,125m

위치:히말라야산맥북서쪽끝카시미르(편잡히말라야)

경위도 : 35/14N, 74/35E

지구상에서 최대의 절벽의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북서쪽 끝 카시미르(kashmir)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인더스 강이 뒤로는 카라코람(kashmir)과 히말라야의 평행한 봉우리 사이로 600마일이나 멀리 북서쪽을 향해 흐르고, 남으로는 수많은 봉우리들을 지나 평지까지 해발 3,000피트 이상의 거대한 도랑을 새기면서 낭가파르밧의 기본둘레를 형성하고 있다.

'벌거벗은 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곳은 디아미르(Diamir) 즉, '산중의 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다섯 개의 큰 빙하위에 수직 암벽인 루팔벽(Rupal, 4,500m)이 남쪽으로, 디아미르벽(Diamir, 4,500m)이 서쪽으로, 라키오투벽(Rakhiot, 3,400m)이 북동쪽으로 내리 뻗고 그러한 벽위에 북봉, 주봉, 남봉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400m 정상벽을 이루어 장엄하게 서 있는 산이 낭가파르밧이다.

낭가파르밧(8,125m)은 1895년 영국의 등산가 머메리(A.F. Mummery)에 의해서 세계에 그 신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등로주의(머메리즘)의 효시자인 머메리는 알프스의 침봉과 북벽에서 첨예한 등반을 하며 어려운 베리에이션 루트를 개척하는 등 등산에 있어서 벽의 시대를 열게한 록클라이밍의 선구자라고도 칭해진다. 알프스에 대한 등산의 열기가 식어가게 되는 19세기 후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가 히말라야의 오지에 나타나 8천미터봉에 도전을 시도함으로써 등산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1932년 메르클(W. Merkl)이 이끈 독일·미국 합동대는 낭가파르밧의 북쪽을 방문하여 당시로는 미답지인 라키오투 피크에 올라 동릉까지 진출하였고, 1934년 그는 다시 5명의 독일 등반대원과 11명의 셀파로 구성된 원정대를 꾸려 전에 시도한 루트를 따라 7,800m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악천후로 하산도중 9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1937년 카알비인(K. Wien)이 이끈 독일원정대는 등반기간 중 눈사태가 제4캠프를 덮치면서 7명의 포터를 포함한 7명의 대원이 몰사하게 되고, 1938년 바우어(P. Bauer)가 강력한 팀을 구성하여 북면 루트를 공략했으나 역시 실패하게 된다. 1939년 아우프슈나이더(P. Aufschnader)가 이끈 정찰대는 디아미르벽의 2개 루트로 공격하여 각각 약 6,000m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34, 37년의 대참사는 낭가파르밧을 독일인들의 운명의 산으로 만들었고, 1953년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메르클 추모등반으로 7월 3일 헤르만불(H. Buhl)이 낭가파르밧 첫등정을 이루게 된다. 이전 등반에서 철수한 적이 있던 헤르리히코퍼(K. M. Herrligkoffer)와 아첸브르너(P. Aschenbrenner) 리더하에 헤르만 불과 프로이엔베르거(W. Frauenberger) 및 에르틀(H. Ertl)이 정상공격을 맡았다.

(3) 가셔브룸 I (GASHERBUM I)

세계 제11위봉

높이 : 8,068m

위치:파키스탄과중국의국경,카라코람발토로산맥의가셔브룸산군

경위도 : 35/43N, 76/41E

- “제2장 4절 가셔브룸 개요” 참조 -

(4) 브로드피크(BROAD PEAK)

세계 제12봉

높이 : 8,047m

위치:파키스탄,그레이트카라코람,발토로산맥의브로드산군

경위도 : 38/48N, 76/34E

발토로 빙하를 거슬러 올라 콩코르디아(Cincirdia)에 도달하면 고드윈·오스틴 빙하 오른쪽 산들 위로 솟아있는 것이 브로드피크이다. 이 산명의 유래는 알프스의 브라이트·호른(Breithorn)에 있다. 3개의 봉을 가진 모양이 브라이트 호른과 비슷해서 독일어로 '폭넓은 봉'이라는 뜻을 영어로 이름 붙인 것이 브로드피크(Broad Peak)이다. 발티어로 '넓은 눈의 산'이라는 팔첸·칸이(Falchen Kangri)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폭이 넓은 믿음직한 산이다. 왼쪽부터 북봉(7,538m), 중앙봉(8,006m), 주봉(8,047m)으로 이루어진 브로드피크는 K2의 오른쪽에 가로 걸쳐져 있다.

근처의 K2가 1902년에 초등의 도전을 받은 것에 반해 브로드피크로의 초등 도전은 1954년 이전까지는 없었다. 1953년에 낭가파르bat(Nanga parbat)을 초등했던 헤리히코퍼(Herrigkoffer)는 다음해에 카라코람의 산을 등반할 예정으로 장비의 일부를 길기트(Gilgit)에 남겨 두었었다. 그러나 K2로의 허가는 이탈리아로 넘어가 버렸으며, 포터의 스트라이크로 인해 지연되는 바람에 히든피크(Hidden Peak)까지 갈 시일이 없어서 브로드피크(Broad Peak)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인 2명을 포함한 일행 12명은 약 4,000m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 이때가 10월 23일인데 8,000m 봉우리를 오르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였다. 일행이 이름붙인 콩코르디아 빙하를 올라 주봉과 중앙봉 사이의 골로 계속되는 설전(빙하 상류의 만년설)으로 등반을 시작했다. C3(6,300m)까지 설치했으나 악천후로 6,900m에서 단념했다.

3년 후인 1957년 6월, 단 4명으로 구성된 오스트리아대가 브로드피크에 도전했다. 고드윈·오스틴 빙하의 브로드피크 서릉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4,900m)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으며, 루트는 전번의 독일대가 시도했던 남서빙하를 피하고 서릉을 택했다. C1(5,800m), C2(6,400m), C3(6,950m)만을 설치하고 단번에 정상에 오르는 방식을 취한 이들은 두차례의 정상공격으로 브로드피크의 초등정을 이루었다.

(5) 가셔브룸 II (GASHERBRUM II)

세계 제13위봉

높이 : 8,035m

위치:파키스탄과중국의국경,카라코람발토로산맥의가셔브룸산군

경위도 : 35/45N, 76/39E

- “제2장 4절 가셔브룸 개요” 참조 -

2) 카라코람의 산 (7,000M 급)

카라코람에는 8,000M급 산들이 4개 - K2(8,611M), 가셔브룸 I (Gasherbrum I 8,068M), 브로드 피크(Broad Peak, 8047M), 가셔브룸 II(8,035M)가 있으며 그들은 모두 발토로 무즈타그에 위치한다. 이외에 7,501M ~ 7,999M 범위에 속하는 봉우리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총 29개고 7,001M ~ 7,500M 사이의 봉우리 수는 대략 102개이다. 7,000M 이하의 봉우리들은 셀 수 없을 정도지만 여기서는 이미 잘 알려진 8,000M급 산들은 제외하고 7,000M급 산들을 위주로 하여 개략적 소개만을 싣는다.

(1) 바투라 무즈타그 (Batura Muztagh) 산군

이 산군은 8,000M급 봉우리가 즐비하게 늘어선 발토로 빙하(Batura Gl.) 유역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그 높이가 정확하게 측정된 바투라 주봉(Batura I)을 위시하여 ‘어린산’으로 불리는 캄피레 디오르(Kampire Dior)등 7,000M급의 매력있는 산들이 많다. 이들은 바투라 빙하(Batura Gl.), 빠수 빙하(Pasu Gl.), 카람바르 빙하(Karambar Gl.) 유역에서 그 고고함을 지키고 있다.

이 산군은 카라코람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의 칠린지 고개(Chillinji An, 5,291M)와 북쪽의 차푸르산강(Chapursan R.), 동쪽과 남쪽의 훈자강(Hunza R.), 서쪽의 카람바르강(Karambar R.)이 경계가 되고 있는데, 그 중 카람바르강은 힌두 쿠쉬 산맥(Hindu Kush Range)과의 구분선이다. 1974년에 파키스탄 정부가 카라코람 전 지역에 내려있던 등산 금지령을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해체함으로써 쉬스파레(Shispare), 바투라 주봉, 캄피레 디오르 등과 같은 주요 산들이 연이어 등정 되었으나 아직도 등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산들도 많고 게다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도 있다. 다음은 바투라 무즈타그에 위치한 주요 산들이다.

(2) 하스파 무즈타그 (Hispar Musztagh) 산군

메이슨(Kenneth Mason)은 하스파 빙하와 심샬강(Shimshal R.) 사이에 있는 산괴를 통틀어 하스파 무즈타그로 분류하고 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디스테길 사르(Distaghil Sar, 7,885M)의 동쪽에서 두 줄기가 직각으로 15km나 남하하는등 배치가 복잡하며, 주맥으로부터 파생된 빙하도 길고 다양하며 내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빙하 입구로부터 산들을 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디스테길 사르나 쿤양키쉬(Khunyang Chhish, 7,852M)등의 봉우리조차 최근에야 정확하게 측량되었다. 다음은 하스파 무즈타그에 위치한 주요산들이다.

(3) 판마 무즈타그(Panmah Muztagh) 산군

비아포 빙하는 비아포 강 빙하(Biafo Gang Gl.)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Gang’은 빌티어로서 ‘빙하’를 의미한다. 이 빙하는 그 끝이 브랄두강(Braldu R.)에 닿아 있으며 발토로 빙하의 전진 기지로 유명한 아스꼴리로부터 출발하여 반나절이면 그 초입에 도달할 수 있다. 빙하의 초입에는 빙하 바닥과의 고도차가 3,000M인 불라(Bullah, 6,294M)가 주변의 산들과는 색다른 모습으로 솟아 있으나 등산할 만한 곳은 아니다.

이 산을 오른쪽으로 두고 빙하 위를 걷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은 굴곡이 심한 모레인의 무늬를 따르게 된다. 소브랑(Soblang)부근에 도착하면 폭이 넓고 경사도 완만한 얼음 벌판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광대한 비아포 빙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비아포 빙하를 상하로 나누는 중간점에 해당하는 바인타(Baintha)까지는 여름이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기에도 눈이 없기 때문에 포장 도로 위를 걷는 듯한 가벼운 기분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 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불라, 동바르(Dongbar, 6,282M)등 6,000M급 산을 몇 개 만나지만 이들은 그다지 등반 의욕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다.

2. 파키스탄 입산 규정

I 입산허가신청의 절차

1. 파키스탄에 소재한 봉우리의 등반을 원하는 외국 원정대는 '부록A'의 소정의 신청서 2부를 관계국의 가장 가까운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산료 영수증의 사진이 첨부된 신청서 1부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관광국 F-7/2로 직접 발송되어야 한다.
2. 봉우리의 지정을 위한 신청서는 원정대가 계획하는 원정 1년 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파키스탄 대사관/영사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3. 위에서 언급된 파키스탄 대사관/영사관에 접수된 신청서는 파키스탄 관광국으로 즉시 보내져서 '선착순'으로 처리된다.
4. 규정된 날짜 후나 전에 접수된 불완전한 신청서 양식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다.(거부된 수가 있다.)
5. 만일 어떤 원정대가 기간의 구성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정대 대원명단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이 사실 그대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시로 봉우리가 예약된다. 공식적 허가서는 '부록 B'의 양식으로 명단이 원정대가 파키스탄 도착 적어도 3개월 전에 파키스탄 관광국에 접수된 후에 한해서 발급된다. 만일 새로운 대원의 명단이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접수되지 않고 대원들이 파키스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원들의 입산허가가 약 1주일 전에 취득될 때 까지 입산출발이 지연된다.
이런 절차로 만일 공식적 허가서를 받지 않고는 원정대가 파키스탄으로 출발할 수 없다. 어느 등반자도 한 시즌 동안에 한 개 이상의 원정대 멤버가 될 수는 없다.
6. 원정대는 우선순서대로 적어도 3~4개 봉우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등정이 가능한 봉우리가 배당될 수가 있다. 8,000미터 이상 봉우리의 등반을 위한 특별허가는 파키스탄 문화, 스포츠 및 관광부의 장관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특별허가서가 발급된다.)
7. 파키스탄 관광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원정대에게 등반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선택된 기간동안 봉우리 등정가능성 여하에 따라서, 파키스탄 관광국은 완전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봉우리에 대한 임시 예약서를 보내 준다.
8. 파키스탄 정부는 같은 시즌에 한 개의 원정대 이상에서 어느 루트를 통한 어느 특정 봉우리를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II. 취소

9. 파키스탄 정부는 아무 이유 없이도 어느 봉우리의 배정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 경우에 적립된 입산료는 환불된다.
10. 어느 원정대가 자기를 자신의 이유로 해서 등반계획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할 경우에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파키스탄 관광국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된 입산료는 환불 혹은 파키스탄에서의 다음의 등반에 이월되지도 않는다. 동일등정시즌 동안의 예약기간의 변경은 개정된 날짜 동안에 봉우리/루트의 활용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III. 등반에 관한 보고 및 하산보고

11.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에 도착 즉시 원정대는 관광국에 관련 공무원들을 반드시 만나서 연락관과의 회의의 회의 주선, 보험, 식량 구입 및 유사한 사항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끝난 후, 원정대장은 공식보고의 일자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원정대장은 금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12. 하산한 원정대장은 관광국의 관련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무원에게 통보해 줌으로서 하산보고 날짜를 배정받아야 한다.
- ※ 주의사항 : 어느 원정대도 공식보고가 없이는 입산할 수 없으며 또한 공식적 하산보고 없이는 파키스탄을 떠날 수가 없다.

IV. 연락관

- 13.원정대는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지정된 적어도 한 명의 정부연락관을 원정대의 대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14.이슬라마바드에서 원정일자 보고에서부터 원정대가 하산보고를 한 날까지원정대의 식량, 숙박비 및 수송비 일체를 원정대가 지불해야 한다.
- 15.원정대가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에 체류하는 동안에 정부연락관은 1일 미화로 30달러의 급료를 받게 된다. Skardu나 Gilgit와 같은 파키스탄 북부지역에 소재하는 도시에서의 연락관은 1일 숙박비와 미화 15달러를 지급 받는다.
- 16.정부연락관은 원정대의 다른 대원과 같이 자기의 개인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 17.정부연락관은 루트 및 지역관습에 대해 자문을 요청받게 되며 또한, 필요시에 수송, 숙박 및 식량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된다. 그러나, 원정대장이 연락관의 의견일치가 없을때는 원정대장은 의견의 불일치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연락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8.연락관은 구매시에 원정대에 최대한 도움을 지원한다. 그러나, 원정대장을 위해 현금을 취급 할 수 없으며 또한 재정적거래도 할 수가 없다.

V. 키트 및 장비

(i) 정부연락관을 위한 장비

- 19.정부연락관은 원정대장과의 합의하에 혹은 적어도 베이스 캠프까지 원정대가 이슬라마바드에서 하산보고를 위해 원정대와 함께 하산할 때까지 원정대와 동행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원정대는 연락관이 아무런 위험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부록 C’에 명시된 필요한 용구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20.연락관을 위한 용구/장비는 미리 원정대에 보내진 치수에 준하여 제공되어야한다. 만일 원정대가 파키스탄으로 출발전에 원정대가 연락관의 치수를 접수하지 못 하는 경우에 원정대는 표준의 용구나 장비를 가져와야 한다. 셔츠나 청바지는 사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키스탄 현지에서 구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 저소포터를 위한 장비

- 21.저소포터는 베이스캠프(해발 5,500미터)까지 원정대와 동행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원정대는 저소포터에게 ‘부록 D’에 명시된 표준의 용구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 22.만일 저소포터가 5,500미터(동행을 제외하고) 이상까지 동행해 줄 것을 원정대에 의해 요구 받게 될 경우는 저소포터는 ‘부록 E’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고소포터의 용구과 장비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 23.요리사는 고소포터의 용구과 장비를 제공 받는다. (등반도구는 제외된다.)

(iii) 고소포터를 위한 장비

- 24.원정대는 고소포터가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부록 E’에 명시된 표준의 용구와 장비가 무료로 고소포터에게 제공된다.

(iv) 통신을 위한 장비

- 25.원정대는 워키 토키(walkie talkie), 라디오/트랜지스터, 고성능의 송신기와 같은 합당한 통신장비를 산에서 본부지역으로 통신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 (지정된 선택적주파수 : 5201 KHZ, 6996 KHZ, 10282 KHZ, 15951 KHZ & 16411 KHZ 가운데 하나 선택)

(v) 일반

- 26.포터용 용구/장비는 카라반(등반)개시에 앞서 정부연락관의 입회하에 전달되어야 한다.
- 27.만약 원정대로부터 지급받은 용구/장비가 불충분하거나 표준의 품질이 아닌 것이 정부연락관이나 포터에 의해 발견될 시에는 원정대가 목적지로의 출발이 어느 누구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

를 떠나기 전에 연락관에게 지급된 용구/장비가 완전하고 요구된 규격품이며 반환할 수 있고 또한 자켓, 바지, 셔츠, 장갑, 양말, 모자, 접근행군 부츠(approach march boots), 폴오버(머리에서 뒤집어 입는 스웨터), 배낭(ruck sack), 슬리핑 백과 같은 개인적사용의 품목들이 연락관에 의해 잘 보유하고 있는지를 연락관은 본인 스스로 확인해서 만족해야 한다.

- 28.통신장비의 사용 : 원정대는 적절한 통신장비를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락관도 역시 적절한 통신장비를 지급받게 된다. 원정대에 의해 사용되게 되는 통신장비의 허가 취득은 필수적이며, '부록 K'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듯이 적시에 잘 공시되어 있어야 한다.

VI. 키트/장비의 반입/반출

29.원정대에 의해 파키스탄으로 반입된 장비, 소모품, 비소모품들은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 a. 장비와 비소모품이 원정대장에 의해 지급되어 원정에만 사용된다는 조건부는 이곳에서 부과되는 통관세와 판매세가 임시로 면제받을 수 있으며('부록 F'), 장비들은 소정의 보관료와 동시에 파키스탄 밖으로 재반출 할 수 있으며, 장비의 어떤 부품도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으며, 만일 규정을 어길 경우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 b. 소모품과 의약품이 원정대장에 의해 지급되어 원정에만 사용된다는 조건부로 이곳에서 부과되는 통관세와 판매세가 임시로 면제되며('부록F'), 소모품과 의약품은 반입되었을 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지게되며, 파키스탄 내에서의 판매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규정을 어길 경우에 판매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모되지 않았든 소모품 및 의약품은 소정의 절차 후 파키스탄 밖으로 재반출 될 수 가 있다.
- c. 소모품이나 의약품 등등의 인증이 정부허가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나 공식적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0.원정대는 위에서 언급된 '부록F'의 사본 3부를 장비목록 사본 3부와 함께 파키스탄 관광국으로 제출한다. 본 목록에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광국은 사본 1부를 서명하여 봉인해서 원정대에 되돌려준다.

다른 1부는 원정대가 파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장비를 통관하는 세관에 보내지게 된다.

31.원정대가 장비의 일부를 미리 파키스탄에 보낼 경우에는 관광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위에서 언급된 '부록F'의 신청서 사본 1부와 동봉물을 함께 원정대에 의해 지정된 통과 및 운송을 담당할 대리인에게 보내지게 된다.

32.장비의 통관이 끝나면 대리인은 원정대가 도착하여 장비가 원정대에 전달될 때 까지 장비의 운송, 보관 및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만일 해당지역에 물품입시세(octroi)가 있다면 대리인이 지불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관광국의 담당자와 논의해야 한다.

VII. 포터의 임금, 운송비 및 임대료

33.포터의 임금 및 동물이나 기계적운송의 비용에 대한 대충의 의견이 공식적 허가서와 함께 원정대에 전달된다.

34.포터의 고용임금의 지불은 포터가 해고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일 포터가 선불금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연락관이나 가이드의 입회하에서나 영수증을 받고 선불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35.일일급료에 추가해서, 포터가 고용된 날로부터 해고되는 날까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대로 '부록 G'에 준해서 저소포터에게 식량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식량 대신에 돈을 줄 수도 있다.

36.위와 동일하게, 고소포터에게도 그가 5,500미터 이상 등반하는 날로부터 '부록 H'에 준해서 무료 식량이 제공된다.

37.질병/부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터가 일을 하지 않는 날에 일일급료가 지불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정대가 휴식일을 원하는 경우에는 포터에게 전시간 임금 및 기타가 지급되게 된다.

38.악천후로 인해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 원정대는 포터에게 전시간 임금과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악천후시의 운행여부의 결정은 원정대장의 권한이지만, 정부연락관이 기상조건이 지나치게 나빠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원정대장에게 운행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원정대장이 정부연락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정대장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정부연락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9.7일 이상 원정대와 동행하는 포터에게 전시간 임금과 함께 7일째 되는 날에 하루 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VIII. 보험

- 40.정부연락관은 300,000루피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된다. 정부연락관이 부분적 불구(장애)가 될 경우에는 보상법에 공시된 대로 불구 퍼센트의 비율에 준해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 41.고소포터는 200,000루피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되며, 포터가 장애자가 될 경우에는 공인외과의사의 진단에 준해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 42.저소포터 100,000루피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되며, 포터가 장애자가 될 경우에는 공인외과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 43.보험보증금은 파키스탄의 회사를 통해서 지불되어야 하며, 원정대의 요청이 있을 시는 파키스탄 정부는 편의를 위해 원정대를 지원할 수가 있다.

IX. 치료

- 44.의사/응급치료사의 의견에 따라서 만일 발병한 포터나 부상당한 포터를 산에서부터 Gilgit, Skardu, Chital 과 같은 지역본부까지의 후송이 필요한 경우 원정대는 헬리콥터나 다른 후송수단에 의한 후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터가 중병이고 후송이 불가능하다고 정부연락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연락관은 원정대장에게 후송을 위한 조치를 요청 할 수가 있다. 원정대장과 정부연락관과의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시는 원정대장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정부연락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언급된 이유서가 의사/응급치료사가 참조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 45.동일한 상황에서 정부연락관의 후송 및 질병/부상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드는 비용은 원정대가 책임지지 않는다.
- 46.산에서의 질병/부상이나 입원동안 지역본부를 떠나서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로 가는 날까지 원정대는 포터에게 일일임금의 반을 매일 지급해야 한다.
- 47.일반적으로 파키스탄 병원에서의 외과수술을 포함해서 의료편의 시설은 무료로 제공된다. 만일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 얼마간의 치료비를 수반할 경우에 원정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터/요리사 혹은 다른 고용인의 사망 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부터 고용한 지역까지 사체의 운반을 원정대가 책임을 지게 된다.

X. 입산료(로열티)

- 48.파키스탄 소재의 여러 종류의 높은 봉우리를 등반하는데 소요되는 입산료는 아래와 같다.

봉우리 높이	입 산 료	원정대의 구성대원 7명을 초과시 추가되는 1명당 입산료
1. K-2(8,611M)	\$ 12,000	\$ 3,000
2.8,001~8,500M	\$ 9,500	\$ 3,000
3.7,501~8,000M	\$ 4,000	\$ 1,000
4.7,001~7,500M	\$ 2,500	\$ 500
5.6,000~7,000M	\$ 1,500	\$ 300

위에 명시된 입산료는 정기적인 개정이 있을 수 있다.(※ 현요금은 1999년에 변경)

만일 원정의 수가 한 개 봉우리 이상일 경우는 추가된 수 만큼의 다른 봉우리를 등반하기 위해서 역시 입산료를 지불해야 한다.

- I 주의사항 : 원정대는 봉우리 예약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시에 가장 가까운 대사관/영사관 및 파키스탄 정부의 관광국에 입산료의 전액을 예치해야 한다.
- I “등반 및 트레킹으로 얻어지는 입산료/트레킹료와 관련된 수취(입산료징수)의 계정을 위한 요금, 벌금, 과태료에 관한 법령 제 1391조에 근거함.
- 49.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은 원정대에 발급한 입산료영수증 사본 1부를 파키스탄 관광국으로 발송해야 한다. 입산료 총액, 발급된 영수증번호, 영수증의 날짜가 양식의 오른쪽에 분명하게 명기 되어야 한다.
- 50.원정대는 시도하게 되는 봉우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원정대가 지원한 우선순위

보다 낮은 봉우리가 배정되고, 원정대가 보다 높은 봉우리의 등반지를 배정받게 되는 경우에, 원정대는 입산료의 차액을 파키스탄 관광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치시켜야 한다. 입산료 차액이 지정된기간 이내에 예치가 안되는 경우는, 원정대의 등반지 배정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등반 예정지의 배정이 취소된 원정대에게 이미 납부된 입산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51.원정대의 우선순위가 보다 높은 봉우리의 배정을 지원했지만, 우선순위에서보다 낮은 봉우리를 배정받게 되는 원정대에게는 파키스탄 대사관/영사관에서 파키스탄 관광국의 위임장을 받아 입산료차액을 돌려주게 된다.

52.등반 예정 봉우리가 원정대가 신청서에 언급한 봉우리 가운데 하나일 경우에 원정대는 봉우리의 배정을 수락할 의무가 있다. 봉우리의 배정을 거부하는 경우 입산료의 전액이 몰수당하게 된다.

53.만일 원정대가 원정대에 의해 제출된 봉우리 목록안의 우선순위를 표시하였으나 모든 봉우리가 이미 다른 원정대에 배정되었다면, 원정대는 그 이외의 다른 곳으로의 등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입산료의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54.파키스탄 대원이 포함된 외국원정대나 외국인대원을 포함한 파키스탄 원정대도 봉우리를 배정받기 위해서 입산료의 전액을 예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입산료의 50%가 할인되며, 이에 따른 입산료차액은 차후에 반환된다.

I 주의사항 : 외국원정대의 대원으로 등반이 가능한 파키스탄인의 자격은 파키스탄 관광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산악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광국에 등록된 산악회는 외국인대원을 포함해서 원정대를 조직할 수가 있다.

XI. 사진촬영

(i)항공사진

55.북부지방과 Chitral지방에서의 항공사진은 조종사나 정부연락관에게 신고한후에 촬영이 허가된다.

(ii) 정물사진(스틸사진)

56.원정대는 파키스탄 체류중 다음과 같은 대상물을 촬영할 수가 없다.

- I 육해공군의 군사시설
- I 함선/함대, 대포, 탱크, 차량, 항공기, 병기와 같은 군대의 장비
- I 공항 및 공항에 인접한 건물 및 시설물
- I 원주민여자들
- I 기타 고시된 금지지역 및 장소

(iii) TV포함한 상업광고의 촬영

57.업급된 촬영 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정상 등정을 시도하는 원정대는 외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국경지대에서 10마일 지역과 30마일 지역에서 정부연락관의 직접 감시하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촬영 할 수가 있다.

58.이런 목적을 위해 원정대는 학술적관심의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사진사를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정대에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상업광고를 촬영하려는 전문사진사가 원정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부연락관 한 명이 추가로 원정대에 동행하여 원정대에 대한 정부 연락관의 임무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상업광고의 촬영을 감시감독하게 된다.

이런 협약하에서 전문사진사는 협약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59.촬영된 필름을 파키스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파키스탄의 방위시설, 기타 촬영금지된 지역/장소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정부연락관으로 부터의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한해서만이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60.정부연락관은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대상물을 원정대에게 통보한다. 주요시설물들이 촬영되고 있음을 연락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연락관은 사진사로 하여금 사진촬영 및 영화필름 촬영을 금지시킨다. 만일 사진사가 연락관의 충고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1923조에 의거 내에서, 사진사를 고소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보고되어 지게된다.

61.파키스탄 나머지 지역내에서 촬영된 정물사진, 상업필름, 학술적흥미의 영화는 항목 54와 항목 58에서 언

급된 제한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62.촬영에 대한 허가는 원정대가 학술적관심이나 상업적 관심으로 촬영한 사진 및 필름의 사본 각 1부씩 무료로 파키스탄정부에 제공한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XII. 합동원정대

(i) 파키스탄 대원이 포함된 외국원정대

63.파키스탄이 대원이 포함된 합동원정대는 입산료 총액의 5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 파키스탄 대원의 수가 원정대장을 포함한 원정대의 외국인의 전체수의 반(1/2)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관광국은 파키스탄인의 대원수를 외국대원수의 1/3까지도 할인혜택을 줄 수가 있다.

64.그러나 파키스탄 대원의 수가 전체 외국인 대원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 파키스탄 원정대와 외국원정대의 합동원정대를 구성할 수 없다.

65.외국원정대는 파키스탄 산악회를 통하여 해당기준에 준하여 추천받은 경험많은 대원들의 신상명세서 각 5부씩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6.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원정대장은 외국인으로 정하고 부대장은 파키스탄인으로 정한다.

(ii) 외국인 대원이 포함된 파키스탄 원정대

67.외국인이 대원으로 포함된 파키스탄 원정대는 등반 예정지의 등급에 준하여 납부해야할 입산료의 50%를 지불한다. 이런 경우에 외국인 대원수는 파키스탄 대원수를 초과하지 못하며, 파키스탄 전체 대원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대원수가 단 한 사람일 경우 이런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

68.파키스탄 원정대는 '부록 A'와 함께 외국인대원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5부씩을 '부록 B'의 추가서류 양식에 준해서 파키스탄 관광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은 외국인대원이 파키스탄에 입국하기 최소한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9.이런 절차를 통하여 구성된 합동원정대의 대장은 파키스탄인으로, 부대장은 외국인으로 한다.

70.파키스탄 대원들 포함한 외국원정대와 외국인대원을 포함한 파키스탄 원정대의 경우에 모두 정부연락관 한 사람을 필히 동행해야 한다.

71.파키스탄 대원들만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입산료가 면제되지만, 여타 다른 원정대와 마찬가지로 원정대장을 포함해서 전 대원의 신상명세서를 '부록 I'의 양식에 준하여 파키스탄 관광국에 제출해야 한다.

72.이러한 절차로 구성된 정상을 등반하는 외국인이나 파키스탄인은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시기와 조건에 관한 관련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73.두 개의 합동원정대만이 매년 선착순으로 등반을 허가받게 된다. 이런 합동원정대는 파키스탄 스포츠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한 산악회에 의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XIII. 사고/조난

74.등반 도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정대장은 정부연락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연락관은 사고 사실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역의 지방행정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75.파키스탄 군부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연락관은 적절한 조치를 주선할 수 있는 지방행정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76.만일 헬리콥터가 필요시는 원정대가 소요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행정관은 헬리콥터 지원을 주선해 준다. 등반 원정대는 미화 \$4,000한도의 구조작전기금을 보증해야 하거나, 파키스탄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보증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관광 알선자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을 하지 못할 시는 파키스탄에서의 산정상의 등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77.대원의 사망 시는 정부연락관은 사고지역을 떠나기 전에 지방행정관으로부터 필요한 사망증명서를 손에 넣어야 한다.

78.저소/고소 포터의 사고시/사망시에도 위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추가로 정부연락관은 그 이외의

- 보험혜택을 위해서 장애나 사망과 관련된 증명서를 국가공인의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 79.정부연락관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는 원정대장이 해당지역의 지방행정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행정관은 군당국과 관광국에 차례로 보고한다.

XIV. 환전

- 80.원정대는 필히 공인된 은행이나 환전상을 통해서 외국환을 환전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환전 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해당은행이나 환전상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 81.파키스탄 루피를 덜 쓰고 남게될 경우 원정대는 한 사람 당 500루피의 한도까지 공정한율의 적용을 받아 외국환을 취급하는 지정된 환전창구를 통해서 재환전할 수가 있다. 재환전하고자 하는 금액이 한도범위를 초과 시는 환전은행을 통해 파키스탄 국립은행의 해당 환전취급의 담당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
- 82.원정대가 외국환을 파키스탄 루피로 환전할 수 있는 곳은 Rawalpindi, Islamabad, Gilgit/Skardu, Chitral 지역이다. 등반 개시 전에 위에서 언급된 지역의 은행에 환전에 따른 잔액이나 예약금을 예치해야 한다.
- 83.국가공인은행 및 환전상을 통하지 않은 환전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947조'에 의거해서 위법으로 간주된다.

XV. 보안수칙의 준수 및 출판물의 조건

- 84.원정대는 신청서에 명기된 대로의 목적에 준하여 등반 활동이 가능하다.
- 85.원정대는 종교적취지에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사회적, 도덕적 관습 및 전통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도 임의대로 할 수 없다.
- 86.어떠한 경우에도 원정대는 한 지역 이상 및 한 봉우리 이상의 등반을 할 수가 없다.
- 87.역시 원정대는 다른 봉우리에 이르는 루트를 경유해서 봉우리 등정을 할 수가 없다.
- 88.등반도중에 원정대는 몇 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눌 수가 없다. 단지 비상시에는 정부연락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가능하다.
- 89.비상시나 혹은 정부연락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정대는 지정된 루트를 벗어나서 등반을 할 수 없다.
- 90.신청에 의해서 원정대가 지급받은 지도 등의 지원물품은 원정대가 파키스탄을 떠나기 전에 정부연락관을 통해서 파키스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지도 등의 사용을 위해 원정대는 명목상의 사용료를 정부에 지불해야 하며, 지불된 돈은 반환되지 않는다.
- 91.등반활동 도중에 수집된 세밀한 지형학적 자료의 사본을 정부연락관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 92.과학적 목적을 겸한 등반이나 전적으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을 위한 원정대는 모든 조사자료, 표본 및 수집물들을 파키스탄 당국의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93.등반활동을 통해 수집된 그런 자료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국외로 반출이 금지된다.
- 94.원정대장은 수집한 모든 표본 및 자료들을 파키스탄 정부에도 역시 제출해야 한다.
- 95.또한 준비된 모든 연구논문들이나 서류들은 그 사본이 파키스탄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XVI. 환경보호규약

- 96.산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다음의 항목들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 97.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원정대는 환경보호기금의 명목으로 미화 \$20 혹은 이에 상당하는 파키스탄 돈으로 기부해야 한다. 이런 기부금을 예치하기 위한 예치금의 제목은 "관광국 130000-139000의 예치금"이 된다. 이 금액은 파키스탄 국립은행이나 국립은행의 지점에 원정대가 파키스탄에 도착 후에 원정대에 의해서 예치되어야 한다.
- 98.등반원정대는 환불 가능한 미화로 \$1,000혹은 이에 상당하는 파키스탄 화폐로 예치해야한다. 만일에 원정대나 어느 대원이 환경에 피해를 줄 경우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환경피해를 보상하는데 사용되어지게 된다.
- 99.원정대는 캠프자리를 깨끗이 하고 떠나야 한다. 하산하면 캠프자리의 상태가 수칙을 잘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정부연락관이 발급하게 된다.
- 100.원정대나 포터는 숲이나 동물이 많은 지역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산 시는 머물렀던 지역의 상태가 원

- 정대게 의해서 완벽하게 환경보호수칙을 잘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정부연락관이 발급하게 된다.
- 101.만일에 어떤 정부연락관이 허위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규에 의거해서 그 문제를 고소 할 수 있는 연락관을 파견한 당국에 보고를 하게 된다. 민간 연락관이나 가이드의 경우에는 4년 동안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102.이러한 법규(항목 101)를 위반 할 시에는 원정대나 모든 대원들은 4년동안 파키스탄으로의 등반원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추가해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고소를 당 할 수가 있다.

XVII. 기타

- 103.원정대는 지방행정당국을 통해서 포터를 고용해야 한다.
- 104.저소포터는 짐을 최대 25kg까지 운반할 수 있다. 포터는 하루에 매일 10km에서 최대 13km의 거리를 행군하며, 1시간 당 5-10분 동안 적당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만일에 하루 동안 지정된 10-13km에 이르지 못한 채 도중에 전통적 종교의식일의 밤을 맞게 되면, 포터는 하루를 머물 수 있으며, 모자라는 거리는 그 다음날 보충한다.
- 105.고소포터는 산의 높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최대무게의 짐을 운반한다.
- a. 5,001M ~ 6,000M ----- 최대 20kg
 - b. 6,000M ~ 7,000M ----- 최대 17kg
 - c. 7,001M ~ 8,000M ----- 최대 14kg
 - d. 8,000M 이상 ----- 최대 12kg
- 106.베이스캠프 이상을 전진해서 짐을 운반하는 동안 포터는 한 캠프에서 다른 캠프로 한번 이상 이동할 수 없다. 이런 이동은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정대장은 산의 위치와 지형 및 눈사태 가능지역을 신중히 참작하여 베이스캠프 이상의 전진캠프를 설치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총지휘하게 된다.
- 107.'부록 J'에 명시된 대로 포터는 올바른 행위를 실행하고,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는 보장 서명을 하고, 사본 1부는 지방행정 담당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원정대장이, 세 번째 사본 1부는 포터 본인이 보관한다.
- 108.원정에 필요한 물품의 수송 및 수용시설의 원만한 사용을 위한 시간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원정대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바로 그 날짜에 도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 109.원정대가 입산허가서를 받는 즉시로 가장 가까운 파키스탄 항공사(PIA)나 다른 항공사에 연락해서 다음 사항들을 접수시키고, 라왈핀디에서 북부의 산악지역이나 ,Chitral까지의 장비수송이나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 a. 원정대원의 수
 - b. 수송하게 되는 장비의 총중량
 - c. 라왈핀디 북부지역/Chitral간의 취향예정일
- 110.북부지역이나 Chitral까지의 비행이 기상조건으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으며, 파카스탄 항공사나 다른 항공사에서 정확한 비행예정일을 제시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원정대는 PIA나 다른 항공사에 접수된 위의 정보를 해당기관, 북부지역, PIA항공사의 관계자, Rawalpindi에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
- 111.원정대는 Rawalpindi 및 북부지역/Chitral에 각각 2주-3주 동안 머물 준비를 하고 오게 된다. 이런 경우 날씨가 갑자기 악화된다.
- 112.원정대는 상급관리가 항시 있는 경찰서의 외국인등록 담당관에 자체 등록을 반듯이 마쳐야 하며, 등반을 떠나기 전에 Rawalpindi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출국 시에는 Rawalpindi/Islamabad에서 출발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등록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113.영어 상용 국가가 아니 나라에서 오는 원정대는 언어장애크 극복하기 위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원을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 114.원정대는 정부연락관이나 포터에게 돼지고기와 같은 금지된 음식이나 여타 금지된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I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동계원정의 시기 및 조건

A. 정부연락관(L.O.)

정부연락관의 시기 및 조건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목 IV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용구 및 장비 : 용구(키트) 및 장비는 $-35^{\circ}\sim -40^{\circ}\text{C}$ 의 극도의 기온에도 견딜 수 있는 제품 및 품질이어야 한다.

B. 포터(Porter)

포터의 시기 및 조건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목 VII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i)식량 : 식량의 규모는 '목록 H'의 등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저소포터 및 고소포터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ii)용구 및 장비 : 고소포터의 용구 및 장비는 '부록 E'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며, 장비는 $-35^{\circ}\sim -40^{\circ}\text{C}$ 의 기온에서 견딜수 있는 품질이어야만 한다.

(iii)임금 : a. 저소포터 : 일일당 식량 대신에 정상 여름 임금 +50루피의 2배

b. 고소포터 : 일일당 식량 대신에 정상 여름 임금 +50루피의 2배

C. 기타

a. 저소포터는 베이스캠프까지 최대 20kg 무게의 짐을 운반 한다.

b. 고소포터는 최대 12kg 무게의 짐을 운반 한다.

등반원정대를 위한 신청서양식

1. 원정대의 국가
2. 원정대 명칭
3. 원정대 대장이름
4. 원정의 특성(다음 중에 적용되는 곳에 표시를 하라.)
 - 스포츠
 - 과학적조사연구 목적을 포함한 스포츠
 - 전적으로 과학적조사연구목적
5. 만일 스포츠 및 과학적조사연구 목적을 포함한 스포츠인 경우
(다음중에 적용되는 곳에 표시하라.)
 - 전적으로 등반목적
 - 과학적연구 목적을 포함한 등반
- * 주의사항1 : 만일 추가설명이 필요시 신청서에 첨부 될 수가 있다.
6. 전적으로 과학적연구의 목적이면, 적용할수 있는 곳에 표시하라.

1. 지질조사연구	2. 지형학적인 조사연구
3. 동물학적인 조사	4. 식물학적인 조사
5. 의학적인 조사	6. 기타 목적(상세히 설명 요망)
7. 도착/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파키스탄 입국 예정일
 - 도착지 이름
 - Rawalpindi/Islamabad에 도착 예정일
 - 등반후 Rawalpindi로 귀환 예정일
8. 전체 대원수
 - 대장을 포함한 대원수
 - 예비대원(후보대원)
 - 전체수
- * 주의사항2 : ‘부록B’에 원정대장 및 예비대원을 포함해서 대원 개개인의 신상명세서를 첨부하라.
9. 필요한 수송 및 포터

- 지프(Jeeps) -----	대수
- 추레라(Trailer) -----	대수
- 동물 -----	마리
- 저소포터 -----	명
- 고소포터 -----	명
- 10.등반하게 되는 봉우리(정상)의 특징
 - I 우선순위로 적어도 4개의 봉우리를 기입하라.
 - I 확인을 위해 다음을 첨부하라.
 - 지역지도
 - 루트지도(중요한 장소를 확인하기 바람)
 - I 우선순위 1
 - (i) 봉우리의 이름
 - (ii) 산의 높이
 - (iii) 위도
 - (iv) 경도

(v) 봉우리 경계지역으로부터 거리

(vi) 채택 되어지게 되는 루트(등반이 예정되는 봉우리까지 중요한 마을, 장소, 지형 및 리지를 꼭 확인하기 바람)

(vii) 베이스캠프의 위치

(viii) 봉우리가 처녀봉 입니까? Yes No

(ix) 처녀봉이 아니라면, 그 봉우리를 등정했던 모든 원정대의 이력서를 첨부하라.

등정된 연도 및 원정대원들의 이름을 확인하라.

- * 주의사항3 : 카라코람 산맥에 소재하고 있는 봉우리의 배정을 신청한 지원자들은 힌두쿠시 산맥의 한 개 봉우리를 양자택일 할 수가 있다.

I 우선순위 2-4

각각의 봉우리에 대해 위의 항목 (i)에서부터 (ix)까지 기입하라.

11. 파키스탄 대원이 포함된 외국원정대 입니까? Yes No

12. 만일 그렇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라.

(i) 부대장을 포함한 전체 파키스탄 대원수

(ii) 예비대원의 수

(iii) 전체 대원의 수

- * 주의사항4 : 부대장 및 예비대원을 포함한 파키스탄 각 대원의 신상명세서를 '부록 I'에 첨부하기 바란다.

13. 외국인대원이 포함된 파키스탄 원정대입니까? Yes No

14. 만일 그렇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기입하라.

(i) 파키스탄인 부대장을 포함한 외국인 대원수

(ii) 예비대원의 수

(iii) 전체 대원의 수

- * 주의사항5 : 부대장 및 예비대원을 포함한 외국인대원의 신상명세서를 '부록 B'에 첨부하기 바란다.

- * 주의사항6 : 항목11 ~ 항목14까지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항목들을 무시해 버려라.

15. (a) 영화를 촬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Yes No

(b) 만일 있다면, 상업적영화 입니까? 아니면 학술적관심의 영화입니까?

상업적 영화

학술적관심의 영화

(c) 영화의 분량

(d) 영화의 대충의 길이

16. 나에 의해 기술된 위의 모든 정보는 내가 아는 한 진실되면 거짓이 없음을 본인이 직접 서명날 인하여 이를 정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1. 원정대장의 싸인

2. 인쇄체의 이름

3. 일자

파키스탄 대사관 담당관의 싸인

(대사관이 소재하는 국가 및 주소)

‘부록 B’

등반원정대장 및 전 대원들의 신상명세서

1. 정장대장 및 대원의 이름(Mr./Mrs./Miss)
2. 국적
3. 현주소
4. 직장주소
5. 생년월일
6. 출생지
7. 여권번호
8. 여권발급일자
9. 여권발급장소
10. 최근 1년동안 파키스탄 방문한 일자
11. 등반 동안 수행하게 되는 임무
12. 직장전화번호
13. Fax.
14. E-mail

* 주의사항 : 완전하게 기입하십시오.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는 접수가 안됩니다.

‘부록 C’

정부연락관을 위한 장비규모

필요한 용구 및 장비의 품목들	수	량
(i)의복류		
1. 모로 된 내의(각반)	2	
2. 모로 된 조끼	2	
3. 모로 된 셔츠	2	
4. 모로 된 풀오버(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입는 스웨터)	1	
5. 청바지	2	
6. 고소에 내구성 있는 옷 한 벌(자켓 포함)	1	
7. 바람/눈에 견딜수 있는 자켓 및 바지	1	
8. 손장갑(눈에 견딜수 있는)	2	컬레
9. 바라크라바(손으로 짠 모자)	1	
10. 정상형의 모자(햇빛 가리기 모자)	1	
11. 모로 된 모바지	1	
(ii)신발류		
12. 접근행군 부츠	1	벌
13. 고소 부츠	1	벌

14. 양말/스타킹(모로 된 것)	4벌
15. 각반 모양의 목 긴 부츠(Gaiter)	1벌
16. 발 장갑(부츠위에 신는 것)	1벌

(iii)침구류

17. 슬리핑 백(밖과 안이 완전한 것)	1
18. 에어 매트리스/거품 매트리스(방수용)	1

(iv)대피장비(대피용 장비)

19. 2인용 텐트	1
------------	---

(v)등반장비

20. 배낭(Rucksack)	1
21. 스노우 안경(Snow glare glasses)	1
22. 피켈(Ice axe)	1
23. 아이스 햄머(Ice hammer)	1
24. 안전모(Safety helmet)	1
25. 아이젠(Crampon)	1

‘부록 D’

저소포터를 위한 장비규모

필요한 용구 및 장비의 품목들	수 량
1. 가스/석유/오일 스토브(고도에 따라서)	1
2. 타르 칠한 방수외투/모자(최대 4 meter의 나이론 줄 부착)	1(8인용)
3. 정상우의/비막이의 적절한 크기의 플라스틱 판)	1인당
4. 신발	1켤레
5. 양말	1켤레
6. 선 그라스	1벌

고소포터 각자를 위한 장비규모

필요한용구및장비의품목들	수	량
(i)용구(키트)		
1. 모로 된 바지(접근행군용)	1	벌
2. 모로 된 셔츠	1	벌
3. 저지(일종의 스웨터)/모 폴오버(pullover)	1	벌
4. 고소용의 자켓, 옷 한벌 및 바지	각각	1
5. 방풍 및 방설용의 바지 달린 자켓	1	벌
6. 손장갑(방설용)	2	
7. 방한모	1	
8. 모로 된 조끼(Woolen vest)	1	
(ii)신발류		
9. 접근행군 부츠(Approach match boots)	1	켤레
10. 고소용의 부츠	1	켤레
11. 양말/스타킹	3	켤레
12. 오버 부츠(Over boots)	1	켤레
(iii)침구류		
13. 슬리핑 백(밖과 안이 완전한 것)	1	
14. 에어 매트리스/거품 매트리스(방수용)	1	
(iv)대피장비(대피용 장비)		
15. 텐트(4인 포터가 사용이 가능한)	1	
(v)등반장비		
16. 스노우 안경(Snow glare glasses)	1	
17. 피켈(Ice axe)	1	
18. 로프 및 기타 장비	각자가 필요한 만큼	
19. 아이젠(Crampon)	1	벌
(vi)요리용 장비		
20. 가스/석유/오일 스토브	고도 및 대원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	
21. 요리용의 압력밥솥 및 주방가구	고도 및 대원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등반장비의 반입을 위한 서약서

수신 : 파키스탄정부 관광국장 귀하

제목 : 원정대장에 의한 등반 및 트레킹에 필요한 용구 및 장비의 반입 및 반출 에 관한 것

원정대 및 원정대장의 이름

봉우리 이름

친애하는 관계자.

1. 위에서 언급된 원정대/트레킹 대에 관한 동봉된 목록에 준해서 등반장비 및 소모품의 반입을 본인이 신청하는 바입니다.
2. 반입된 장비나 비소모 물품이 소정의 등반 임무를 마친 후에 파키스탄 국외로 반출 된다는 것을 본인이 보증하며, 또한 장비의 어느 일부도 파키스탄 내에서 절대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장비의 일부가 파키스탄 내에서 판매될 경우에 파키스탄 정부가 규정한 법에 의해서 벌금과 함께 통관세와 물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서약하는 바입니다.
3. 나아가서, 본인에 의해 반입된 장비나 기계류는 반입시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파키스탄 내에서 판매되거나 처분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약속을 하며 비소모 물품들은 임무수행 후에 파키스탄 국외로 재반출할 것이며 또한 장비의 어느 일부도 파키스탄 내에서 판매되거나 처분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위반 시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서 벌금과 함께 통관세와 물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정히 서약 하는바 입니다.

재배

동봉서류 :

원정대장 이름

여권번호

날 짜

승인 No.

파키스탄정부 관광국

파키스탄정부 관광부의 담당자의 승인 싸인이 첨부된 본 서약서 사본 1부가 원정대장 혹은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부록 G’

저소포터를 위한 한사람당 식량의 규모

1. 아타(밀가루) ----- 하루 22 온스
2. 기히(요리용 기름) ----- 하루 2.5 온스
3. 설탕 ----- 하루 2 온스
4. 홍차 ----- 하루 1/2 온스
5. 우유 ----- 하루 2 온스(통조림 된
신선한 것)
6. 소금 ----- 하루 1/2 온스
7. 달 차나(후라이 요리) ----- 하루 2 온스
8. 달(콩 종류) ----- 하루 1/2 온스
9. 담배 ----- 하루 10개피
- 10.성냥 ----- 1주일 1통
- 11.육류(고기) ----- 하루 3 1/2 온스
- 12.건조 양파 ----- 하루 1/4 온스
- 13.조미료(고추가루, 후추가루 등) ----- 하루 1/4 온스

‘부록 H’

고소포터를 위한 한사람당 식량의 규모

1. 아타(밀가루) ----- 하루 22 온스
2. 기히(요리용 기름) ----- 하루 4 온스
3. 설탕 ----- 하루 6 온스
4. 홍차 ----- 하루 1/2 온스
5. 우유 ----- 하루 4 온스(통조림 된
신선한 것)
6. 소금 ----- 하루 1/4 온스
7. 달 차나(후라이 요리) ----- 하루 4 온스
8. 달(콩 종류) ----- 하루 4 온스
9. 담배 ----- 하루 10개피
- 10.성냥 ----- 1주일 1통
- 11.육류(고기) ----- 하루 7 온스
- 12.건조 양파 ----- 하루 1/4 온스
- 13.조미료(고추가루, 후추가루 등) ----- 하루 1/4 온스
- 14.종합 비타민 ----- 하루 1개

‘부록 I’

파키스탄 원정대장/부대장 및 원정대원의 신상명세서

1. 이름
2. 아버지 이름
3. 출생지
4. 생년월일
5. 직업/직업명칭
6. 현주소
7. 본적지
8. 등반경험이 있을시, 설명바람

‘부록 J’

포터의 임무수행을 위한 서약서

에 거주하고 있는 Mr. 는 엄숙히 충실하게 아래의 사항들을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 (i) 원정대가 나에게 설명해준 등반원정 허가를 위한 시기 및 조건들을 묵묵히 준수하며 그리고 원정대가 설명한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였습니다.
- (ii) 본 포터는 위에서 언급된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원정대장 Mr. 에 의해 인도되는 원정대와 함께 원정대가 지정한 기간동안 일일 임금으로 파키스탄 루피 의 임금을 받고 충실히 맡은 일을 할 것입니다.
- (iii) 본 포터는 원정 도중에 원정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iv) 나와의 계약기간 동안은 근면하면서도 충실하게 원정대에 봉사 할 것입니다.
- (v) 만일 포터 본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항목 (i)에서 언급된 시기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지방행정관에 의해서 파키스탄의 관련법에 따라 취해지는 고소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1) 지방행정관 이름

(2) 정부연락관 신분증번호

입회하에서 포터가 싸인을 하거나 혹은 지장을 찍는다.

1. 신청자/조직의 세부사항

a) 현지인으로서 신청자

- (i) 신청자/조직의 이름
- (ii) 신청자의 신분증번호
- (iii) 현주소
- (iv) 우편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 (v) 보증인의 주소, 성명, 발송하는 과, 국, 부의 이름 및 주소

b) 외국인으로서 신청자

- (i) 주 신청인/조직의 이름
- (ii) 만일 파키스탄에 소재한다면, 조직의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 (iii) 파키스탄 소재의 공인대리인/지사의 이름 및 주소
- (iv) 자국에 소재하고 있는 조직의 이름

2. 국제해상위성 통신시설의 사용목적

사용목적을 기입 하라

3. 사용하게 되는 국제해상위성기구 통신시설의 수

고정형
이동형

4. 국제해상위성기구를 설치하게 되는 장소의 위치

설치하게 되는 장소의 위치를 기입하라

5. 허가가 요구되는 시기와 시설의 작동일

상세히 기재하라

6. 장비의 명세서

- (i) 장비의 메이커 및 형
- (ii) 제작사의 이름
- (iii) 장비의 모델
- (iv) 장비의 일련번호
- (v) 장비의 치수
- (vi) 장비의 무게
- (vii) 주파수의 범위 TX RX
- (viii) 동력공급에 대한 설명
- (ix) 안테나 설명 높이 형

7. 요구되는 음성(Telex, Fax, HSD, DHSD)등의 용역명세

- (i) 신원확인

(ii) 사용될 시에 두 번째 신원확인

8. 회계 및 광고선전의 명세

(a) 회계관계자	이름	주소
(b) 광고의 실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사용하게 되는 해안지구국(Coast Earth Station)의 이름
국제해상위성기구본부로부터 배정받은 확인번호가 있다면,

(i)

(ii)

진 술 서

나는/우리는 허가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충실히 준수하며, 여기에 설명된 장비가
의 규정에 의해서 작동될 것임을 정히 증명하는 바입니다.

싸인

명칭

일자

행정관의 이름

도장

신청자를 위한 지시사항

1. 본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적어도 8주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2. 모든 요구된 정보가 정당하게 완전히 기입되어야 한다.
3. 기술적인 문헌(책)들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4. 다음의 금액은 면허수수료(면허세)로서 지불된다.

a. 신청수수료	1,000루피
b. 등록비	5,000루피
c. 면허가 만료 시 마다 1년 면허세	1,000루피
d. 면허허가수수료(면허세)	10,000루피

3. 기타 행정서식

1) 입산허가신청서 작성요령

원 문	번 역
1. Name of member/leader	1. 원정대장 또는 대원 이름
2. Nationality	2. 국적
3. Residential address	3. 현재주소
4. Occupational address	4. 직장주소
5. Date of birth	5. 생년월일
6. Place of birth	6. 출생지
7. Passport number	7. 여권번호
8. Date of issue of passport	8. 여권발급일
9. Place of issue of passport	9. 여권 발급장소
10. Most recent dates of visits to Pakistan with places (For one year only)	10. 가장 최근의 파키스탄 방문날짜와 방문 기간 (1년동안)
11. Duties to be performed during climb.	11. 등반기간동안 담당업무
12. Tel(Off.) (Res)	12. 회사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13. Fax(Off.) (Res)	13. 회사팩스번호 집 팩스번호
14. E-mail	14. E-mail
Note : The form must be filled in complete, those which are found incomplete will not be entertained.	주의 : 작성이 잘못되어 오류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2) 비자신청서 작성요령

원 문	번 역
1. Name in full (SURNAME IN CAPITAL) 2. Surname at birth, if different 3. Address – a) Permanent b) Present 4. Date of birth 5. Place of birth (Country and town or district) 6. Present Nationality 7. Nationality at birth 8. Name of father 9. Nationality of father at his birth 10. Whether holder of a passport from her/his government – 11. Whether previously in Pakistan, and if so, places of residence, with dates 12. a) Whether permission to visit Pakistan extend stay in Pakistan has been refused and if so, when? b) whether application for grant of visa has been submitted to any other Pakistan visa issuing authority 13. Profession or Occupation (Give details) a) Number and date of a passport b) Valid until 14. Period for which is required. Note:—Extension of transit visas which are valid for a fortnight will not generally be granted. 15. Objects of journey (Full particulars must be given.) Failure to state fully and in detail the reasons for journey will result in delay or refusal of a visa General expressions such as visit, Business, etc, are not sufficient. If on behalf of a firm name and nationality, should also be stated. 16. Province, Town and, Destination in Pakistan. 17. Port of landing in Pakistan.. 18. Name and address of persons who will furnish information as to applicant and also furnish Financial guarantees for maintenance and repatriation if applied to In country of the application (1) _____ (2) _____ In Pakistan (if none known, say none) (1) _____ (2) _____ Dated – _____ REMARKS. _____ Signature of the application	1. 이름 (성은 대문자로) ex) Sung-bae KIM 2. 태어날때의 성(만약에 다르다면 쓰라는 얘기) 3. 주소 a) 지금 살고있는 주소 b) 현재주소 4. 생년월일 ex) 16/02/1979 5. 태어난 곳 ex) Busan in South Korea 6. 현재국적 – The Republic of Korea 7. 출생국가 –The Republic of Korea 8. 아버님 성함 9. 아버지께서 태어난 나라(국적) 10. Whether holder of a passport from her/his government – 11. 전에 파키스탄에 머문적이 있다면 지명과 기간을 쓰세요 12. a) 파키스탄에 더 머무르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거절된적이 있으면 언제 그랬는지 쓰시오 b) 비자신청서가 파키스탄의 비자처리기관에 제출된적이 있는지 쓰시오 13. 직업 (자세히) a) 패스포트 넘버와 만들어진 날짜 b) 패스포트의 유효기간 14. 요구하는 기간(머무를 기간)– 2주동안 유효한 통행비자의 연장은 기본적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15. 여행의 목적 상세하게 적으시오.

3) 정부연락관 보고서

원정이 끝나고 정부연락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인데 규정대로 등반했는지 판단하는 중요 자료이며, 원정대장도 일부 작성한다. 현역 군인(대위)인 정부연락관은 진급하는데 연락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 원정대장의 정부연락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연락관에게 너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상부상조하는 것이 피차 이롭기 때문이다.

- a) 원정에 대한 전체적 소감
: 날씨때문에 등정은 실패했지만 사람들이 친절하여 즐거운 원정이었다고 씀
- b) 정부연락관에 대한 평가 : 친절하게 많은 것을 도와주었고 지도력이 있다고 씀

16. To be filled by leader of expedition:-

a. General review of expedition:

During expedition, the weather is not so good,
so we couldn't reach the summit. But
Pakistan people are so good and food is nice
we really enjoyed our expedition.

b. About Liaison Officer Conduct / Physical fitness:

We appreciate to Captain Anwar, he gave many
help for our expedition, During Caravan, He also
had a good condition, so he leaded our group.


Signatures of Expedition Leader

4. 원정에 도움을 주신 분

1) 단체(기관) 지원

단 체 명	단체장	금 액
광주광역시	박광태	10,000,000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김국웅	5,000,000
전남대학교	강정채	2,000,000
전남대학교 병원	김영진	2,000,000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산악회	유영식	500,000
합 계		19,500,000

2) 발대식 찬조금

이 름	소 속	금 액
이도형	조선대 산악회OB	50,000
정상춘	전남대 교직원 노동조합	300,000
오경탁	조선대 산악회OB	50,000
양홍식	광주대 산악회OB	30,000
조인성	조선대 이공대 산악회OB	30,000
최경석	조선대 산악회OB	50,000
정득채	서강대 산악회OB	50,000
허 환	서강대 산악회OB	50,000
문종국	조선대 이공대 산악회OB	100,000
윤호준	송원대 산악회OB	20,000
전의천	조선대 산악회OB	100,000
김미숙	천지산악 (설상옥)	1,000,000
	순천대 OB산악회	100,000
김홍빈	송원대 산악회OB	200,000
유영식	전남대 총동창회 산악회	500,000
윤순석	전남대 정보전산원장	50,000
합 계		2,680,000

3) 전남대 OB산악회 찬조금

연번	성 명	금 액	비고
1	김훈봉	200,000	
2	최동식	100,000	
3	정순택	200,000	
4	박장일	100,000	
5	강정채	1,000,000	
6	박항식	250,000	
7	김재률	1,500,000	
8	정태영	200,000	
9	이정옥	2,000,000	
10	양형렬	300,000	
11	김부용	1,000,000	
12	김제승	200,000	
13	이교태	200,000	
14	송희태	250,000	
15	이광호	500,000	
16	오성개	500,000	
17	김희영	1,000,000	
18	박상규	10,000,000	
19	장 회	1,000,000	
20	이연근	300,000	
21	이종호	200,000	
22	서정연	250,000	
23	김광미	300,000	
24	백두인	500,000	
25	조기성	300,000	
26	김민철	300,000	
27	한규성	500,000	
28	김용욱	500,000	
29	박현주	500,000	
30	조양택	100,000	
31	송여진	200,000	
32	고일주	500,000	
33	문귀현	500,000	
34	유명희	500,000	
35	김현성	100,000	
36	최지환	100,000	
37	임준철	100,000	
38	문준연	200,000	
39	원정일	200,000	
40	한창균	200,000	
41	정양숙	100,000	
42	이형관	1,000,000	
43	방경환	200,000	
44	임도균	200,000	
45	김현준	1,200,000	
46	윤현식	1,000,000	
47	한성필	300,000	
	합 계	30,850,000	

4. 물품후원

단 체 명	성 명	내 용
버그하우스	엄재은	등산의류 등 1천만원 상당
노스페이스	성기학	등산의류 등 1천만원 상당
에코로바	조병근	텐트 등 1천만원 상당
에코로바 주월점	송형근	등산장비 등 200만원 상당
로켓트전기	신옥철	건전지 100만원 상당
진도홍주	이종호	홍주 3박스 200만원 상당
조명나라	이도기	전기재료 등 100만원 상당
유한양행	김기수	의약품 200만원 상당
오성의료기	허 환	의료용품 100만원 상당
전남대 보건진료소		기초의약품 다량
한국도로공사 산악팀	박상수	텐트 등 장비 다수 대여
노스페이스 산악팀	박영석	텐트 등 장비 다수 대여
전남대 OB산악회	박현주	고소 한의약품 200만원 상당
대구경북 학생산악연맹		고소의약품 다량
쌍둥이카센타	김현규	차량용 배터리 2개
순천대 산악회OB	주우평	누룽지 다량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우리 나라 산악인재를 양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5. 화환

이 름	소 속
최경주	광주광역시 산악연맹
박상수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위계룡	광주전남 히말라얀클럽
	조선대학교 산악회OB
	한국도로공사 산악팀
	한국설악산악회
박영석	노스페이스 산악팀
나관주	(주)오지로투어
김바달	(유)토승건설

6. 훈련 및 귀국 후 식사제공

이 름	내 용	횟수
김재률	50만원 상당	4
이정옥	30만원 상당	3
오성개	20만원 상당	2
김희영	40만원 상당	1
장 희	50만원 상당	3
김경자	30만원 상당	1
조기성	20만원 상당	1
김용욱	40만원 상당	3
송형근	20만원 상당	1
윤현식	30만원 상당	1
안선희	30만원 상당	2



버그하우스



LOVE
MOUNTAIN
echofoba
(주)에코로바